대외문물교류연구

7

대외문물교류연구 7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해상왕장보고연구회
발행일 · 2007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아출판사
ISBN 978-89-93648-15-7　03910

비매품

대외문물교류연구

7



해상왕장보고연구회

《대외문물교류연구》는 해상왕장보고연구회를 대표하는 연구회지로서 국내외 최고 석학들이 두루 참여하는 종합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이 연구회지는 그동안 해상왕 장보고를 세계화와 해양화의 사표가 되는 인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오늘날 그분의 리더십과 글로벌 마인드는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 경제와 문화의 선도를 위한 롤모델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해상왕장보고연구회는 일본과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심포지움 등의 국제학술교류를 통하여 해상왕 장보고를 한·중·일 간의 평화와 우호의 상징이자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역사적 사례임을 세계에 알려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7년 4월 중국 장보고 기념관의 공식 개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7호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한층 발전?심화시키기 위해 장보고 시대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신적 근간인 불교 등 사상계를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9~10세기의 금은의 유통과 동아시아의 교역〉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참신한

주제로 고대 동아시아 무역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와 업적이 보다 널리 퍼져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발간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회지가 해양문화학 전체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학술지로서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연구를 위해 노력하신 필자 여러분들과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해상왕장보고연구회 김문경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재 철

차 례

1.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와 황해무역 · 9

- 8, 9세기 신라를 중심으로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2. 중국 소재 新羅 행정 지명 고찰 · 57

朴 現 圭(順天鄕大 中文科 敎授)

3. 新羅下代 장흥 천관사 화엄신중과 해상 세력 · 91

曺凡煥 (서강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

4. 신라의 四海와 四瀆 · 121

채 미 하(경희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5. 南宗禪과 新羅社會 · 155
- 張保皐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콘도 고이치(近藤浩一)

6. 9~10세기 金銀의 유통과 동아시아 교역 · 197
이유진(숭실대학교 사학과 강사)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와 황해무역

- 8, 9세기 신라를 중심으로 -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2. 황해의 교역 환경
3. 황해교역의 제 양상
4. 황해교역의 주역
5. 황해교역과 신라의 변동
6. 맺음말

1. 머리말

전근대 서양의 역사는 지중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중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발상지였고,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세력의 각축장이었으며, 근대 초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곳이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광대한 대륙에 둘러싸인 '액체 공간' 에서 서양의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교역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역사가 전개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중해는 늘 서양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하겠다.

지중해가 서양의 중요한 역사 공간이었다면, 黃海는 동아시아의 역사 현장이었다. 동쪽과 서쪽이 각각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둘러싸였고 동남쪽에 일본이 자리 잡고 있는 황해는 한 · 중 · 일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와 교섭의 場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다를 막힌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서양의 지중해가 그렇듯이 고대의 바다는 교류와 교역의 장이고 문화전파의 열린 공간이었다. 고대 동아시아 삼국은 황해

라는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활발한 정치교섭과 문화교류 그리고 경제교역을 행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황해의 역사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바다는 육지와 달리 눈에 보이는 유적과 유물이 없고,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고대 동아시아 역사의 현장이었던 황해는 버려진 역사의 장이 되었고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 동아시아 역사발전 과정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어 이른바 海洋史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윤명철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동아시아지중해'라 정의하고, 동아시아 삼국의 해양활동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강봉룡은 한국해양사를 통시적으로 정리해 해양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였고, 필자는 비록 바다를 직접 다루지 않았으나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던 견당사와 재당신라 상인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황해의 역사성을 탐구하였다.[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해의 역사성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본고는 바로 황해의 역사성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황해를 통한 동아시아 교역 곧 黃海交易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그래서 우선 황해의 교역환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교역형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8, 9세기 신라를 중심으로 황해교역의

1) 尹明喆,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04.
姜鳳龍, 《한국해상세력형성과 변천》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바다에 새긴 한국사》 한얼미디어, 2004.
權悳永,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1997; 《재당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2005.

실상과 교역 주도층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황해교역이 신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아울러 알아보고자 한다.

2. 황해의 교역 환경

1) 자연조건

잘 알려져 있듯이, 황해는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이 한국과 중국 대륙에 둘러싸였고 남쪽이 트인 이른바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이다. 황해의 남쪽은 전남 진도 서쪽 끝 지점에서 제주도 차귀도 서쪽을 잇는 선과 중국 장강 하구의 상해시 崇明島 동쪽을 연결하는 약 460km를 경계로 동중국해와 구분된다. 이 경계선은 1936년에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에서 우리나라 근해의 해양지리학적 여러 요소를 결정할 때 처음 황해의 남쪽 경계선으로 설정한 것으로,[2] 다소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구획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북쪽 경계는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잇는 廟島列島 이북을 발해라 하여 황해와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발해를 포함한 해역까지를 황해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황해를 발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황해를 발해까지 포함한

2) 朝鮮總督府 水產試驗場,《朝鮮海洋便覽》朝鮮總督府, 1936.

해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황해는 동중국해 북서부 곧 북위 31° 31″의 장강 하구에서 북북서쪽으로 뻗어 북위 41°의 발해만 동북쪽에 이르는 거대한 灣(Gulf) 형태의 內海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해는 신생대 제4기 말 간빙기에 해수면 상승에 의하여 한반도가 중국 대륙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남북 길이가 대략 1,000km이고 동서의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약 700km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약 480,700㎢이고 평균 수심은 44m인데, 가장 깊은 곳은 전남 紅島 서방해역으로 103m이다. 동해의 평균 수심이 1,684m이고 남해가 101m이며 서양의 지중해가 1,458m인 점을 감안하면, 황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얕은 바다라 할 수 있다. 전체 면적의 56.5%가 40m 이하의 淺海로,[3] 60m 이상의 비교적 깊은 곳은 동쪽 곧 한반도 쪽에 편재하여 남북으로 뻗어 있다. 반면 중국 쪽은 수심이 매우 낮은데, 장강과 황하 등 중국의 거대 하천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가 흘러 황해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장강 하구의 약 300km 해역이 수심 30m 이하라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4]

얕은 바다는 조그만 기상변화에도 바다의 상태가 쉽게 변한다. 그래서 황해는 波浪이 자주 일고 물길이 쉽게 바뀌며 뚜렷한 해수계가 없다. 물론 쿠로시오(黑潮)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쓰시마(對馬) 난류로부터 분지되어 제주도 서쪽을 지나 황해로 유입되는 황해난류와 발해로부터 중국 대륙을 따라 남하하는 중국대륙연안수 그리고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서한연안수가 있기는 하나 그 흐름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황해 해수가 완전히 교환되는 데는 2, 3년이 걸리는 것

3) 韓相復, 〈黃海의 크기와 그 변천과정〉, 《黃海硏究》 5, 1993, p.6.
4) 李錫祐, 《韓國近海海象誌》 집문당, 1992, p.7.

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황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연해의 조류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황해는 주변 하천으로부터 많은 양의 담수가 밀려들어 염분의 평균농도가 3.2%로, 다른 해양보다 다소 낮다. 특히 황하와 장강 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여름철의 염분농도는 발해만을 비롯한 몇몇 중국 연안에서 2.2%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이 외에도 황해는 표면수온의 연교차가 20도 이상 될 정도로 매우 크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황해가 원래 淺海인데다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동아시아의 독특한 기후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황해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기후대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황해는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동쪽과 남쪽에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인접해 있으므로, 비록 아시아 몬순(monsoon) 지역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나 계절풍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즉 겨울에는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반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逆旋風 고기압대를 형성해 아시아 대륙東岸을 따라 필리핀 북부까지 불어나감으로써 황해에는 강하고 찬 북서계절풍이 분다. 한편 여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하면서 南高北低의 기압대가 형성되어 황해를 위시한 우리나라 근해에 고온 다습한 남동 또는 남서계절풍이 불게 된다. 그리고 봄과 가을은 시베리아기단과 북태평양기단의 세력이 서서히 교체되는 시기로, 황해상에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진 바람이 없다.[5)]

---

5) 오재호, 《기후학(1)-기후와 대기순환》 아르케, 2002, pp. 154~172.
설동일, 〈우리나라 근해구역에 있어서의 월별 바람분포의 기후학적 특성〉,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2-3, 2006, pp. 185~192.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부는 계절풍을 무역풍(trade winds)이라고도 한다. 이는 전근대 범선시대에 이 바람을 해상무역에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겨울과 여름에 각각 북서풍과 남서풍이라는 탁월한 계절풍이 부는 황해의 기후는 전근대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좋은 조건이 되었다.

기후뿐만 아니라 황해 연안 지형도 해상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잘 알려져 있듯이 황해 연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황해 동쪽 연안 곧 한반도 서해안에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많은 灣들이 형성되어 있다. 압록강 입구에서 전남 해남의 서남쪽 岬串에 이르는 직선거리가 650km이나 해안선의 길이는 4,719km나 되어 肢節率이 무려 7.26에 이른다. 그리고 섬이 많아 서해안 도서지방의 해안선 총연장 길이는 3,700km에 달한다. 반면 중국 쪽 해안은 한국 쪽에 비하여 굴곡이 심하지 않으나, 역시 크고 작은 灣들이 형성되어 있다.

수많은 섬과 굴절지형이 어우르진 황해의 리아스식 해안은 자연적인 항 · 포구를 만들어내었다. 물론 한반도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연안에 항 · 포구가 발달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육지에서 흘러드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은 조석간만의 차와 무관하게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반도 황해 연안에는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곳곳에 항 · 포구가 발달하였다. 대동강 하구의 남포항, 재령강이 바다와 만나는 해주만,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한강하구 경기만 일대의 여러 항 · 포구, 당진군의 大津, 금강 하구의 鎭浦, 주진천이 흘러드는 지금의 줄포만 지역, 영산강 하구의 會津 등이 있고, 도서로는 흑산도, 교동도, 백령도, 덕적도, 고구산도 등의 항 · 포구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는 산동반도의 黃縣浦

口, 적산포, 유산포, 교주만 일대를 비롯하여 강소성의 회수와 장강 하구, 절강성 錢塘江 하구의 항주만과 靈江 하구의 태주만 그리고 甌江 하구의 온주만 등은 고대부터 널리 이용되던 항 · 포구였다. 리아스식 지형을 활용한 이러한 항 · 포구의 개발 역시 황해 해상무역을 촉진시켰던 하나의 자연적인 요인이 되었다.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한반도의 지형 역시 황해교역의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은 東高西低의 형태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脊梁山脈으로 삼아 수많은 산맥들이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있다. 소백산맥에서 분지된 노령산맥,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차령산맥, 광주산맥, 그리고 낭림산맥에 갈라진 마식령산맥, 멸악산맥, 언진산맥, 묘향산맥, 적유령산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산맥이 모두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질러 형성되었기 때문에 육로로 중국을 오가거나 한반도 내에서 육지로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산맥뿐만 아니라 강 역시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된다. 북쪽의 압록강에서부터 남쪽의 영산강에 이르기까지 청천강, 한강, 금강 등 크고 작은 많은 강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중국의 동쪽 지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강은 황해를 중심으로 부채 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요하, 난하, 대릉하 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발해만으로 들어가고, 황하, 회수, 장강, 절강, 영강 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옛날부터 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산 아래의 강줄기를 따라 평행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와 중국의 강들 역시 한반도 산맥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육상교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중국 강남지방에는 산지가 없으나 수많은 하천과 늪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고대에 육상교통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결국 황해를 둘러싼 주변의 지형은 육로를 통한 남북 간 혹은 한 · 중 간의 왕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역 간의 교류와 이동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실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 · 중 간의 육로 교통이 불편하다면 당연 그들은 水路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인데, 그것이 바로 황해였다.

2) 인문환경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교역은 비단 황해의 자연조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명 혹은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근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앞선 지역은 중원 대륙이고,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곳이었다. 이처럼 문화적 격차가 뚜렷한 동아시아 삼국 중간에 황해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황해는 이들 지역 간 문화전파와 경제교류의 통로로서 널리 활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황해교역은 전근대 동아시아 문명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인문환경 속에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찍이 조셉 니덤(Joseph Needham)이 중국 문명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심적인 문명' 이라 표현하였듯이,[6] 중국은 일찍부터 사상과 기술을 창안해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중국 문명이 세계적

으로 공헌한 바가 지대하거니와, 특히 전근대 동아시아는 중국문화를 매개로 한 유교문화권 혹은 한자문화권으로 지칭되는 하나의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과학과 기술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원전 수세기에 이미 曆法을 만들고 冶鐵技術을 개발하였으며, 漢代에 이미 초기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중에서도 도자기 제작기술은 이후 약 1천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보유하던 최고의 기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10세기경에 비로소 중국에 버금가는 도자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기술력 차이는 문명의 차이를 초래하였고,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중국 왕래를 촉진시켰다. 그것이 바로 황해를 통한 교류와 교섭이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적 격차와 함께 중국의 전통적인 中華思想 역시 교역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은 선진시대부터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신을 中華라 하고 중화를 둘러싼 지역을 夷狄이라 하여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중화는 덕으로 이적을 교화시킬 의무가 있고 이적은 중화의 德化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이념에 따라 이적이 중화의 천자를 찾아오는 것을 조공이라 하고, 천자가 조공의 대가로 관작을 내려주는 것을 책봉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국제관계인 朝貢・册封體制이다.

다분히 이념적인 조공・책봉체제에서 중국은 천자의 덕화가 사방에 널리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이적들은 招致할 필요가 있

6) 조셉 니덤 著, 李錫浩 외 譯,《中國의 科學과 文明(1)》乙酉文化社, 1985, p. 1.

었다. 그리고 이적은 조공의 명분으로 중국을 왕래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이적 가운데 고대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황해가 놓여 있다. 중국과의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지형상 육로통행이 어려운 한반도와 중국의 조공 · 책봉행렬은 황해를 유용한 통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조공과 책봉은 가족관계에 준하는 禮的 질서에 기반을 둔 정치의례이다.[7] 하지만 거기에는 경제교역과 문화교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조공이라는 말 자체가 암시하듯이 조공을 하는 나라는 자국의 특산물은 상대국에 바치고, 조공을 받는 나라는 回賜라는 명목으로 역시 자국의 물품을 상대국에게 사여한다. 이는 곧 물물교환을 통한 교역의 일종이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조공과 책봉 과정에서 사상과 학문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류도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중화사상과 그것에 기인하는 동아시아의 조공 · 책봉제도 또한 황해교역을 촉진한 중요한 인문환경이라 할 수 있다.

황해교역의 인문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황해 주변의 역사적 추이이다. 황하 유역에서 발흥한 중국은 오랫동안의 분열시대를 거쳐 기원전 3세기 중엽에 秦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의 침입에 대비했는데, 그것이 이후 中華와 夷狄을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가 되었다. 그런데 만리장성 이북 특히 중국 동북방 변경에는 여러 종족들이 교대로 일어나 세력을

7) 권선홍,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pp.12~13.
권덕영, 〈羅唐交涉史에서의 朝貢과 册封〉,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 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5, 2006, pp.266~272.

다투며 끊임없이 중국을 침범하였다.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도 대립하였다. 이처럼 황해의 동쪽 지역인 한반도와 서쪽 지역인 중원 대륙 사이에 늘 적대적인 집단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구도 속에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간의 교류와 교섭은 육로가 아닌 해로 곧 황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방 유목민의 동북 지역 점거뿐만 아니라 한사군 설치에 따른 중국인의 한반도 이주도 고대 동아시아 황해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지금의 평양 지방에 설치한 낙랑군과 후에 公孫氏가 낙랑의 남쪽에 설치한 대방군에는 많은 한인들이 건너와 거주하였다. 그들은 주위 토착세력들과 갈등과 화해를 거듭하며 수백 년 동안 존속하다가 토착세력의 저항과 중국 대륙의 정세변화로 313년과 314년에 각각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 이에 낙랑과 대방군에 거주하던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돌아갔겠으나, 나머지는 고구려와 백제의 통치를 받으며 그곳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일찍이 한반도 중부 해안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낙랑과 대방군은 동북아시아 국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특히 낙랑군은 '극동의 고대 무역기지' 라고 칭해질 정도로[8] 국제무역에 주력하여 중국 대륙은 물론 삼한, 왜와도 활발한 교역을 벌였다. 당시 국제 해상무역을 담당한 사람은 주로 중국 상인이었을 터인데, 그들은 주로 황해와 남해 해안가를 대상으로 토착민들과 교역했다. 그러한 사실은 옛 삼한 각지에서 발견된 五銖錢과 貨泉이 주로 서 · 남해안을 잇는 해로교통상의 요지에서 발견된

8) 金哲埈, 〈百濟社會와 그 文化〉,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1973; 《韓國古代社會硏究》 지식산업사, 1975, p.53.

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어쨌든 그들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낙랑군과 대방군을 거점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장악하였다. 그러한 낙랑과 대방군 사람들이 대거 한반도에 정착함으로써 삼국의 황해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황해의 교역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황해주변의 인문지리적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취락은 강과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 쉽게 형성되고 또 번영하였다. 강과 바다는 생활과 관개용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교섭에 용이한 수운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가였고,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연안에 집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대 중국과 한반도의 여러 도시들도 강을 끼고 발달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과 백제의 수도 한성과 공주 그리고 부여는 모두 대동강과 한강, 금강 유역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중국의 황하를 따라 洛陽, 汴州, 齊州, 淄州, 靑州와 같은 고대도시들이 만들어졌고, 회수 가에는 楚州와 泗州, 장강을 따라서는 揚州, 江寧, 江州 같은 굴지의 도시들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반도와 중국의 강들은 대부분 황해를 향해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강을 따라 내려오면 모두 황해에 도달하므로 황해는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결집처인 동시에 분배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황해를 둘러싼 이른바 동아시아세계는 지역에 따른 문명의 격차, 중화사상의 확장, 북방 유목민의 동북지방 점거에 따른 역사적 갈등, 황해로 유입되는 강가의 문명도시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황해는 고대 동아시아 교역의 통로가 되고 교역의 장이 되었다. 특히 황해는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인문환경을 제공했다고 하겠다. 종합적으로 말해 황해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교묘하게 결합하여 동아시아 경제교역의 열린 공간이 되었다.

3. 황해교역의 제 양상

1) 교역 유형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황해를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역이 이루어졌다. 그중에는 국가 간의 교역인 貿易(trade)도 포함되거니와, 황해교역은 주체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왕조와 왕조 사이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공무역,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교역의 주체가 되는 사무역,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판매하는 약탈무역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당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운용되던 8, 9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행해지던 것은 공무역이었다.

공무역은 양국을 대표하는 관리들 사이에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물품을 교환하는 무역이다. 따라서 조공과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朝貢貿易, 특별히 시장을 개설해 외국사절에게 교역을 주선하는 官市貿易, 특정 국가의 물품을 일시에 고가로 다량 구입하는 互市貿易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절단을 매개로 왕조 사이의 예물 주고받기

형식으로 수행되던 조공무역이 공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8, 9세기 신라는 다양한 형태의 사절단을 당에 빈번히 파견하였다. 遣唐使라 통칭되는 그들은 당에 들어가 본국 왕을 대신해 당나라 임금에게 조회하고 표문과 공물을 바쳤다. 그러면 당나라 조정에서는 견당사가 가지고 온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검열하고 또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공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만큼 당의 물품을 蕃國 왕에게 준다. 이것을 회사품이라 하거니와, 이 외에도 당조에서는 사절단 개인에게도 관등 고하에 따라 각기 차등 있게 선물을 내려주었다. 이러한 공물과 회사품의 교환을 통해 양국 간에 상품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조공무역이다.

관시무역 역시 대부분 각국의 사절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록 후대의 일이지만 蘇軾의 〈論高麗買書利害箚子〉에 의하면, 송나라 조정에서 고려 사신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의 行鋪로 하여금 사신이 머무르는 객관 안에 상품을 진열케 하여 사신들과 교역을 행하도록 했다고 한다.[9]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을 때도 고려 조정은 그들을 위하여 크게 시장을 열어 교역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徐兢이 술회한 바와 같이 옛날부터 행하여지던 관습이었으므로[10] 신라의 대당무역과 당의 대신라무역에서도 행하여졌으리라 생각된다.

호시무역은 주로 북방 유목민을 회무하기 위하여 말 · 금 · 은 · 동 등을 당나라 조정에서 고가로 다량 구입해 주던 무역행위이다. 이는 양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였는데, 그 중간 역할을 담당했던 사

9) "近者 因見官伴中書舍人陳軒等 申乞盡教差勒相國寺行鋪 入館鋪設 以待人使買賣 不惟移市動衆 奉小國之陪臣 有損國體 兼亦抑勒在京行鋪 以資吏人 廣行乞取 弊害不小"(《東坡全集》 권62, 奏議 一十三首).

10) 徐兢,《宣和奉使 高麗圖經》 권3, 貿易.

람이 바로 각국의 견당사를 포함한 관리들이었다. 790년 6월 廻鶻 사신 移職伽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호시를 통하여 말을 판매한 대금으로 絹 30만 필을 당조로부터 받아갔고,[11] 815년 11월에는 吐蕃 사신이 호시를 요청해왔으므로 당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12] 신라와 발해도 가끔 호시의 대상이 되었다. 836년 6월 淄靑節度使가 신라와 발해에서 가지고 온 熟銅을 금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13] 이는 신라와 발해의 銅에 대하여 호시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공무역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이라면, 사무역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교역행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대 동아시아 율령체제 하의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공식 루트를 통한 공무역만 허용되고, 사무역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唐律疏議》(권8) 衛禁條에 의하면, 錦·綾·羅·穀·紬·絹·絲·布·眞珠·金·銀·鐵과 같이 매매가 금지된 품목은 물론이고 다른 물품에 대하여서도 沿邊의 關塞에서는 외국인과 사사로이 교역하는 것을 금하였다.[14] 또 외국인이 당나라 국경을 넘어 들어가 교역하면 내국인이 국경을 넘어 교역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였다.[15] 심지어 외국 사절로 입국한 사람까지도 규제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이 사사로이 시장에서 교역하면 교역한 물품의 양에 따라 남의 물건을 훔친 죄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절단이 왕래 도중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특별한 용무가 없이

11)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請求 貞元 6년 6월.

12)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互市 元和 10년 11월.

13) 《唐會要》 권86, 市;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互市 開成 元年 6월.

14) "諸越度緣邊關塞者 徒二年 共化外人私相交易 一尺徒二年半 三匹加一等 十五匹加役流 疏議… 중략…若共化外蕃人私相交易 謂市買博易 或取蕃人之物及將物與蕃人 計贓一尺徒二年半 三匹加一等十五匹加役流"

15) "其化外人 越度入境與化內交易 得罪並與化內人越度交易同"(《唐律疏議》 衛禁).

는 주와 현의 관인들과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적 교역을 방지하려 하였다.[16]

그럼에도 문무왕 대 義湘은 상선을 타고서 당나라에 들어갔고,[17] 경덕왕 때 長春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장사했다는 기록에서[18] 알 수 있듯이, 비록 활발하지는 못했으나 이전에도 사무역은 늘 존재하였다. 특히 8세기 후반 이후 황해 양안의 정치적 혼란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서방 상인들의 동방진출 등으로 종래 엄격히 통제되었던 사무역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당에서부터 시작된 사무역 바람은 신라와 일본에까지 파급되어, 종전 공무역 위주로 행해지던 동아시아 삼국의 교역체제가 점차 붕괴되어갔다. 그 중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재당 신라인과 장보고였다.[19]

한편 8, 9세기 황해에서는 약탈무역도 성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역에서 재화의 획득과 판매는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자유의지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탈무역은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교역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역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약탈무역은 무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또 그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교역이다. 이러한 약탈무역을 행하던 집단은 다양한데, 해상에서 전형적인 약탈무역을 하던 집단은 바로 海賊이다.

---

16) "因使私有交易者 準盜論 疏議曰…중략…因使者 謂因公私入蕃 蕃人因使入國 私有交易者 謂市買博易 各計贓準盜論 罪止流三千里…중략…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亦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 亦不得與客相見 卽是國內官人百姓 不得與客交關"(《唐律疏議》衛禁篇).

17) 《宋高僧傳》 권4, 의상전.

18) 《三國遺事》 권3, 敏藏寺.

19)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2005, pp. 179~268.

잘 알려진 바와 같이, 820년대 황해에는 해적들이 신라 양민을 붙잡아 중국으로 데리고 가 노비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였다. 그런데 황해의 해적들은 약탈과 납치라는 무력적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매매와 교환이라는 교역까지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해적의 약탈행위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부의 축적과 약탈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교역행위이다. 따라서 이들 해적은 무력을 통한 약탈자인 동시에 교역자였던 셈이다. 해적의 상인적 속성은 820년대의 황해 해적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해적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이었다. 따라서 해적 역시 일종의 해상무역 상인이었고 그들의 행위 역시 교역행위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황해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해적들의 약탈과 매매는 공무역은 물론 일반적인 사무역과 분명히 구분되는 황해 교역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다.[20]

이상에서처럼 8, 9세기 황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국가 간의 공식 통로를 통한 공무역, 개인들 사이에 상품을 거래하던 사무역, 해적과 같은 집단이 무력을 동원하여 행한 약탈무역이 그것이다. 어떤 형태였건 이것들은 모두 황해를 무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황해 교역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20) 尹載云은 〈南北國時代 貿易硏究〉(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pp. 13~24)에서 무역의 형태를 크게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나누고, 사무역을 다시 공무역에 의한 부수적 무역, 지방세력에 의한 무역,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무역으로 구분하여 본고에서 말하는 약탈무역을 사무역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교역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약탈무역은 분명 사무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화의 획득과 판매방식이 일반적인 시무역과 판이하다는 점에서 약탈무역을 또 다른 하나의 교역형태로 분류해도 좋을 듯하다.

2) 교역품

8, 9세기 동아시아에는 공무역, 사무역, 약탈무역을 통해 다종다양한 물품들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역품에 관한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어떤 물품이 얼마나 교역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몇 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해 교역품의 片鱗만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공무역을 통한 교역품이다. 신라는 당이 존속하던 290년 동안 일시적인 갈등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필자는 일찍이 나당교섭사를 모색기, 동맹기, 갈등기, 안정기, 소원기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거니와,[21] 8, 9세기는 바로 안정기와 소원기에 해당한다. 안정기에 양국 사절의 왕래가 빈번하였음은 물론 소원기에도 빈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사절 왕래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조공과 회사를 통한 공무역을 행하였다. 양국 간의 교역품은 관련 자료의 제약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남아 있는 몇몇 수출품[朝貢]과 수입품[回賜]의 품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1〉과 〈표2〉이다. 그리고 참고로 발해의 대당 수출품을 〈표3〉에 정리하였다.[22]

〈표1〉과 〈표2〉에 의하면 신라의 수출품은 금 · 은 · 동 · 자석 등의 광물류와 布 · 帛 등의 직물류, 우황 · 인삼 등의 약재류 그리고 말 · 개 · 매 등의 동물류로 대략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당으로부터의 수입품은 綾 · 羅 등의 비단이 주요 품목이었고 이외에 각종 세공

21) 권덕영, 앞의 논문, 2006, pp. 235~247.

22) 〈표1〉, 〈표2〉, 〈표3〉은 權悳永, 《韓國古代外交史-遣唐使硏究》 일조각, 2007, pp. 279~280의 내용을 참고해 재정리한 것이다.

〈표1〉 신라의 대당 수출품

年 代	目 的	品 目
성덕왕 22		美女, 果下馬, 牛黃, 人蔘, 美髭,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海豹皮, 金銀 등
성덕왕 29		小馬, 개, 金, 頭髮, 海豹皮
성덕왕 30	賀正	金, 銀, 牛黃 등
성덕왕 32	謝恩	小馬, 개, 金, 銀, 布, 牛黃, 人蔘, 頭髮, 海豹皮
경덕왕 3	謝恩	말
경덕왕 7		金, 銀, 60總布, 魚牙紬, 朝霞紬, 牛黃, 頭髮, 人蔘
원성왕 8		美女
혜공왕 9	賀正	金, 銀, 牛黃, 魚牙紬, 朝霞紬 등
소성왕 1	告哀	人蔘
신무왕 1	奴婢	
경문왕 9	謝恩	말, 麩金, 銀, 牛黃, 人蔘, 魚牙錦, 朝霞錦, 40升白氎布, 30升紵衫段, 頭髮, 金釵頭五色綦帶 및 班胸, 各種幞. 鈴. 筒, 緋纈皮, 針

〈표2〉 신라의 대당 수입품

年 代	目 的	品 目
성덕왕 23		錦袍, 金帶 및 綵素布
성덕왕 30	賀正回賜	綾綵, 帛
성덕왕 32		白鸚鵡, 紫羅繡袍, 金銀鈿器物, 瑞紋錦, 五色羅綵
원성왕 2	謝恩回賜	羅錦綾綵, 銀榼, 銀椀, 彩色비단, 옷

품과 비록 의장용에 불과하지만 劍 · 戟 등의 武具類 및 서적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신라의 금 · 은 · 우황 · 인삼과 당의 비단은 양국 공무역의 대표적인 교역품목이었다.

발해의 대당 수출품 역시 자국의 토산물이었다. 요동과 옛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던 담비[貂鼠] 가죽과 송골매,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발해의 말과 같은 陸上動物類, 숭어 · 문어 · 바다표범 가죽 · 곤포와 같은 海產物 그리고 瑪瑙 寶石로 만든 술잔과 금은으로 만든 불상 등의 鑛物細工品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출품에 대하여 발해는 신라와 마

〈표3〉 발해의 대당 수출품

年 代	目 的	品 目
무왕 4		매
무왕 8	宿衛	貂鼠皮
무왕 11	宿衛	매, 鰡魚
무왕 12		말, 海豹皮, 貂鼠皮, 瑪瑙盃,
문왕 1		鷹鶻
문왕 2	謝恩	貂鼠皮, 乾文魚
문왕 3	宿衛	매
문왕 4		貂鼠皮, 昆布
문왕 5		鷹鶻
문왕 7	賀正	말
문왕 13		매
문왕 14		매
문왕 44		日本舞女, 매
희왕 2		金銀佛像, 鷹鶻
이진왕 12	慶賀	瑪瑙櫃, 紫瓷盆

찬가지로 당으로부터 絹·帛·綵練 등의 직물을 수입하였다.

이 외에 중국 도자기도 신라에서 즐겨 수입하던 교역품이었다. 1973년 경북 경주시 조양동에서 출토된 唐三彩의 鍑과 1965년 경북 의성군에서 수집된 백자는 모두 8세기경의 당나라 제품으로 공무역을 통해 신라에 전해졌을 개연성이 높다.[23]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銅官窯 水注와 1960년 경주시 배동에서 출토된 銅官窯 双耳壺와 鉢, 황해도 龍妹島 出土 水注, 충남 부여시 부소산 出土 靑瓷鉢, 인천 부근 출토의 靑瓷水注 등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기 사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한다.[24] 또한 완도 청해진 유적에서 많은 중국 월

23)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の唐代陶磁とその史的意義〉, 《朝鮮學報》 87, 1978, pp. 2~36.
특히 이 논문에서 唐三彩의 鍑은 경덕왕 14년 이전의 신라 견당사가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당의 回賜品이었을 것이라 하였다.

주요산 도자편이 출토되었다.[25] 이들 중 일부 또한 공무역에 의한 교역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사무역을 통한 교역품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역을 통한 신라와 발해의 대당 수출품은 금 · 은 · 인삼 · 우황 · 말 · 해표피 등의 토산물이고, 수입품은 주로 綾 · 羅 등의 비단과 각종 세공품 및 의장용 무구류 등이었다. 공무역이 조공과 회사라는 정치의례의 부산물인 점에서 경제적 이윤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반면 사무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긴다는 경제논리에 따른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가의 희귀품을 교역품목으로 선정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사기》(권33) 잡지(제2)에 기재된 각종 외래 사치품은 사무역을 통해 들여온 물품이 아니었을까 한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서식하는 翡翠鳥의 털로 짠 목도리, 타슈켄트에서 생산되는 에메랄드로 象嵌한 빗과 모자,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바다거북 껍데기로 만든 빗,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서 향기가 나고 단단하여 고급가구의 재료로 쓰이는 紫檀과 沉香, 양모를 주성분으로 하여 문양을 넣어 짠 페르시아산 카펫(carpet)과 같은 직물류 등이 있다. 그리고 당나라의 모직으로 짠 담요인 大唐毯, 구수, 탑등 같은 외래 직물류와 각종 당나라 도자기 제품들도 신라의 사무역 품목에 포함되었음직하다.

특히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 해상무역업자들은 황해를 통해 수입한 다양한 '唐物'을 일본에도 판매하였다. 일본 승려 惠運이 대재부의 관음사와 筑前國 강사로 있을 때 신라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는 銅銙과 疊

24) 三上次男, 앞의 논문, 1978, pp. 2~36.
25) 국립문화재연구소, 《莞島 靑海鎭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1, 2001, pp. 539~551.

子 같은 식기류, 장보고가 대재부에 바쳤다는 말안장, 대재부 鴻臚館 유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이른바 '초기 무역 도자기' 같은 물품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약탈무역의 교역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약탈무역은 무력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판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교역품은 공무역과 사무역을 아우르는 잡다한 품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약탈무역 역시 일반 사무역과 마찬가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사치품을 주로 취급하지 않았을까 한다. 특히 8, 9세기 황해에는 해적들에 의한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사실에서, 약탈무역에서는 '사람' 도 주요한 교역품목이었다고 하겠다.[26]

이처럼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과 약탈무역이 동시에 성행한 8, 9세기 황해교역은 교역의 형태만큼이나 다양한 품목이 유통되었다. 이 시기에는 조공과 회사라는 정치의례 과정에서 행해지던 방물과 비단 및 의장용구의 상호교환이라는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고가의 사치품이 중요한 교역품으로 등장하였고 심지어 '사람' 까지도 교역의 대상품목이 되었다.

26) 신라의 공무역 과정에서도 美女 혹은 奴婢를 당에 보낸 적 있으나, 이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탈무역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4. 황해교역의 주역

1) 견당사절단

주지하듯이 견당사란 당의 주변국에서 당나라 조정에 파견하던 각종 공식 사절단을 말한다. 당이 존속했던 7세기 전반부터 10세기 초 사이에 주변 170여 나라가 당에 사절단을 보내 '朝貢' 하였는데, 신라는 단일 왕조로서 가장 많은 회수의 사절단을 당에 파견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신라는 당 중심으로 움직여지던 당시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보전과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공무역을 위주로 한 경제교역을 수행하였으며, 당의 선진문물을 수입해 본국에 이식시켜 신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견당사절단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견당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 · 부사 · 판관 · 녹사 · 통사 같은 관인 계층, 견당사가 당을 왕래할 때 선박 운항을 전담한 海師 · 榜人 · 船工 · 柁師 · 挾抄 등의 기술직 그룹, 견당사 관인의 개별적 호위와 시종을 맡았던 從者 혹은 傔從 같은 궁사 집단, 사절단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던 구법승과 유학생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견당사절단의 종류 역시 다양하였다.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내는 하정사, 당의 시혜에 보답하기 위한 謝恩使, 당에 어떤 일을 알리거나 시비를 가리기 위한 告陳使, 특정 사안을 요청할 때 보내는 奏請使, 당조에 경사 혹은 흉사가 있을 때 파견하는 慶賀使와 弔慰使 등이 그것이다.[27]

사실 견당사는 어디까지나 양국 간의 정치현안을 교섭 또는 해결하는

외교사절이므로 그들의 일차적 목적과 명분은 양국 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미 외에 경제적 욕구 역시 강하게 작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견당사들은 본국 왕을 대신해 당나라 임금에게 표문과 공물을 바치고 회사품을 받아왔다. 그것이 이른바 조공무역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관시무역을 통해 당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호시무역을 주선하는 등의 공무역을 담당하였다.

견당사의 교역행위는 공무역에만 그치지 않고 사무역에도 관여하였다. 비록 당나라 조정에서 사무역을 철저히 금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나, 가끔 예외적으로 각국의 사절단에게 사사로운 교역을 허용하기도 했다. 713년에 입당한 말갈의 왕자가 시장에 가서 교역하기를 청하자 당에서 그것을 허락하였고, 716년에 奚國의 사신이 장안의 西市에서 물화의 교역을 청하여 허락받은 적이 있었다.[28] 그리고 717년에 일본 견당사는 장안 시장뿐만 아니라 州와 縣의 시장에서까지 외국으로의 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물품의 교역을 허락받았다.[29] 신라 견당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사로이 교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견당사들은 당나라의 공인을 통한 사무역 외에도 일종의 밀무역도 행하였다. 사절단의 밀무역 관행은 어느 시대 어느 왕조에서나 존재하였다. 남북조시대의 交聘使들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의 각종 물품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30] 당의 사신은

27) 견당사절단의 구성과 종류 등에 관해서는 權悳永, 앞의 책, 1997, pp. 120~188 참조.

28) 《冊府元龜》 권971, 외신부 조공(4); 《冊府元龜》 권999, 외신부 청구 및 호시.

29) 東野治之는 〈奈良時代遣唐使の文化的役割〉(《佛教美術》 122, 1979, 40쪽)에서 《冊府元龜》 (권974) 외신부 褒異 開成 5년 10월 乙卯條의 기사를 이상과 같이 해석하였다.

30) 金鍾完, 〈南北朝의 交聘關係〉, 《東亞史의 比較硏究》 일조각, 1987, pp. 165~166.

옛날부터 신라에 가면 자금을 가지고 가서 신라 상품을 구입해 와 많은 이윤을 남겼다고 한다.[31] 실제 838년 일본의 견당대사 藤原常嗣가 약품과 향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監國信 春道永藏과 판관 長岑高名을 양주에 보내 물건을 몰래 구입하려다 발각된 적이 있다.[32]

신라 견당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에서 밀무역을 했을 것이다. 신라 견당사가 당에 들어가면 반드시 금·은을 내어 張薦의 시문을 사갔고,[33] 신라인이 본국 재상의 부탁을 받고 白居易의 글을 구매해 갔다는 것은[34] 신라 견당사의 밀무역 양태를 말해준다. 그 과정에서 신라 견당사들은 당나라 물건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와 아라비아 등지의 물품도 다량 매입하였음직하다. 일본 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鳥毛立女屛風의 下貼文書로 남아 있는 일본 귀족들의 신라 물건 매입 신청서에 당과 남해 및 서아시아의 산물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라 견당사들이 당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아니었을까 한다.[35]

이처럼 신라 견당사절단은 여러 형태의 교역활동을 통하여 본국과 당의 재화를 교환·판매·구입하였다. 그런데 신라 견당사의 교역활동은 황해를 통한 나·당왕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신라 견당사의 왕복 행로를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없으나, 그들이 당을 오가며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은 황해였다. 당시 황해를 건너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었다. 하나는 당은포와 등주를 잇는 황해중부 횡단항로이고,

31) 《舊唐書》 권149, 열전 歸崇敬; 《册府元龜》 권654, 奉使部 廉愼.
32) 圓仁, 《唐求法巡禮行記》 권1, 開成 4년 2월 20일.
33) 《新唐書》 권161, 列傳 張薦.
34) 《舊唐書》 권166, 列傳 白居易; 《新唐書》 권119, 列傳 白居易.
35) 이 買物害는 752년 金泰廉 일행이 신라에서 일본에 가지고 간 물건을 사기 위한 購買 申請書로, 본고에서는 池田溫이 정리해 놓은 文書(〈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卞麟錫教授還曆記念 唐史論叢》, 1995, pp. 213~224)를 참고하였다.

다른 하나는 회진에서 淮水와 長江 혹은 浙江口를 잇는 황해남부 斜斷航路이다.

어느 길을 택하여 황해를 횡단하든 당시의 조선과 항해술로는 모두 위험한 코스였다. 전술하였듯이, 수심이 얕은 황해는 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 '광폭' 한 바다이다. 그래서 견당사들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왕래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길을 택해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 특히 그들은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황해의 계절풍을 최대한 활용해 황해를 횡단하였다. 주로 음력 7, 8월경에 신라를 떠나 연말 연초에 입당한 신라 견당사들은 대부분 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황해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고 태풍 경로가 남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귀국하던 견당사들은 주로 남부 사단항로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황해 상에서의 남서 계절풍 및 대마난류와 같은 해류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의 견당사들은 황해를 건너다니는 와중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신라 견당사의 해상 조난사고로는 흥덕왕 6년(831)에 승려 9명과 함께 당에 들어갔던 왕자 金能儒가 귀국 도중에 漂歿하였고, 경문왕 2년(862)에는 아찬 富良 일행이 입당 도중에 溺沒한 것을[36] 비롯한 7, 8건의 사례가 보인다. 그리고 발해 견당사의 해상 사고로는 828년에 발해 하정사가 귀국하던 도중 塗里浦에서 몰살한 사건[37] 등 2건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 견당사의 경우는 전체의 약 3분의 1이 어떤 형태로던 바다에서 조난당했다.[38] 이 외에도 기록에 보이지 않는 황해의

36) 《三國史記》 권10, 흥덕왕 6년 2월 및 같은 책, 권11, 경문왕 2년 8월.
37) 《續日本後紀》 권11, 承和 9년 3월 辛丑.
38) 森克己, 《遣唐使》 至文堂, 1966, pp. 31~68.

해상 사고 역시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견당사절단은 황해를 무사히 건너다니며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신라 견당사는 황해를 통행로로 삼아 나 · 당 간의 공무역을 전담한 것은 물론 사무역의 일부를 떠맡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을 황해교역의 주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2) 재당 신라인

8, 9세기 당나라 황해 연안과 운하 주변에는 많은 신라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 당나라 황해 연안은 지리적으로 신라와 가까울 뿐더러 당의 주변 지역이면서도 교통이 빈번하여 외래문화와 이민족 집단거주에 대한 唐朝의 경계심이 느슨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7세기 중엽 이후 국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골품제라는 사회적 억압, 정치적 망명, 불교와 유교에 대한 학습욕구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으로 신라인들이 파상적으로 당에 건너가 황해 연안 일대에 정착하였던 것이다.[39]

이처럼 다양한 연유로 당에 건너가 정착해 살던 사람을 일반적으로 재당 신라인이라 하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구역 혹은 마을을 재당 신라인 사회라 칭한다. 그런데 당시 재당 신라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던 곳은 장강 하류의 揚州, 회수 유역의 楚州와 漣水縣, 태주 黃巖縣, 산동반도의 登州와 萊州 일대이다.[40] 그중에서도 초주와 연수현

39) 權悳永, 〈在唐 新羅人社會의 形成과 그 實態〉, 《國史館論叢》 95, 2001, pp. 67~76.

그리고 황암현의 新羅坊과 산동반도의 적산촌과 유산포 등지가 대표적이다.

이들 재당 신라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들을 활동 분야별로 대별하면 대략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재당 신라인 사회의 지도자 그룹이고, 두 번째는 당에 장기체류하던 승려와 유학생들이며, 세 번째는 당에서 관리로서 활동하던 신라인이고, 네 번째는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재당 신라인들의 해상무역활동이 특히 돋보였다.

8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정치·사회적 변혁의 와중에서 종전에 금지되었던 사무역이 성행하자, 재당 신라인들이 해상무역에 대거 참여하였다. 그들은 9세기 전반 황해를 무대로 당·신라·일본의 대외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장보고를 비롯하여 張詠, 王請, 李少貞, 張公靖, 金珍, 金子白, 欽良暉, 王超 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재당 신라인들은 황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해역을 무대로 대일본 무역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재당 신라인들의 대일 무역활동은 약 1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무역활동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41] 첫째 시기는 8세기 후반부터 장보고가 암살된 841년 말까지 약 60년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재당 신라인들은 대일무역을 독점하였다.

둘째 시기는 842년부터 860년대 후반까지이다. 이 시기 재당 신라인들은 830년대 후반부터 경색되기 시작한 나·일관계와 장보고 독점무

40) 金文經, 〈在唐 新羅人의 集落과 그 構造-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1969, pp. 105~125.
權悳永, 앞의 논문, 2001, pp. 76~80.

41) 권덕영, 〈在唐 新羅人의 對日本 貿易活動〉, 《韓國古代史研究》 31, 2003, pp. 257~291 참조.

역의 후유증, 당 상인의 성장, 신라인의 해적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상단을 운영하지 못하고, 당 상인과 제휴 혹은 연합을 통하여 대일무역을 이어 나갔다.

셋째 시기는 870년대 이후이다. 869년에 일어난 신라 해적의 일본 공물 탈취 사건과 신라의 일본 침공설로 인하여, 신라에 대한 일본인의 경계심과 적대감 그리고 배타의식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 와중에서 大宰府에 체류하며 대일무역에 종사하던 신라인들이 대거 내륙 오지로 유배됨으로써 재일 신라인 사회가 와해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당 신라인의 합법적인 대일무역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재당 신라인의 해상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이다. 장보고는 십수 년 동안 재당 신라인으로서 당에 거주하였고, 귀국 후에는 재당 신라인과 그 사회조직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하였다. 9세기에 장보고가 이룩한 해상세력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는 해상 상업제국(maritime commercial empire)이라 명명한 바 있거니와,[42] 장보고의 해상 상업제국은 그의 정력적인 해상활동의 결과이다.

9세기 초 신라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폭압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피해 당에 들어간 이후 장보고의 생애에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한 사건들이 계기적으로 일어났다. 장보고의 상업제국도 그의 인생역정에 따라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제1단계는 820년대 전반기로 당나라 황해 연안에서 6, 7년 동안 해상무역업에 종사하여 경제적 · 군사적 기초를 닦았고, 제2단계는 828년에 청해진 설치를

42) Edwin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5, p. 294.

통하여 자신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세력을 확고히 하였으며, 마지막 제3단계는 839년에 神武王 즉위 거사에 자신의 군사력을 제공한 후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마침내 해상 상업제국을 완성하였다.

장보고가 상업제국을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막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선원 집단 그리고 세련된 상인 집단을 한데 어울러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원은 대부분 당나라 황해 연안에 거주하고 있던 재당 신라인들이었다. 즉 장보고는 820년대 초 당의 번진에서 퇴역한 신라 출신의 군인들을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 신라 연해안에서 掠賣되어 온 신라의 양민들과 일부 재당 신라인들을 선원 집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종전 황해 연안에서 독자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던 재당 신라인들을 상인 집단으로 포섭하였다. 이들이 바로 장보고 상업제국의 인적 기반이 되었다.[43] 그 후 장보고는 점차적으로 청해진 주변의 海民과 食邑의 장정 및 군소 무역업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여 상업제국의 인적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였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장보고는 청해진을 국제무역 센터로 삼고, 당의 사주 연수현과 일본 博多津에 자신의 무역기지를 설치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무역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장보고 선단은 중계무역을 통한 상품유통업과 해운업에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보고 무역선은 당의 제품뿐만 아니라 서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방의 물품들, 이른바 唐物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였다. 그들이 취급한 상품은 구리로 만든 식기류에서부터 도자기 그리고 타슈켄트산 에메랄드로 장식한 빗과 페르시아산 카펫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였다. 장보고

43) 권덕영, 〈張保皐의 商業帝國과 國際貿易〉, 《STRATEGY21》 vol 4-2(통권 8호), 2002, pp. 35~41.

선단은 이러한 고가의 호화 사치품을 신라와 일본에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830년대 양국 인민들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보고 무역선은 당 · 신라 · 일본을 왕래하던 사람과 물건들을 실어 나름으로써 동아시아 인적교류를 촉진시켰고 아울러 문화교류에도 기여하였다.

이처럼 재당 신라인들은 황해를 무대로 당과 일본 그리고 신라를 대상으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장보고는 청해진을 황해무역의 센터로 삼고 각국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여 황해무역을 독점하였다. 이런 점에서 재당 신라인들 역시 8, 9세기 황해교역의 주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해적과 해상 호족

해적과 해상 호족 역시 8, 9세기에 황해를 무대로 교역에 종사하였다. 8세기 말 이후 당과 신라의 총체적인 불안 정국 속에서, 황해 兩岸에서는 유이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아울러 각지에서 세력가들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해상에서는 민간무역이 성행하였다. 그런데 自活의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난 유이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해외로 가거나 혹은 지방의 세력가에 의지하여 그들의 전호, 노비 또는 도적이 되었다. 이들 도적이 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해적 성향을 가진 해상세력가에 投託하여 해적이 되었는데, 그들은 황해와 남해를 왕래하던 수많은 민간무역선을 약탈 대상으로 하여 9세기에 크게 번성하였다.

황해에서는 해적들이 신라인을 붙잡아 가 당에 노비로 매매하는 일이

성행하였고, 남해에서는 신라의 官物과 官船을 습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았다. 그리고 해적들은 일본 대마도와 九州 지방의 서해안 일대를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약탈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에 당은 평로절도사 薛平의 주청에 의하여 821년 3월 11일에 해적의 신라인 약매를 금지하는 조칙을 내렸고,[44] 일본은 대재부 관내와 長門 · 石見 · 出雲國에 경비를 강화하여 해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며,[45] 신라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를 大使로 삼아 해적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황해 연안의 해적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으나, 장보고 사후에 다시 나타나 10세기 초까지 맹위를 떨쳤다.

한편 이 시기를 전후하여 황해와 남해 연안에는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재지세력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비록 공리적 명분을 갖춤으로써 이른바 '해상 호족' 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46] 초기에는 해적과 닮은 점이 많았다. 우선 그들은 모두 바다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고, 둘째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군사력 곧 사병을 보유하고 그것을 자신의 해상활동에 활용하였으며, 셋째 모두 해상무역을 통하여 富를 축적했다. 이런 점에서 초기의 해상 호족 역시 해적과 마찬가지로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해상무역에 종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8, 9세기 황해 해상무역에서는 해적과 '해상 호족' 그리고 민간 상인 사이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다. 당시 혼란한 정치 ·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海商들은 자체방어를 위하여 무장 선단을 꾸려 해상무역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47]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불법적인

44) 《唐會要》 권86, 奴婢 太和 2년.
45) 《日本後紀》 권22, 弘仁 3년 정월 甲子.
46) 권덕영, 〈新羅 下代 서 · 남해 海賊과 張保皐의 해상활동〉, 《대외문물교류연구》 창간호, 2002, p. 25.

약탈과 살상을 자행하였다. 신라 海商이 불법적으로 남의 물건의 약탈한 사실은 일본 문헌에서 확인된다. 《日本三代實錄》(권16)에 의하면, 869년 신라 해적들이 博多津에 와서 豊前國이 조정에 바칠 공물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때 일본 조정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재부에 거주하며 교역에 종사하고 있던 潤淸·宣堅 등의 재일 신라인 30명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모두 투옥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명을 武藏國·上總國·陸奧國에 분산 유배시켰다.

여기서 일본 조정이 윤청 등 신라 상인들에게 혐의점을 둔 것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른바 '신라 해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윤청 등은 일본에 귀화하여 대재부에 머물며 교역업을 종사하던 상인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약탈과 살상만을 일삼는 순수한 해적과 공모하여 일본의 공물을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윤청 등이 관련을 맺고 있던 '신라 해적'은 아마 종래 윤청 등을 통하여 일본과 거래하던 신라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869년 풍전국의 공물을 탈취한 '신라 해적'은 해적 성향을 띤 신라 海商이라 할 수 있다.[48]

일반적으로 해상 민간무역에 대한 정부의 제재와 통제가 심해지면 종전 합법적으로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은 밀무역과 같은 불법행위나 약탈과 같은 해적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16세기 중엽 明이 海禁政策을 실시하여 해상무역을 엄격히 통제하자, 王直을 비롯한 중국

47) 李炳魯, 〈寬平期(890년대) 日本의 對外關係에 관한 一考察〉, 《日本學誌》 16, 1996, p. 24~25.

48) 사건 다음 해인 870년 2월 12일에 일본 조정이 대재부에 내린 조칙에서 "如聞 新羅商船時時到彼縱託事賈販 來爲侵暴"(《日本三代實錄》 권17, 貞觀 12년 2월 12일 갑오)이라 하여, 대재부 관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주체를 '신라 상선'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풍전국에서 공물을 탈취한 '신라 해적'이 신라 海商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해상들이 밀무역과 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 하나의 예이다.[49]

전술하였듯이 9세기 신라의 대일무역은 840년대 초까지 신라 상인들이 대일무역을 독점하다가 일시적인 제휴기를 거쳐 860대 후반부터 단절기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었다.[50] 이에 신라 상인들은 일본의 통제정책에 반발하여 불법적인 해적행위를 저질렀음직하다. 그렇다면 9세기 후반 일본 해역에 빈번하게 출몰하던 신라 해적 역시 순수한 해적이기보다 신라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태도에 대한 신라 海商들의 반발이랄까 대응의 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海商에는 한반도 서·남해의 많은 호족들도 포함될 것이다.

실제 신라의 호족으로 보이는 세력이 894년 9월에 대마도를 습격하여 해적행위를 한 일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扶桑略記》(권22) 寬平 6년 9월 5일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거니와, 그들은 2,500명의 인원과 100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던 집단이었다. 이는 909년에 왕건이 진도군과 고이도를 함락하고 덕진포에서 견훤의 주력 수군을 깨뜨렸을 때의 병력규모와 같은 숫자로, 태봉이나 고려의 전체 수군력과 맞먹을 정도이다.[51] 그리고 조직내부에 설치된 대장군·부장군·장군 같은 직책은 질서정연하게 짜인 군대조직을 연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文室善友가 이끄는 일본 관군과 약 1달간 공방전을 벌일 정도로 이들의 전투력이 뛰어났다. 이런 점들로 보아 그들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한반도 서·남해역에 재지적 기반을 두고 있던 해상세력 출신 호족의 군대였을 가능성이

49) 佐伯弘次, 〈海賊論〉, 《アジアなかの日本史3-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1992, p. 56.
松浦章, 《中國の海賊》 東方書店, 1995, pp. 64~66; 《中國の海商と海賊》 山川出版社, 2003, pp. 50~58.

50) 권덕영, 〈在唐 新羅人의 對日本 貿易活動〉, 《韓國古代史硏究》 31, 2003, pp. 271~289.

51) 日野開三郎은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4)〉(《朝鮮學報》 20, 1962, pp. 89~90)에서, 泰封과 高麗의 해군력은 전함 100척에 수군 3,000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높다.[52]

결국 9세기 한반도 해역의 해상 호족은 해적의 속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들이 명분상으로는 공리적 이념을 내걸고 합법적 집단임을 闡明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불법적 해적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었다. 이런 점에서 신라 하대 해적과 일부 해상 호족은 동일한 집단의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 호족은 바다를 통한 대외무역에 종사함으로써 경제력을 쌓은 海商의 일종이고 해적 역시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또 다른 형태의 海商이었다. 사실 해적의 약탈행위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그러한 목적 곧 富의 축적과 수단 곧 약탈행위 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업행위이다. 820년대 황해의 해적들이 신라 양민을 붙잡아 중국에서 노비로 판매하는 행위 속에는 약탈과 납치라는 해적행위뿐만 아니라 매매와 교환이라는 상업행위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53] 따라서 해적은 약탈자인 동시에 약탈물을 거래하는 상인이었다.

어쨌든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해역이었다. 그들은 특히 견당사의 왕래가 종전에 비해 뜸해지고 재당 신라인들의 합법적 무역이 주춤하던 9세기 후반에 황해와 남해 해상에서 불법적 약탈과 합법적 교역을 동시에 행하면서 황해무역에 종사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들 역시 황해교역의 주역이었다고 하겠다.

---

52) 山內晋次, 〈九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民衆の移動と交流-寇賊・反亂のおもな素材として〉, 《歷史評論》 555, 1996, p. 54.
권덕영, 앞의 논문, 2002, p. 27.

53) 濱田耕策, 〈新羅海賊の出沒と "侵攻" 幻想〉, 《日本古代史[爭亂]の最前線》, 1998, p. 314; 〈新羅王權と海上勢力-特に張保皐の淸海鎭と海賊に關連して〉,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刀水書房, 1999, p. 452.

5. 황해교역과 신라의 변동

1) 골품제의 동요

8, 9세기 활발하게 전개된 황해무역은 신라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골품제의 동요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라는 혈연에 기초한 신분제도인 골품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엄격한 계급사회였다. 즉 골품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출세가 보장되거나 제한되었고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골품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에 따라 골품의 높고 낮음은 경제력의 차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진골을 비롯한 일부 상위 골품 귀족들은 신라의 경제력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골품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우선 제도적으로 보장된 祿邑을 들 수 있다. 신라 녹읍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54] 일정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과 그 곳에 거주하는 백성의 노동력까지를 징발할 수 있는 일종의 식읍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녹읍은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크게 확산되어, 진골 귀족들은 전국에 걸쳐 녹읍을 소유하게 되었다. 삼국통일의 원훈이라 할 수 있는 金仁問이 熊川州 서남쪽 곧 지금의 충남 보령군 성주면의 성주사지 일대에 봉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55] 비록 그것은 신문왕 9년에

54) 신라시대 녹읍의 성격에 관해서는 李喜寬의 《統一新羅 土地制度硏究》(일조각,1999) 제2편 제1장 '祿邑의 性格과 그 變化' 참조.

55) "有一寺在熊川州坤隅 是吾祖臨海公[祖諱仁問 唐酬伐濊貊功 封爲臨海君公] 受封之所" (〈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

일시 폐지되었으나 경덕왕 16년에 다시 부활되어 신라 말까지 골품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녹읍뿐만 아니라 진골 귀족들은 사여, 겸병, 개간, 점탈 등의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인 문무왕 9년(669)에 전국 174개의 목마장을 왕실과 관청 그리고 대아찬 이상의 진골 귀족에게 사여하였고,[56] 일본 승려 圓仁은 신라국의 제3재상이 한반도 서남 지역의 다도해상에 있는 黃茅島에서 말을 방목하는 사실을 실재로 견문했다.[57] 뿐만 아니라 《新唐書》(권220) 신라전에 "재상의 집에는 祿이 끊이지 않고 奴僮이 3천 명이나 되고, 甲兵과 牛馬 돼지의 숫자도 이와 맞먹는다. 가축은 海中의 산에 방목했다가 필요할 때면 활을 쏘아서 잡는다."라고 하였으며, 〈開仙寺石燈記〉에서는 개선사 토지에 인접해서 35금입택 중의 하나인 池宅의 땅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골품 귀족들은 전국 각지에 목장을 소유하고 노비와 전호를 거느렸으며, 지택 같은 진골 귀족들은 전국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대토지를 겸병,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골 귀족들은 이른바 금입택이라는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58] 그리고 왕실에서는 철에 따라 거처하는 국왕 일가의 별장을 왕경 주변의 산언덕 전망 좋은 곳에 마련했는데 이른바 四節遊宅이 그것이다. 결국 신라 중대 이후 왕경 귀족들은 신라의 경제를 독점하였고, 신라의 경제력은 이들이 사는 왕경으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

56) 《三國史記》 권6, 문무왕 9년.

5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4, 大中 元年 9월 6일.

58) 李基東, 〈新羅金入宅考〉, 《震壇學報》 45, 1978;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pp. 183~208.

그러나 9세기에 들어와 해외 민간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에 상업자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유층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종전의 농업에 기반을 둔 골품 귀족들과 달리 상업에 기반을 둔 신부유층이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쌓은 장보고가 대표적이거니와, 후술하듯이 장보고를 이어 그와 유사한 인물들이 황해와 남해 연안에서 속속 나타났다.

국제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들은 종전 골품 귀족들이 威勢品으로 사용하던 외국의 진귀한 물건들을 그들과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골품 귀족의 권위에 상처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황해무역으로 얻은 경제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골품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했다.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실의 次妃로 들이려 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장보고의 시도는 비록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후 계속된 해상세력들의 도전으로 마침내 골품제가 붕괴되었다.

9세기의 황해무역은 또 다른 면에서 골품제를 동요시켰다. 종전 공무역에 주로 의존하던 시기, 외국의 진귀한 물품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왕실과 극소수의 귀족계층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민간무역의 활성화로 대량의 외래품이 쏟아져 들어오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외래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신분질서를 무시한 생활 패턴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신분 간 물품사용의 규제가 무너져갔다. 이는 신분에 따라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던 신라 골품제 사회의 일종의 위기였다.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람이 흥덕왕이다.

흥덕왕은 동왕 9년(834)에 敎書를 내려 "사람은 上下가 있고 지위는 尊卑가 있어서, 그에 따라 호칭이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로움을 일삼고, 오직 외래 물건의 진귀함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을 野鄙하다고 혐오하니, 신분에 따른 예의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는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엄한 명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나라의 법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59] 이어서 진골 이하 각 신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의복, 車騎, 器用, 屋舍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치 풍조의 규제 대상이 진골과 6두품 같은 상위 골품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4, 5두품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호화 사치품 사용이 만연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그들이 호화 사치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당시 황해를 주 무대로 당, 신라, 일본을 오가며 교역활동에 종사하던 해상무역업자들이었다.

결국 신라 하대 황해를 통한 국제무역은 상업자본가를 탄생시켜 골품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해상무역업자들은 해외의 진귀한 물품들을 국내에 대량으로 판매 · 유통시킴으로써 골품제에 반하는 생활패턴을 만들어 내었다. 이런 점에서 황해무역은 신라 골품제를 동요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9) 《三國史記》 권33, 雜志2.

2) 지방세력의 등장

신라 하대 황해를 통한 해상무역의 활성화는 지방세력의 발호를 촉진시켰다. 비교적 초기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장보고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장보고가 완도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흥덕왕 3년(828)이었다. 일찍이 당에 건너가 徐州 武寧軍 군중소장을 역임한 장보고는 당시 신라 양민을 대상으로 성행하던 노예무역을 근절시키고 해상무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흥덕왕에게 해로의 요충인 완도에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고, 자신이 대사가 되어 해상무역에 종사함으로써 호족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청해진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노예무역을 행하던 해적들을 소탕하고, 신라 · 당 · 일본 간의 국제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신라 왕실의 왕위 쟁탈전에 관여한 결과 진골 귀족들과의 갈등으로 841년 염장에게 암살되었다.

그 후 황해와 남해 연안에는 장보고와 유사한 해상세력이 등장해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송악의 王建 가문이다. 왕건 가문이 호족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활동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왕건의 先代는 예성강 하구의 송악 지방을 근거지로 중국과의 해상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 주위의 다른 호족을 포섭함으로써 패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호족으로 성장하였다.

패서 지방에는 貞州의 유천궁, 白州의 유상희 등의 해상 호족들도 있었다. 정주와 백주는 예성강과 임진강 그리고 한강이 합류하는 곳이고 내륙과 해양을 출입하는 咽喉로써, 일찍부터 군사 · 교통상의 요지로 활

용되었다. 나당전쟁기 당의 군사가 정주 앞바다에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었고,[60] 909년과 914년에 왕건이 나주 지방으로 출정할 때 정주 포구에서 전함을 수리하였다.[61] 유천궁은 바로 이 지역에서 長者로 불리던 호족으로, 왕건이 이끌던 수천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정도의 재력과 수백 척의 전함을 수리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상희는 일찍이 作帝建을 위하여 인민을 동원해 그곳에 永安城과 궁실을 쌓았다. 유천궁과 유상희의 그러한 경제력과 기술력은 아마 해상무역을 통하여 얻었을 것이다.

아산만 일대의 황해 중부해안에도 왕건 가문과 유사한 해상 호족들이 출현하였다. 혜성군의 卜智謙 가문과 朴述熙 가문이 그들이다. 혜성군은 지금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일대로, 이곳은 일찍부터 해상교통의 요지로 활용되었다. 이 지역을 포함한 현재의 충남 內浦地方은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진번군이 해상루트를 통하여 전진기지로 삼았던 곳으로 추정되고, 낙랑군과 해상으로 밀접하게 교섭했던 서해항로의 요충이었다.[62] 그리고 삼국시대에 백제가 혜성군 加里渚 동쪽에 水軍倉을 설치하였고, 후에 신라는 槥山의 동쪽에 椋館을 지어 나·당 간을 왕래하는 사신과 상인들의 숙박과 상거래에 활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곳을 大津이라 하였다고 한다.[63] 따라서 혜성군의 토착세력들은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상무역으로 경제적인 부와 군사력을 증강시켰음직하다.

복지겸의 선조 卜學士는 당으로부터 혜성군에 건너와 거주하면서 해

60) 《三國遺事》 권2, 文虎王法敏.
61) 《高麗史》 권1, 세가 태조1.
62) 李基東, 〈馬韓史 序章〉, 《馬韓 百濟文化》 12, 1990; 《百濟史硏究》 일조각, 1996, pp. 64~72.
63) 《增補文獻備考》 권35, 輿地考23 關防11 海路3 西海亭館.

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모아 보호했다고 한다.[64] 복학사가 언제 어떤 연유로 당으로부터 혜성군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적을 소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상당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던 해상세력가였음이 틀림없다. 복지겸은 그러한 해상세력가의 후손으로 후에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었다.[65] 박술희 역시 혜성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得宜가 大丞의 官階를 가지고 있었고, 혜성군은 대중국 해상교통로의 요지로 많은 상인과 사신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득의는 혜성군의 유력한 해상 호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66]

다음은 나주의 吳多憐을 들 수 있다. 오다련의 아버지는 富侁이고 그의 딸은 왕건의 둘째부인인 장화왕후이다. 그런데 富侁은 부자를 의미하는 이름이고,[67] 오다련이 신라 하대 재지세력들이 흔히 자칭하던 沙干의 관등을 가지고 있던 連位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왕건이 나주를 정벌할 때 오다련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오다련 집안이 나주지방의 호족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오씨 가문은 대대로 木浦에 살았다 하고,[68] 오씨 가문의 조상이 중국에서 상인으로 흥하여 해외무역상을 따라 신라에 건너왔다고 하며,[69] 나주의 입지 조건이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오다련 집안은 해상무역으로 경제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호족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

64) 《增東國輿地勝覽》 권19, 忠淸道 沔川郡 人物.

65) 김갑동, 〈羅末麗初의 沔川과 卜智謙〉,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2001, pp. 39~65.

66) 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7, 1977, pp. 75~76.
鄭淸柱, 〈王建의 成長과 勢力 形成〉, 《全南史學》 7, 1993; 《新羅末高麗初豪族硏究》 일조각, 1996, pp. 118~119.

67) 姜喜雄, 앞의 논문, 1977, pp. 69~70.

68) "莊和王后吳氏羅州人 祖富侁父多憐君 世家州之木浦"(《高麗史》 권88, 열전 后妃1).

69) 《增補文獻備考》 권49, 帝系考10 氏族4 吳氏.

한편 남해 연안에도 황해 해상무역을 통하여 성장한 지방세력이 있었다. 강주의 王逢規와 김해의 蘇律熙이가 바로 그들이다. 왕봉규는 경명왕 8년(924)에 신라 왕실과 나란히 후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경애왕 4년(927)에는 후당으로부터 懷化大將軍의 관직을 받았으며, 이어서 林彦을 재차 후당에 보내 조공했다고 한다.[70]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직함이 시기적으로 泉州節度使, 權知康州事, 知康州事로 변하였고, 독자적으로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점으로 보아, 그는 천주 곧 지금의 경남 의령 지방에서 출발하여 점차 세력을 넓혀 강주 전역을 장악한 호족이었음이 틀림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봉규세력이 해로를 통하여 후당을 왕래했다는 사실이다. 왕봉규가 후당과 교섭한 것은 중국 주변의 여러 왕조가 그랬듯이, 국제적 공인을 통한 국내 지위의 안정과 교역을 포함한 문물교류가 주목적이었을 것이다. 왕봉규 역시 바다를 통한 국제교류와 경제교역에 의지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을 터이므로 그를 강주의 해상호족이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신라 하대 강주는 일본사절과 표류민의 송환을 맡는 등[71] 대일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정도로 해상교통의 요지였다는 점도 왕봉규의 해상활동 가능성을 짐작케 해준다.

소율희는 897년경 進禮城諸軍事로서 처음 역사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후 소율희는 아우 蘇忠子와 함께 금관성을 공취하여 김해부지제군부사가 되어 김해부 전체를 장악하였으나, 10세기 초 견훤과 왕건의

70) 왕봉규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 된다.
金庠基,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특히 王逢規를 主로〉, 《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60, pp. 59~64.
이현모, 〈羅末麗初 晉州地域의 豪族과 그 動向〉, 《歷史敎育論集》 30, 2003, pp. 125~145.
71) 《續日本後紀》 권5, 承和 3년 12월 을미; 《續日本後紀》 권15, 承和 12년 12월 갑술.

세력쟁탈전 와중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경애왕 말년(927)경에 몰락하였다.[72] 그런데 《冊府元龜》(권976)에, 927년 金州司馬 李彦謨가 신라의 登州知後官으로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금주는 김해를 지칭하거니와, 당시 김해는 소율희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언모는 소율희가 파견한 등주지후관이었던 셈이다. 지후관은 知留後官의 준말로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절도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신 수행하던 현지 출장소 관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언모는 김해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주에 파견된 관리였다고 할 수 있다.[73] 이언모가 등주에서 처리하던 일 가운데 하나는 당시 등주를 장악하고 있던 後唐과의 원활한 교역업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74] 결국 소율희는 삼한시대부터 해상무역 기지로 활용되던 김해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중국과 교역하던 해상 호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신라 하대 한반도 서 · 남해안 곳곳에 호족들이 웅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모두 큰 강의 하구로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고, 배후 지역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해상과 내륙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그들은 황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72) 소율희를 비롯한 김해 지방의 호족 동향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 된다.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 pp. 401~435.
金相澈, 〈新羅末 舊加耶圈의 金海 豪族勢力〉, 《震壇學報》 82, 1996, pp. 53~81.

73) 日野開三郎은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1)〉(《朝鮮學報》 16, 1961, p. 22)에서 등주지후관 이언모를 등주 신라관의 우두머리라 하였고, 金庠基는 앞의 논문(1960, p. 60)에서 신라 본국과 이주민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이라 하였다. 어느 쪽이었던 이언모를 등주에 보내 업무를 맡긴 사람은 당시 김해를 장악하고 있던 소율희였다.

74) 《五代會要》(권30) 신라조에, 天成 4년(929) 4월에 등주 연안에서 신라선 한 척을 사로잡아 寶貨들을 압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 이언모는 소율희 상선에 대한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등주에 파견되지 않았을까 한다.

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 결국 신라 하대 황해무역은 신라 지방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하겠다.

6. 맺음말

중국 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황해는 독특한 자연조건과 인문환경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8, 9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변모 과정에서 황해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역과 교류가 집약적으로 나타나, 마치 황해는 동아시아 교역의 경연장 같았다. 국가 간의 공식 통로를 통한 공무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 사이에 상품을 거래하는 사무역, 해적과 같은 집단이 무력을 동원해 행한 불법적인 약탈무역 등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황해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공무역과 사무역 그리고 약탈무역이 混淆되어 전개된 8, 9세기 황해교역은 당, 신라, 일본의 동아시아 삼국에 다양한 물품들을 유통시켰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조공과 회사라는 정치의례 과정에서 행해지던 方物과 비단 및 의장용구의 상호교환이라는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고가의 사치품이 중요한 교역품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약탈무역의 성행으로 '인간' 도 중요한 상품으로 거래되었다.

이렇듯 다양하게 전개된 황해교역은 견당사, 재당 신라상인, 해적과 해상 호족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견당사는 황해를 통하여 나 · 당 간

을 왕래하며 주로 공무역을 담당하였고, 당나라 황해 연안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재당 신라인들은 동아시아 삼국을 대상으로 한 민간무역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황해 兩岸의 해적과 해상 호족은 불법적인 무력에 의지하여 약탈과 거래를 병행하는 약탈무역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8, 9세기 황해교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8, 9세기의 황해교역은 신라 사회에 몇 가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골품제를 동요시켰다. 즉 황해를 무대로 한 해외 민간무역은 신흥 부유층을 탄생시켜 골품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그들이 해외무역 과정에서 진귀한 물품들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골품제적 생활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점에서 황해교역은 신라 골품제를 동요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지방세력의 발호를 촉진시켰다. 신라 하대 한반도 서 · 남해안 곳곳에 이른바 해상 호족들이 웅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황해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황해교역은 신라 지방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결과 신라는 점차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국 소재 新羅 행정 지명 고찰

◆

朴 現 圭(順天鄕大 中文科 敎授)

1. 서론
2. 신라 행정 지명 개황
3. 신라 행정 지명 분석
4. 결론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매우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양국 사이에 전개된 인적 교류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고, 그중에는 각각 상대방 국가로 진출하여 그쪽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아 정착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오늘날 중국 곳곳에는 신라인들이 드나든 발자취가 남아 있다. 당나라 수도 長安 일대에는 신라 사신과 관료, 유학생 등이 진출했고, 天台山, 五臺山, 장안과 洛陽 주변 등 불교 승지에는 신라 구법승들이 주석하였으며, 山東, 浙江 등 해안 지역과 揚洲, 海州 등 운하 지역에는 신라 상인들이 드나들었다. 특히 산동, 강소 등 지역에는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한 신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당시 신라인이 중국대륙으로 얼마나 많이 진출했던 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필자는 일전에 福建 남부 지역에 소재한 新羅 명칭에 대해 고찰한 바가 있다. 여기에 잠시 지난 결과를 소개해 본다. 복건 남부 지역에는 신

라라는 명칭이 들어간 지명이 다소 보이는데, 연해안에 위치한 閩南 지역은 신라국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내륙에 위치한 閩西 지역은 신라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 결과에서 보듯이 복건 남부에 소재한 신라 명칭은 모두 한반도 신라국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필자가 중국대륙의 행정 지명을 조사해 보니 곳곳에서 신라 명칭이 들어간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신라 지명은 한반도 신라국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독자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 상당한 흥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신라인의 중국 진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고, 또한 이 가운데에는 중국 속의 신라 명칭을 고찰한 문장도 다소 나왔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륙을 전체로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본 논문을 착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조사범위는 중국 전역에 소재한 신라 행정 지명으로 정한다. 신라 행정 지명은 중국대륙에 명기한 도시, 촌락, 거리 등에 신라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을 지칭한다. 조사 범위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륙을 장악한 1949년 이후로 국한시킨다. 설령 지금은 사라진 행정 지명이라도 1949년 이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신라 지명은 포함시킨다. 다만, 1949년 이전에 사용된 행정 지명이나 옛 문헌에 남아 있는 행정 지명,

1) 박현규, 〈중국 福建 남부 新羅 명칭 고찰〉, 新羅文化, 28집,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2006. 8, pp.167~188.

2)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저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卞麟錫, 《唐 長安의 新羅史蹟》, 亞細亞文化社, 서울, 2000. 6.
卞麟錫, 陳景富, 李昊榮, 《중국 명산 사찰과 해동승려》, 주류성, 서울, 2001. 2.
신형석 등, 《중국 동남연해지역의 신라유적조사》,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서울, 2004 12.

신라 명칭이 들어간 각종 유적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옛 新羅坊, 新羅山, 新羅泉, 新羅礁, 新羅渡, 新羅寺 등은 사례가 매우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득불 다음 기회로 넘긴다. 기초 자료 수집은 중국 행정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에 신라 또는 유사한 이름이 들어간 지명을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삼고, 지방지와 현지 방문을 통해 논술 범위를 축소했다.

2. 신라 행정 지명 개황

1) 하북 盧龍 新挪寨村

新挪寨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진항도 盧龍縣 陳官屯鄉에 속해 있는 행정촌이다. 노룡은 하북 秦皇島에 속해 있는 현이다. 이곳은 진황도에서 동쪽으로 82km 떨어져 당산 灤縣과 접경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요동과 북경을 잇는 길목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京哈, 京秦철도, 京沈고속, 북경으로 향하는 102公路가 지나간다. 상나라 때 孤竹國에 속해 있었으며, 伯夷 叔齊의 고향이다. 주나라 때 유주에 속해 있었고, 명나라 때 永平府에 속해 있었다. 소속 관할지에는 6개 진, 6개 향이 있다.

노룡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盧陳公路를 따라 15.8km 가면 진관둔향에 도착한다. 진관둔향에는 15개 행정촌이 있다. 진관둔향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3.8km 소로를 따라가면 신나채촌이 나온다. 진황도에서 출발하

면 102公路를 타서 노룡 雙望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安燕公路를 따라 4km 가다가 다시 오른쪽 비포장 소로를 따라 1km 정도 들어가면 신나채촌이 나온다. 촌락 형태는 하북 지역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가옥들이 농지 한가운데 몰려 있다. 촌락 북쪽에는 新挪寨小學이 있다. 촌락의 전체 호수는 약 2백 5십 호이고, 인구는 약 1천 4백 명이다. 주요 성씨는 李, 孫, 張, 楊이며, 모두 한족이다.

新挪寨는 원래 新羅寨라고 불리었다. 청 강희 연간에 顧祖禹가 편찬한 《讀史方輿紀要》가 있다. 권17 〈北直八 · 永平府 · 盧龍塞〉에서 다음의 기록이 나온다.

> 府東三十里 曰新羅寨. 又東五里 曰雙望堡.
>
> 부 동쪽 30리는 新羅寨이고, 또 동쪽 5리는 雙望堡이다.

이 책자에 永平府 盧龍寨에 세운 보루를 소개했다. 영평부 동쪽 30리에 新羅寨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동쪽으로 5리를 가면 雙望堡가 있다. 현재 신나채촌 인근에는 雙望鎭이 있다. 《(雍正)畿輔通志》와 《(民國)盧龍縣志》에도 모두 新羅寨는 노룡현 동쪽 30리에 있다고 했다.[3] 《(민국)盧龍縣志》는 민국 20년(1931)에 편찬했다.

신나채촌 입구는 1986년 4월에 노룡현인민정부가 세운 '신나채' 비석이 있다. 비석 전면에 '新挪' 글자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寨' 자만 남아 있다. 비석 후면에 戶龍地名辦公室에서 신나채촌 유래를 밝힌 글귀가 새겨져 있다.

---

3) 《(옹정)畿輔通志》 권40 〈關津 · 永平府〉: 〈新羅寨. 在盧龍縣東三十里〉
《(민국)盧龍縣志》 권10 〈疆域 · 城池〉: 〈新羅寨. 在城東三十里〉

唐貞觀年間 因將分散村莊 重新挪動 合併一起 故名新挪寨.

당 貞觀 연간에 장차 촌락을 분산시키고자 다시 이동시켜 합병했던 고로 新挪寨라고 명명했다.

여기에서 당 정관 연간에 촌락들을 전명 재조정하면서 새로 옮긴 촌락을 신라촌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호룡지명판공실은 현 촌명 신나촌의 '挪' 자를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挪' 자는 옮기다 또는 이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94년에 편찬한 《盧龍縣志》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노룡현지 편찬자들은 당 정관 연간(644년)에 고구려인들이 이곳 여러 지역에 나누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唐王征東' 때 여러 촌락들을 조정하여 이곳으로 집중 거주시키고 이를 촌락의 명칭으로 삼았다고 했다.[4] 여기의 唐王征東은 644년 당 태종의 고구려침략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촌명 新羅寨에서 新挪寨로 바뀐 시점은 민국 20년 이후이다. 이 이전에는 촌명을 新羅寨라 불렀다. 新羅寨 글자에는 挪 자, 즉 옮기다 또는 이동한다는 뜻이 없다. 원 촌명 글자만 본다면 오히려 고구려보다 신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당 總章 연간에 신라인들을 집단 거주한 지역을 歸義州라고 명명했다.[5] 당나라 시대에 귀의주는 河北道 幽州에 속하고, 노룡은 하북도 平州에 속한다. 하북도에는 당시 당나라 바깥의 많은 민족들이 이주한 거주지가 있었다. 노룡 신라채는 귀의주의 경우처럼 신라인들이

4)《(1994년)盧龍縣志》: 〈新挪棊, 住于鄉政府駐東南3.8公里. 340戶, 1268人. 唐貞觀年間(約644年), 高麗人散居此地, 爲便于管理, "唐王征東" 時, 將這一帶零散村莊集中于此, 遂名〉

5)《舊唐書》 권39 〈地里志 · 河北道〉: 〈歸義州, 總章中置, 處海外新羅, 隸幽州都督, 舊領縣一, 戶一百九十五, 口六百二十四. 歸義, 在良鄉鎭之古廣陽城州所治也〉

이곳으로 옮겨와 거주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2) 산동 萊州 新羅村

萊州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산동 烟台 萊州市 金城鎭에 속해 있는 행정촌이다. 萊州는 교동반도 북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내주부가 설치되어 교동 지역을 전부 관할했으나, 오늘날에는 연태지구에 소속된 현급시이다. 내주의 소속 관할지에는 5개 街道와 11개 鎭이 있다. 금성진은 내주시 북동쪽으로 32km 떨어진 해안 지역과 招遠市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다. 1958년에 朱橋에서 분리되어 滕家로 불렸다가, 1982년에 新滕으로 바뀌었다. 1984년에 이 지역에 황금이 난다고 해서 금성으로 개칭했다. 소속 관할지에는 38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촌은 국도 206선과 성도 304선이 교차하는 남서쪽 지역에 있으며, 금성진으로부터 4km 정도 떨어져 있다. 교차점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가면 朱郭李家村이 나오고, 여기에서 동쪽 비포장도로로 1km 정도 가면 鮑李村이 나온다. 鮑李村의 남쪽 촌락이 바로 신라촌이다. 포리촌과 신라촌 사이에는 물이 말라버린 골이 있다. 신라촌의 전체 호수는 80호이고, 인구는 217명이다. 민족은 모두 漢族이다. 주요 성씨는 羅이며, 전체 인구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나씨는 명나라 때 사천에서 금성 龍埠村으로 이주했고, 청말 때 龍埠村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이밖에 곽씨 집안이 4가구 있는데, 근자에 朱郭李家村에서 이주해 왔다. 마을 중앙에는 촌위회 사무소가 있다. 촌락 전경은 비교적 단정하게 가

꾸어져 있고, 촌락 주변에 구릉지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이다.

필자는 당초 내주 지역이 신라인들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금성 신라촌은 해안가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이곳이 신라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으나, 현지답사 이후 신라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라촌은 원래 羅家村라고 불렸다. 지금도 마을 입구에 소재한 배전실에는 '羅家配電室' 이라는 간판이 있다. 촌락 명칭은 羅氏 집성촌에서 유래되었다. 내주 관할지에는 羅家라는 이름이 들어간 촌락이 여러 곳 있다. 금성 羅家村 외에 平里店鎭 羅家村, 程郭鎭 羅家營村, 郭家店鎭 羅家庄子村 등이 있다. 羅家 글자가 들어간 이들 촌락은 모두 나씨 집단촌이다. 1980년대 금성 羅家村은 이름이 유사한 이들 촌락과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羅家 촌락이라는 뜻을 가진 新羅村으로 개칭했다.

3) 상해 松江 新羅村

松江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상해 松江縣 佘山鎭과 方松街道에 속했던 옛 촌락명이다. 송강구는 상해 남서쪽 지역, 黃浦江 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建安 24년(219)에 陸遜이 華亭侯로 봉해진 이래 이곳은 주변 지역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청말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송강부가 설치되어 상해 지역을 관장했다. 오늘날에는 상해시에 속한 행정구이다. 소속 관할지에는 4개 街道, 10개 鎭이 있다. 사산진은 송강구의 북서쪽을 차지하고 있다. 지명은 이 지역에 소재한 佘

山에서 따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12개 행정촌이 있다. 방송가도는 송강구 서쪽 시내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소속 관할지에는 8개 居委會와 3개 籌備居委會, 1개 행정촌이 있다.

옛 신라촌은 1949년 이전에 奇港村이라고 불렸다. 1960년대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新羅村이라고 불렸다. 신라촌 주변에는 新奇村과 陳家村이 있었다. 2002년 행정개편 때 신라촌은 다시 두 개의 촌락으로 분리되었다. 촌락 중앙에 흐르는 강 지류, 즉 油墩橋를 중심으로 서편 부락은 사산진 橫山村으로, 동편 부락은 방송가도 新陳家村으로 편입되었다. 필자가 옛 신라촌을 방문할 때에는 송강 시내에서 멀리 20여 km 떨어진 사산진 天馬鄕으로 돌아 찾아갔으나, 마을 뒤편에 있는 소로(陳家路)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송강 시내에서 10km 정도 가면 華東政法大學 松江校區가 나오고, 대학 옆 廣富林路를 따라 1km 정도 가면 FORTE復地라는 아파트단지가 나온다. 아파트단지 뒤편으로 가면 차량통행이 금지된 옛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 陳家路를 따라 1km 정도 걸어가면 신진가촌, 즉 옛 신라촌이 나온다. 신진가촌의 인구는 2,988명이고, 호수는 785호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주요 성씨는 陸, 張, 錢, 宋 등이고, 현재 상당수 외지인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梨(배)와 묘목생산이다.

4) 상해 青浦 新羅村

青浦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상해 青浦區 金澤鎭 商榻居委會에 속했던 옛 촌락명이다. 청포구는 상해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명 嘉靖 21년(1542)에 이곳에 처음으로 독립된 현이 설치되었다. 소속 관할지에는 3개 가도, 8개 진이 있다. 金澤鎭은 청포 남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3월 金澤, 商榻, 西岑 등 3개 진이 합병하였다. 소속 관할지에는 5개 居委會, 30개 행정촌이 있다. 옛 신라촌은 원래 상탑진에 소속된 행정촌이었으나, 행정개편으로 금택진으로 편입되었다. 상탑은 청포 시가지에서 서쪽으로 18km, 淀山湖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지명은 예로부터 상인들이 이곳에서 모여든다는 뜻에서 나왔다.

商榻 중심가에서 急水港大橋를 지나 金商公路를 타고 700m 정도 가면 왼편에 陳新路가 나온다. 또 陳新路를 따라 8km 정도 가면 도로 종착인 막다른 촌락이 나온다. 이곳이 바로 옛 신라촌이다. 촌락은 물가에 세워졌다. 촌락 북쪽은 沙淀湖로 들어가는 急水港이고, 촌락 건너편은 水鄕으로 널리 알려진 周庄이다. 해방 이전에 이곳을 陸家灣이라고 불렀다. 人民公社時期에 신라촌으로 변경했다. 촌락 인근에 蘿淸灣이 있었다. 2004년에 신라촌과 新華村, 南車村 등 3개 촌락이 합병되어 南新村으로 바뀌었다. 촌락 곳곳에는 옛 신라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촌락 입구에는 2003년 10월 28일에 준공된 다리에 '新羅村橋' 라고 적고 있고, 문패 주소에도 '南新村 新羅' 라고 적고 있다. 마을에는 '新羅村' 간판이 있는 상점이 있다. 옛 신라촌의 인구는 1천 7백여 명이다. 주요 성씨는 陳, 張, 阮 등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이곳 주민은 예로부터 어업과 논농사에 종사했으나, 최근에는 도시로 출근하는 이들이 많다.

5) 강소 常熟 新羅村

常熟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강소 蘇州 常熟市 虞山鎭에 속했던 옛 촌락명이다. 상숙은 강소 남동쪽 장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상숙 이름은 토양이 비옥하고 가뭄이 들지 않으며 농산물을 상시 수확할 수 있다는 말에서 나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10개 진이 있다. 우산진은 상숙의 중심 지역이고, 지명은 이 지역에 소재한 虞山에서 따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7개 管理區, 49개 居委會, 55개 행정촌이 있다. 謝橋管理區는 상숙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져 있다. 지명은 예전에 謝家橋에서 나왔다. 2003년에 사교진과 莫城鎭이 우산진에 합병되면서 사교관리구로 업무 이관되었다. 사교관리구는 1개 居委會, 9개 행정촌을 관장하고 있다.

옛 신라촌은 상숙 시내에서 사교로 가는 방향에 있다. 상숙 三環을 지나면 海虞北路가 나온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가면 왼편에 勤豊村村委會가 나온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왼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옛 신라촌이 나온다. 시내에서 1路 버스를 타고 新橋路口에서 내려도 된다. 사교진에서는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인민공사시기에 신라촌은 東方紅이라고 불렸다. 신교 지역에는 羅氏 집단촌인 羅家塘이 있다. 신라촌 촌명은 나씨 집단촌과 변별하기 위해 新 자를 첨부했다. 2003년 4월에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신라촌, 大毛橋, 勝利, 勤豊 등 4개 촌이 勤豊村으로 합병되었다. 근봉촌의 전체 인구는 1,396명이고, 호구는 548호이다. 촌위서기는 張建昌이다. 옛 신라촌의 주요 성씨는 陸, 蔣, 繆, 羅, 周 등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농산물은 水稻, 옥수수, 콩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은 시내와 가까운 위치에 소재한 개발

지역이라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촌락에는 옛 신라촌 문패가 붙어 있고, 마을 중심에는 옛 촌위회 사무실이 남아 있다.

6) 절강 象山 新羅㘭村

象山 新羅㘭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절강 寧波 象山縣 大徐鎭에 속해 있는 행정촌이다. 상산현은 절강 북동쪽 象山港과 三門灣 사이에 뾰쪽하게 뛰어나온 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영파 시내에서 남쪽으로 55km 떨어져 있다. 당 神龍 2년(706)에 처음으로 독립된 현이 건립되었고, 지명은 북서쪽에 소재한 코끼리 형상을 닮은 산의 형태에서 따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3개 가도, 10개 진, 5개 향이 있다. 1992년에 雅林溪鄕이 大徐鎭으로 합병되었다. 大徐鎭은 현 중심지에서 북동쪽 8km 떨어져 있다. 소속 관할지에는 1개 居委會, 35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오촌은 원래 雅林溪鄕에 속해 있었으나, 행정개편으로 大徐鎭으로 편입되었다. 신라촌은 대서진에서 남쪽으로 5km, 상산현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져 있다. 전체 인구는 625명이고, 호수는 약 205호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촌위서기는 姚靑富이다. 주요 성씨는 羅, 倪 등이다. 나씨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예씨는 30%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생산물은 水稻, 茶이다. 마을 안쪽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당인 護境廟가 있다. 호경묘에는 當境尊神, 龍王, 財神, 土地, 書尊을 모시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2000년 7월에 중건된 延壽禪寺가 있다. 延壽禪寺는 일명 瑞雲禪寺이고, 사찰에는 송 寶佑 2년(1254)에 내려진 사액비가 세워져 있다. 현재 주지는 了淸이다.

신라오촌은 일찍부터 한반도 신라인들의 거주 장소로 알려졌다. 《(寶慶)四明志》 권21 〈象山縣 · 山條〉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新羅墩山 縣北七里 耆舊相傳新羅國人嘗泊舟於此.

新羅墩山은 현 북쪽 7리에 있다. 늙은이들이 전하기에 신라국 사람들이 일찍이 이곳에 배를 정박했다.

여기에서 신라 선박들이 신라오산에 정박했다고 했다. 오늘날 신라오촌은 개울물이 얕아 선박이 드나들 수는 없지만, 예전에서 마을 입구 瑞雲橋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했다.[6] 射箭山, 荷華山을 비롯한 주변 산에서 흐르는 물이 安家溪로 모여들고, 이 개울이 陳山 앞을 지나 白墩港으로 유입된다. 신라오촌과 안가계는 불과 수 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두 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나씨 집안은 친족 관계를 맺고 있다. 《安家溪羅氏宗譜》(羅宗榮 소장 초록본)에 의하면 상산 나씨는 대서진 安家溪와 신라오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들은 모두 萬三郎의 후손이다. 만삼랑의 14세손인 羅聲美, 羅聲亮 사촌형제가 청 강희 연간에 복건 武平 象洞司前에서 상산으로 이주해 왔다.

7) 절강 仙居 新羅村

仙居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절강 台州 仙居縣 橫溪鎭에 속해

6) 신형식 등, 앞의 책, p. 344.

있는 행정촌이다. 태주는 절강 동쪽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고, 선거는 태주 지구의 서부내륙에 위치해 있다. 선거는 태주 시내에서 88km 떨어져 있다. 진 永和 3년(347)에 이곳에 樂安縣이라는 독립된 현을 설치했다. 후당 于成 5년(930)에 永安縣으로 개명하고, 송 景德 4년(1007)에 선거현으로 다시 개명했다. 지명은 이곳에 신선 저택이 많다는 도교적인 관점에서 나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3개 가도, 7개 진, 10개 향이 있다. 횡계는 현에서 남서쪽으로 32km 떨어져 있다. 선거에는 횡계를 가는 길옆에는 永安溪가 흐른다. 소속 관할지에는 77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촌은 횡계 시내로부터 14.3km 떨어져 있다. 횡계 시내에서 永安溪 다리를 건너 남쪽 溪口 방향으로 六都坑을 거슬러 올라가면 騎馬坑이 나온다.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 산길로 6.3km 올라가면 산 정상 아래에 홀연히 널따란 평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신라촌이다. 전체 인구는 350명이고, 호수는 107호이다. 민족은 모두 한족이다. 촌위서기는 金永奇이다. 주요 성씨는 金, 陳, 吳氏인데, 김씨가 절반 정도 차지한다. 주요 산물은 板栗, 毛竹, 楊梅, 水稻이고, 농한기에는 養蠶을 친다.

《呂前金氏宗譜》(呂前金氏續編理事會, 2000년간본)에 의하면 중시조 梅山公이 복건 長樂에서 절강 金華로 이주했고, 道公이 금화에서 永嘉 梅溪로 이주했으며, 蒙公이 매계에서 仙居 呂前으로 이주해 왔다. 守環公(1514~1576)이 여전에서 新羅로 이주하여 신라 김씨를 형성했다. 아쉽게도 신라촌은 머지않은 장래에 사리질 운명에 처해 있다. 선거현정부에서 현내 오지 지역에 소재한 촌락들을 시내와 가까운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 정상에 소재한 신라촌도 이 정책의 일환으로 횡계진 永安溪 지역으로 집단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송 가정 연간에 陳耆卿이 편찬한 《(嘉定)赤城志》가 있다. 이 책자

중 권22〈山水門四・山・仙居〉에서 다음의 기록이 남아 있다.

萬竹山 在縣西南四十里 絶頂曰新羅. 九峯回環 道極陰隘 嶺上見叢薄敷秀 平曠幽窈 自成一村.

萬竹山은 현 서남쪽 40리에 있다. 정상은 신라라고 부른다. 구붕이 휘돌아지고 길은 몹시 음습하고 협소하다. 봉우리 위에서 바라보면 잔목들이 아름답게 펼쳐 있고, 평평한 들이 그윽하게 자리 잡고 있어 절로 한 촌락을 형성했다.

여기에서 송대에 이미 신라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萬竹山 정상에 펼쳐진 촌락 전경은 오늘날 신라촌 지형과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신라촌은 김씨 집단촌이다. 이곳은 신라승들이 많이 찾았던 天臺 지역이나 신라 상인들이 드나들었던 臨海 지역으로부터 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모두 동일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선거 신라촌은 한반도 신라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8) 복건 龍巖 新羅區

용암 신라구는 오늘날 복건성 용암시 중심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이다. 용암은 복건 남서쪽 산악지대, 즉 閩西 지역에 위치해 있다. 용암은 옛 新羅縣이 관할했던 지역이다. 晉 太康 3년(282)에 晉安郡이 설치되었고, 新羅縣은 진안군 소속 8개 현 중의 하나이다. 신라 명칭은 옛 長汀縣 경내 新羅山에서 나왔다. 신라산은 오늘날 武夷山脈의 남단인 장정현

서쪽 산악지대의 篁竹嶺에서 溜峰山 祖師峰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당 천보 원년(742)에 신라현에서 용암현으로 개칭했다. 이로부터 용암이 지역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명칭은 신라현 남쪽 翠屏山에 소재한 龍巖洞에서 유래되었다. 그 후 용암현은 인근 지역과의 분할과 합병, 행정 구역의 소속 변화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 후에 용암 지역은 龍巖專區가 되었다가, 1981년에 현급 용암시가 되었다. 1996년에 용암 지구시가 되었다. 용암시는 1개 구(新羅區), 1개 시(漳平市), 5개 현(長汀, 永定, 上杭, 武平, 連城)을 관할하고 있다. 용암 시내를 돌아다니면 신라 명칭이 들어간 기관명을 찾아볼 수 있고, 상호나 상표명까지 신라 이름이 들어가 있다. 신라구 人民政府 옆 街心廣場의 벽면에는 민국 26년(1937) 1월에 張茨安이 세운 '新羅第一泉' 비석이 상감 되어 있다. 지난 논문에서 밝혔듯이 용암 신라구는 중국 자생적으로 발생된 행정 명칭으로 한반도 신라국과 관련이 없다.[7]

9) 복건 永定 新羅村

永定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복건 龍巖 永定縣 坎市鎭에 속해 있는 촌이다. 용암 지구는 閩西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소속 관할지에는 1개 구, 1개 시, 5개 현이 있다. 永定縣은 용앙에서 남서쪽으로 78km 떨어져 있다. 명 成化 14년(1478)에 이곳에 처음으로 영정현을 건립했다. 현명은 영원히 평정하다는 뜻에서 나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10개 진, 14

7) 박현규, 〈중국 福建 남부 新羅 명칭 고찰〉, 앞의 논문, pp.172~174.

개 향이 있다. 坎市鎭은 영정에서 북동쪽으로 46km 떨어져 있다. 지명은 이주민들이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시장을 세웠다는 데에서 나왔다. 소속 관할지에는 1개 居委會, 6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촌은 감시진에서 省道 203선을 타고 남쪽으로 3km 정도 가면 나온다. 전체 호수는 270여 호이고, 인구는 1천여 명이며, 민족은 한족이다. 총 6개 組이다. 1~3組는 張氏 집단촌, 4組는 劉氏 집단촌, 5~6組는 林氏 집단촌이다. 203公路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1~3組이고, 왼편이 4~6組이다. 왼편에는 新羅村委事務所과 永定市鑛物局이 들어서 있다. 이곳 산지는 석탄, 철, 망강 등 광물이 생산된다.

촌락 오른편 장씨 집단촌에는 청대 건물을 비롯한 오래된 가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장씨 집안은 객가인으로 복건 寧化에서 이주해 왔다. 이곳 안쪽으로 들어서면 얼마 전에 폐교된 新羅小學이 있고, 그 자리에 老人活動中心과 新羅警務室이 들어서 있다. 옛 신라소학교 옆에는 2007년에 개장한 新羅村公園이 있다. 소학교 앞쪽 길로 가면 옛 나루터인 新羅渡가 나온다. 신라도는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나루터이다. 《(건륭)汀州府志》 권5 〈城池 · 永定〉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 新羅渡 在太平里.
>
> 新羅渡는 太平里에 있다.

여기에서 신라도는 太平里에 속해 있다고 했다. 《(1941년)永定縣志》에는 新羅坑이 송나라 때 태평리에 속해 있었으며, 현으로부터 65리가 떨어져 있다고 했다.[8] 태평리는 송나라 때 처음 건립되었고, 오늘날 감시진과 高陂, 虎崗鄕 일대를 관할했다. 명 초기에 행정개편으로 九圖로

편입되었다가, 훗날 五圖로 바뀌었다. 신라도는 永定河를 출입하는 나루터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사람들은 신라도에서 선박을 타고 영정으로 오갔다고 했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근래에 커다란 물난리로 나루터 유적지가 많이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나루터 바로 위가 송나라 때 건설된 太平橋이다. 태평교는 지금도 사용할 정도로 매우 견고하게 건설되었다.

10) 복건 連城 新羅村

連城 신라촌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복건 용암 連城縣 新泉鎭에 속해 있는 촌이다. 연성은 용암에서 북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송 元符 연간(1098~1100)에 蓮城堡가 건설되었고, 紹興 3년(1133)에 蓮城縣이 설치되었으며, 至正 6년(1346)에 連城縣으로 개명했다. 소속 관할지에는 7개 진 10개 향이 있다. 신천진은 연성으로부터 남쪽 48Km, 용암에서 북서쪽으로 68km 떨어져 있다. 신천진은 국도 319선과 205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지명은 이곳에 온천이 나온 데에서 유래되었다. 소속 관할지에는 19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촌은 신천에서 북서쪽 6km 떨어져 있다. 이곳으로 가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상당히 불편하나, 마을 위쪽으로 漳龍고속공로가 지나간다. 마을 입구에는 촌위회 사무소가 있고, 마을 북쪽 끝에는 신라소학이 있다. 전체 호수는 280여 호이고, 인구는 1,187명이다. 민족은 한족이고,

8)《(1941年)永定縣志》권2〈疆域〉참조.

종족은 客家人이다. 주요 성씨는 楊氏이고, 최근에 李氏 1가구가 이주해 왔다. 楊宜才의 말에 의하면 양씨는 寧化에서 이주해 왔다고 했다. 주요 농산물은 桔子, 松油이고, 농경지는 매우 적다.

이곳 지역민들은 신라촌을 통상적으로 羅地라고 부르는데, 원래 高地村으로 불렸다. 1991년 7월에 연성 현정부에서 고지에서 신라로 개명시켰다.[9] 신라촌에서 복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上羅地가 있다. 신라촌 지명은 上羅地 아래에 새로운 촌장이 건설되었다는 데에서 나왔다. 1997년 7월에 신라촌의 일부 지역을 떼어 溫坊村을 따로 건립했다. 현재 신라행정촌은 주변의 上羅地, 高屋坑, 熱火坑 자연촌을 관장하고 있다. 上羅地에는 繞氏, 華氏, 曹氏, 高屋坑에는 曹氏, 熱火坑에는 吳氏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11) 복건 南靖 新羅村

南靖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복건 漳州 南靖縣 南坑鎭에 속해 있는 촌이다. 장주는 복건 최남단 연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 남정은 장주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양나라 때 蘭水縣이 설치되었다. 원 至治 2년(1323)에 南勝縣이 설치되었다가, 至正 16년(1356)에 남정현으로 개칭했다. 소속 관할지에는 11개 진이 있다. 남갱진은 북서쪽으로 10km 떨어져 있다. 소속 관할지에는 1개 居委會, 11개 행정촌이 있다.

9) 連城縣地方志編纂委員會, 《連城縣志》(1998~2000년), 方志出版社, 北京, 2005. 7, pp.19~20.

신라촌은 남갱진에서 書洋 방면으로 13km 떨어져 있다. 현재 이곳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비포장 산길이지만, 앞으로 田螺坑土樓群이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는 1,300여 명이고, 호수는 3백여 호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촌위서기는 曾炳煌이다. 주요 생산물은 毛竹, 柑桔 등이다.

신라촌의 촌락형태는 산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촌락은 大矸漂組, 溪底組, 大坪頂組, 石井組, 大墩組, 金竹后組, 長林組, 烏石山組 등 8개 組로 나누었다. 이곳은 曾氏 집단촌이며, 이들은 객가인이다. 《曾氏族譜 長林社》(清代殘抄本)에 의하면 시조는 萬八郎이고, 복건 永定縣 半徑社에 거주했다. 원말 때 그의 아들 伯五郎이 漳州府 南靖縣 高港社, 즉 현재의 위치로 이주해 왔다고 했다. 이들이 남정으로 이주한 이후 이 지역의 토박이 언어인 민남어를 구사했다. 長林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土樓인 翠林樓가 보존되어 있다. 溪底組와 大坪頂組는 원래 신라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이곳 주민은 원래 羅氏이었으나, 주변 劉氏로부터 배척을 받자 曾氏로 바꾸었다고 전해온다.

12) 복건 南安 新羅村

南安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복건 泉州 南安市 霞美鎭 仙河村에 속해 있는 자연촌이다. 천주는 복건성 남동 연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남안은 천주 남동쪽 晋江 중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양 天監 연간(502~519)에 이곳에 독립된 행정지가 처음 설치되었다. 소속 관할지에는 3개 가도, 21개 진, 2개 향이 있다. 하미진은 남안에서 동쪽 10km

떨어져 있고, 1999년에 豊州鎭에서 분리 건립되었다. 소속 관할지에는 16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촌은 원래 豊州鎭에 소속되었으나, 현재는 하미진으로 편입되었다. 신라촌은 천주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남안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천주에서 남안으로 가다가 왼편에 晋江이 보이고, 강변 도로를 따라 계속 가면 杏埔橋가 보인다. 杏埔橋를 지나 2.5km 가면 신라촌이 나온다. 예전에는 九日山 앞에 놓여진 金鷄橋를 이용했다. 金鷄橋를 건너 5백m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5km 가면 신라촌이 나온다. 신라촌은 晉江 옆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다. 마을 중앙에는 연극무대 공터가 있고, 그 옆에는 1999년에 준공한 新羅老人活動中心이 있다. 마을 서쪽 편에 新羅小學이 있다. 소학교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유치원생과 저학년은 등교하고, 고학년은 인근 南安華僑小學으로 다닌다. 전체 호수는 4백 5십여 호이고, 인구는 1천 8백여 명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주요 성씨는 王氏이다.[10] 신라촌장(仙河村 부주임)은 王大樹이다. 주요 농산물은 화훼, 묘목이고, 일부 채소 재배를 한다.

청 강희 11년(1672)에 편찬한 《南安縣志》가 있다. 이 책자에 남안현 관할 지역을 기술한 곳에 신라촌 지명이 등장한다. 권1 〈疆域志 · 二十二都〉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縣西北二十里 圖一. 在宋爲禮順里 統於唐安鄉. … 鄉有十二 曰後田 — 曰新羅 — 曰下尾.

10) 葉恩典, 〈古代泉州與新羅, 高麗的 · 海上交通及其文物史迹探源〉, 《古代中韓海上交流學術研討會志》, 浙江大學韓國研究所, 2005. 11. 1~3, pp.233~235.
박현규, 〈중국 福建 남부 新羅 명칭 고찰〉, 앞의 논문, pp.178~184.

현 서북 20리이고, 1도이다. 송나라 때 禮順里이며, 唐安鄕에 속해 있다. … 鄕村은 12개 촌락이 있는데, 後田, … 新羅, … 下尾이다.

신라촌은 송나라 때 唐安鄕 禮順里에 속해 있었다. 唐安鄕은 8개 향 중의 하나이고, 禮順里는 32개 리 중의 하나이다. 원 · 명 · 청대에는 신라촌이 이십이도에 속해 있었다. 이십이도에는 송말 柯使가 세운 新羅寺가 있다. 원 지정 연간(1341~1367)에 화재를 입었고, 명 洪武 18년(1385)에 純宗에 의해 재건되었다. 명말 청초 때에 사찰이 폐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1]

신라촌 인근에는 신라와 고대 무역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 翠屛山 靈秀峯 아래에는 신라화상 玄訥이 세운 福淸寺가 있다. 구일산는 해외 국가와 통교하는 고대 무역항이다. 산 중턱에는 해상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석각들이 새겨져 있고, 아래에는 뱃사람과 장사꾼들이 기도 드리는 延福寺가 있다. 천주 시내에는 신라 불교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祖堂集》의 저술장소인 淸源山 招慶寺 터가 남아 있다. 신라촌은 강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한 晉江 하류의 강변 마을이며, 예전에는 진강을 통해 외지 출입과 물자운송을 하였다.

13) 강서 尋烏 新羅村

尋烏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강서 贛州 尋烏縣 文峰鄕에 속

11)《(康熙)南安縣志》권20〈雜志 · 寺〉:〈新羅寺, 在廿二都, 宋末里人柯使捨地建, 元至正火, 明洪武乙丑僧純宗重建, 今廢〉

해 있는 행정촌이다. 贛州는 贛江 상류 지역으로 강서 남부에 위치한다. 심조는 감주지구에 소속된 현이다. 이곳은 贛, 粵, 閩 등 3개 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감주 시내로부터 남동쪽 240km 떨어져 있다. 명 만력 4년(1576)에 이곳에 처음으로 독립된 현을 건립하고 長寧縣이라 불렀다. 1914년에 사천 長寧縣과 구별하기 위해 尋鄔縣으로 개명하고, 1957년에 尋烏縣으로 글자를 간편화했다. 심오는 광동 梅州에서 북쪽으로 117km 떨어져 있다. 소속 관할지에는 7개 진, 8개 향이 있다. 문봉향은 심오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향이다. 소속 관할지에는 17개 행정촌이 있다.

新羅村은 심조현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져 있다. 전체 인구는 약 1천 7백 명이고, 호수는 약 4백 호이다. 6개 조이다. 주요 성씨는 羅, 駱氏이다. 羅氏는 광동 龍川에서 이주해 왔고, 駱氏는 河南 內黃堂에서 이주해 왔다. 모두 객가인이다. 예전에는 水稻를 재배했으나, 근자에 臍橙 재배로 바꾸었다. 마을에는 신라소학과 신라유치원이 있다.

청 광서 연간에 北廂 소속에 羅壩村이 있었고, 민국 시기에 新寨村이 새로 생겼다. 중국 해방 초기에 羅壩村과 新寨村이 합병하여 新羅村이 되었다. 1956년에 新羅, 長擧, 東團이 城關區 北廂鄉으로 편입되었다. 신라촌의 소속지는 1958년에 城關公社, 1964년 城郊公社에 있다가, 1984년에 文峰鄉으로 이관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4) 광서 賓陽 新羅村

賓陽 新羅村은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광서 南寧 賓陽縣 芦圩鎭 六和

村에 소속된 자연촌이다. 南寧은 광서장족자치구의 省會이다. 빈양은 남녕지구에 소속된 현이다. 남녕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져 있다. 빈양 지역의 민족 구성은 80%가 한족이고, 20%가 장족이다. 한족은 本地人과 新民人으로 구분된다. 본지인들은 오래 전에 북방과 중원에서 이주한 토박이이며, 빈양 지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신민인은 客家人으로 본지인에 비해 1천여 년 이후에 광동과 복건에서 이주했다. 소속 관할지에는 15개 진, 1개 향이 있다. 芦圩鎭은 빈양현 정부가 소재한 곳이다. 소속 관할지에는 17개 거위회, 31개 행정촌이 있다.

신라촌은 빈양에서 동북쪽으로 국도 324선을 따라 10km 떨어져 있다. 전체 인구는 약 1,200명 정도이다. 민족은 한족이다. 주요 성씨는 蔣, 張, 江, 巫이다. 蔣氏는 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조상은 산동에서 병란을 피해 이곳에 정착했다. 집단지는 촌락의 4, 5, 10, 11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본지화(대외적으로 빈양화)를 구사하고 있다. 張, 江, 巫氏는 객가인으로 자칭 新民人이라고 한다. 張氏는 40여 호, 약 300명이고, 6, 7, 8, 9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강씨는 30여 호, 약 100명이며, 무씨는 15호, 60여 명이다. 강씨와 무씨는 1, 2, 3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훗날 광동에서 이곳으로 들어와 장사를 하다가 정착했다. 이들은 三個老表라고 부르며 의형제를 맺고 제례를 함께 지냈다.

신라촌 일대는 빈양현 중앙에 넓게 펼쳐진 평원에 속해 있으며, 마을 가옥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사탕수수 등이고, 감자, 고구마, 고량, 유채, 땅콩 등을 소량으로 재배하고 있다. 1년 2모작이 가능하다. 부산업으로 돼지 축산을 하고 있다.[12)]

신라촌은 원래 雙羅村이라고 불렸다. 중국 공산당 정부 이후 쌍라촌

은 六和公社에 속해 있었고, 대약진 시기에 12개 생산대로 나누었다. 지금도 촌락에는 생산대라는 지칭을 통용하고 있다. 1970년대 말에 현재 이름인 신라촌으로 바뀌었다. 근자에 행정지가 육화촌으로 편입되었다.

15) 사천 成都 新羅路

成都 新羅路는 四川省 成都市 青羊區에 소재한 옛 거리명이다. 성도는 기원전 4세기 전에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후 서남 내륙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여 오늘날 사천성을 대표하는 省會가 들어서 있다. 소속 관할지에는 9개 구, 6개 현이 있고, 또 4개 현급시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청양구는 성도 서남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青羊이라는 이름은 青羊宮에서 나왔다. 老子가 青牛를 타고 函谷關을 지나다가 관문지기의 요청으로《道德經》을 주었다. 관문지기는 천 일 후에 노자가 지정한 성도 青羊에 가보니 노자의 환생인 양이 남아 있었다. 청양궁은 주나라 때부터 궁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나라 때 황실의 지원으로 크게 중건되었다. 文化公園 옆에 소재한다. 청양구에는 14개 街道가 있다.

옛 신라로는 청양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청양궁이 있는 一環西二段의 끝 부분에서 서쪽으로 꺾으면 清江東路가 나온다. 청강동로의 중간 부분이 옛 新羅路이다. 오늘날 이곳에는 成都市檔案局과 檔案館을 비롯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1980년대 이곳에 신라

12) 楊清媚,〈文化與自然: 對廣西新羅村變遷歷史考察的思考〉, 廣西民族學院學報(哲社版), 26권, 4기, 2004. 7, pp. 59~64.
_____,〈瀋陽新羅村"本地人"考察〉,《民族學 人類學》(2003年卷), 民族出版社, 北京, 2004. 12, pp. 316~353.

로가 있었으나, 그 후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크게 확장되면서 도로 명칭을 청강동로로 바꾸었다. 청강동로에서 서쪽으로 가면 成溫邛高速公路가 나온다. 청강동로에서 옛 신라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청강동로 286호에 중국농업은행 지점이 있다. 지점 명칭은 '成都新羅路支行' 이다. 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라로의 유래에 대해 탐문했다. 주민들은 예전에 이곳은 농촌 지역으로 羅家碾(羅氏가 방앗간을 운영)이 있었는데, 신라로는 羅家檔에서 새로운 길이 생겼던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했다.

3. 신라 행정 지명 분석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륙을 장악한 이후(1949년) 시기에 신라 명칭이 들어간 행정 지명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북 盧龍 新挪寨村
2. 산동 萊州 新羅村
3. 상해 松江 新羅村
4. 상해 青浦 新羅村
5. 강소 常熟 新羅村
6. 절강 象山 新羅㘭村
7. 절강 仙居 新羅村
8. 복건 龍巖 新羅區

9. 복건 永定 新羅村

10. 복건 連城 新羅村

11. 복건 南靖 新羅村

12. 복건 南安 新羅村

13. 강서 尋烏 新羅村

14. 광서 賓陽 新羅村

15. 사천 成都 新羅路

신라 지명이 들어간 행정 지명은 총 15곳이 있다. 신라 행정 지명은 북쪽으로 하북, 남쪽으로 광서, 서쪽으로 성도, 동쪽으로 절강과 복건 등 거의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보다 세분하게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라 지명은 연해안 지역에 밀접해 있다. 사천 성도 신라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해안 지역 또는 그 가까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연해안 지역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다량으로 이주해 와서 새로운 촌락 형성이 많다. 신라 지명도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새롭게 생겨난 곳이 많다.

둘째, 신라 지명에는 객가인 촌락이 많다. 예를 들면 복건 용암 신라구, 영정 신라촌, 연성 신라촌, 남정 신라촌, 강서 심오 신라촌, 광서 빈양 신라촌이다. 객가인은 서진과 북송 시대에 황하 지역에 살고 있던 한족이다. 이들은 전란을 피해 중국 남부로 이주해 와서 새로운 터전을 형성했다. 이들은 기존 원주민과 달리 新民이라고 부르는데, 객가인 신라촌도 신민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셋째, 신라 지명이 閩西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민서

의 중심도시인 용암 신라구에서 보듯이 민서 지역은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옛 新羅縣의 관할지이다. 민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중원에서 이주해 온 객가인의 고향이고, 오늘날에도 객가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신라촌은 모두 객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객가인의 조상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민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다.

이들 신라 지명은 언제부터 유래되었는가? 신라 지명은 예전부터 전해오던 것도 있지만, 근자에 들어와서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1949년을 기준으로 삼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 시기	행정명	총 계
1949년 이전 시기	하북 노룡 신나채촌, 절강 상산 신라오촌, 절강 선거 신라촌, 복건 용암 신라구, 복건 영정 신라촌, 복건 남정 신라촌, 복건 남안 신라촌	7곳
1949년 이후 시기	산동 내주 신라촌, 상해 송강 신라촌, 상해 청포 신라촌, 강소 상숙 신라촌, 복건 연성 신라촌, 강서 심오 신라촌, 광서 빈양 신라촌, 사천 성도 신라로	8곳

중국 공산당 정부 이전 시기에 신라 지명이 존재하는 곳은 하북 노룡 신나채촌, 절강 상산 신라오촌, 선거 신라촌, 복건 용암 신라구, 영정 신라촌, 남정 신라촌, 남안 신라촌 등 7곳이다. 절강 선거 신라촌과 상산 신라오촌은 각각 남송 시대에 편찬한 《(嘉定)赤城志》와 《(寶慶)四明志》에 수록될 정도로 명칭 유래가 아주 오래되었다. 하북 노룡 신나채촌, 복건 영정 신라촌, 남안 신라촌은 최소한 청나라 문헌에 수록될 정도로 오래되었다. 복건 용암 신라구의 경우는 1996년에 행정 명칭으로 등록했지만, 그 명칭은 晉 太康 3년(282)에서 따왔다.

중국 공산당 정부 시기에 새롭게 생긴 신라 행정 지명이 모두 8곳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라 행정 지명이 변화가 많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생겨난 신라 지명의 유래를 보면 '新' 자와 '羅' 자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新' 자는 새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지명을 보면 새로 생긴 지역에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新' 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라 지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때로 두 지역의 첫 글자를 따서 신라라고 촌명을 짓을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강서 심오 신라촌은 羅壩村과 新寨村이 결합한 촌명이다. '羅' 자는 촌락의 주요 성씨 구성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라 촌락 지명을 통틀어 보면 羅氏 집단촌이 많은 편이다. 羅氏 집단촌은 인근 지역에 羅家, 羅村 등 羅 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을 때 기존 지명과 구별하기 위해 새롭다는 '新' 자를 덧붙여 신라라는 지명을 탄생시켰다. 예를 들면 산동 내주 신라촌은 羅氏 집단촌으로 나가라고 불렸으나 인근에 羅家라는 기존 지명이 있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라촌으로 개명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 시기에 새롭게 생긴 신라 지명은 부침이 아주 심하다. 이 시기에 신라 행정 지명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상해 송강 신라촌, 상해 청포 신라촌, 강소 상숙 신라촌, 사천 성도 신라로이다. 이들 지명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행정 지명으로 존재했으나, 최근에 들어와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인근 주변 촌락과 병합되거나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면서 지명에서 사라졌다.

중국 행정 지명에 신라촌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현상을 본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신라촌이 생겨날 것으로 추정된다. 산동 淄博 淄川區 羅村鎭에서 2005년부터 30억 元을 투자하여 새로운 新羅村을 건설하고 있

다. 만약 이곳이 건설되면 신라촌이라는 이름이 생겨날 수도 있다. 광동 佛山 南海區에는 羅村街道가 있다. 羅村街道에는 도시 계획에 따라 획기적이 도시 발전을 하고 있다. 불산시는 이곳을 건설하면서 신라촌 건설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상기 신라 지명 가운데 옛 한국 국가(특히 한반도 신라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행정명	총계
옛 한국과 관련된 신라 행정 지명	하북 노룡 신나채촌, 절강 상산 신라오촌, 복건 선거 신라촌, 복건 남안 신라촌	4곳
옛 한국과 무관한 신라 행정 지명	산동 내주 신라촌, 상해 송강 신라촌, 상해 청포 신라촌, 강소 상숙 신라촌, 복건 용암 신라구, 복건 영정 신라촌, 복건 연성 신라촌, 복건 남정 신라촌, 강서 심오 신라촌, 광서 빈양 신라촌, 사천 성도 신라로	11곳

위 도표에서 보듯이 일부 신라 지명은 옛 한국 국가와 관련이 있고, 일부 신라 지명은 옛 한국 국가와 관련이 없다. 옛 한국 국가와 관련성이 명확하거나 관련 가능성이 높은 신라 지명으로 절강 상산 신라오촌, 하북 노룡 신나채촌(원 신라채촌), 복건 남안 신라촌, 복건 선거 신라촌이 있다. 절강 상산 신라오촌은 신라국 선박들이 들어왔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북 노룡 신나채촌은 현지 주민들이 고구려 유민 정착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나, 촌락 명칭과 기마주의 변천으로 보아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일 가능성이 높다. 복건 남안 신라촌과 복건 선거 신라촌은 촌락 역사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고, 이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신라인들이 드나들었던 사적이 존재하고 있어 한반도 신라국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본문과 필자의 〈台州地區 羅麗 유적과 지명에 관한 고찰〉을 참조하기 바란다.[13] 다만

복건 영정 신라촌과 남정 신라촌은 비록 촌락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옛 신라현인 閩西 지역에 속해 있고, 거주민의 출신이 객가인이기 때문에 한반도 신라국과의 관련이 없다.

4. 결론

본 논문은 중국 전역에 소재한 신라 행정 지명을 조사하고 현지답사와 문헌 고찰을 통해 지명 유래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한반도 신라국과의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륙을 장악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행정 지명에는 신라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상당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정부 시기에 현존했거나 예전에 사용했다가 폐지된 신라 행정 지명이 모두 15곳이 있다. 즉, 하북 盧龍 新挪寨村(원 新羅寨村), 산동 萊州 新羅村, 상해 松江 新羅村, 青浦 新羅村, 강소 常熟 新羅村, 절강 象山 新羅塺村, 仙居 新羅村, 복건 龍巖 新羅區, 永定 新羅村, 連城 新羅村, 南靖 新羅村, 南安 新羅村, 강서 尋烏 新羅村, 광서 賓陽 新羅村, 사천 成都 新羅路 등이다.

신라 행정 지명을 살펴보면 주로 연해안 지역과 객가인 지역에 몰려 있다. 예로부터 오랫동안 전해오는 신라 지명도 있고, 중국 해방 이후 새롭게 생성했던 신라 지명도 있다. 근자에 생성된 신라 지명은 새롭다

13) 박현규, 〈台州地區 羅麗 유적과 지명에 관한 고찰〉, 新羅文化, 31집,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8. 02. pp. 165~180.

는 新 자와 羅家의 羅 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신라 지명 가운데에는 한반도 신라국과 관련이 있는 촌락이 보인다. 절강 상상 신라오촌은 한반도 신라국과 확실한 관련이 있고, 하북 노룡 신나채촌, 복건 남안 신라촌, 복건 선거 신라촌은 한반도 신라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끝으로 이번 중국 내의 신라 행정 지명을 통해 부딪친 여러 애로점 중 두 가지만 언급할까 한다. 첫째, 지명 변화와 관할지 변동에 따른 조사 지역의 확대이다. 본 논문에서 보듯이 신라 지명은 20세기 중반기 이후에도 계속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일부이지만 지명이 원 글자와 발음이 유사한 글자로 변형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명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소단위 지역에서 더욱 두드려지게 나타났다. 둘째, 현지 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현지 조사 때마다 현지 주민과 해당 관청으로부터 외지인, 특히 외국학자의 조사 작업에 대해 기피 현상이 매우 심각했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필자는 앞으로 옛 고구려 강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지명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에는 이번 조사경험이 충분히 발휘되어 보다 좋은 성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燁爀之樂室, 陰 丁亥 流火 丙午 ; 資料 張修禎]

新羅下代 장흥 천관사 화엄신중과 해상 세력

◆

曺凡煥

1. 머리말
2. 〈天冠山記〉의 저본에 대한 검토
3. 通靈 화상의 天冠寺 개창과 단월 세력
4. 〈天冠山記〉에 나타난 華嚴神衆과 海上勢力
5. 맺음말

1. 머리말

〈天冠山記〉는 전남 장흥에 위치한 天冠山을 주제로 쓰여진 많은 記文 가운데 제일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靜明국사 天因(1205~1248)이 36세 되던 1240년(고종 27) 7월에 古迹記(이하 草本이라 칭함)를 참고하여 쓴 것으로《三國遺事》보다 앞선 기록이다.[1] 기문의 주요 내용은 天冠寺[2]의 창건 설화, 신라 孝昭王代 부석존자의 의상암 주석, 신라 神武王이 완도로 들어간 것과 華嚴僧 洪震과의 관계, 천관산 내의 여러 지명 그리고 승려 曇照와 담일 등 천관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흥미롭

* 이 논문은 2007년도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고 그 결과를 〈張保皐의 海上勢力과 華嚴神衆信仰-天因의 〈天冠山記〉 분석을 중심으로-〉,《신라문화》32집(2008년 8월 발간)에 수록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재단에 제출하였던 원래의 제목을 그대로 하여 수록하였다.

** 서강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

1) 〈천관산기〉는 현재《東文選》에 실려 있는데, 이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2) 天冠寺와 관련해서는《長興 天冠山 天冠寺-地表調査 報告書-》, 順天大學校 博物館 · 長興郡, 1999를 참고할 것.

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 기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천관사가 華嚴神衆信仰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천관산기〉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담고 있는 기록인 만큼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먼저 天冠菩薩信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용되었고[3] 천관사와 주위의 土着勢力과의 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4] 또한 張保皐의 해상세력과 연결하여 설명한 연구[5] 및 천관산 지역의 불교 유적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참고되었다.[6] 이렇게 보면 천인의 〈천관산기〉는 신라 하대 불교 사상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사나 불교 유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천관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문의 내용 가운데 미처 주목하지 못한 부분들과 혹은 연구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관산기〉의 저본이라 할 수 있는 초본이 쓰인 배경이나 천관사 개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천관사의 화엄신중신앙과 장보고의 해상세력과의 관계 등 몇 가지 사항들은 천착이 요구된다.

---

3) 呂聖九, 〈元表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硏究〉, 《國史館論叢》 48, 1993 및 朴泰宣, 〈新羅 天冠菩薩信仰 硏究〉, 《靑藍史學》 3, 2000 등이 있다.

4) 邊東明, 〈天冠山과 佛敎信仰〉, 《長興 天冠山 天冠寺-地表調査 報告書-》, 1999 ; 〈長興 天冠山 地域의 土着勢力과 佛敎信仰〉, 《韓國中世의 地域社會硏究》, 學硏文化社, 2000에 재수록.

5) 김주성, 〈張保皐세력의 흥망과 그 배경〉, 《韓國上古史學報》 24, 1997. 씨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천인의 〈천관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최근 張日圭, 〈신라 하대 서남해안 일대 천태 관련 사찰과 장보고 선단〉, 《新羅史學報》 10, 2007에서도 천관사와 장보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6) 이상의 연구 외에도 천관산의 불교 유적과 관련하여 성춘경, 《長興 天冠山 佛敎遺蹟의 考察-玉龍寺址 石佛을 中心으로-》, 《전남 불교미술 연구》, 學硏文化社, 1999 등의 연구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목하고 먼저 〈천관산기〉 작성에 저본이 된 초본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그것은 천인이 〈천관산기〉를 쓸 수 있게 된 기본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천관산에 위치한 사찰 가운데 천관사가 어떤 단월을 배경으로 조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연구에서는 천관사 주위의 토착세력의 지원으로 개창되었다고 한다. 즉 長興 任氏 선대 조상들의 경제적 지원 아래 천관사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 그렇지만 그러한 설명에는 적잖은 의문점이 있어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8] 마지막으로 〈천관산기〉에 드러난 화엄신중을 장보고의 해상세력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결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즉 홍진 대사가 김우징의 위급함을 알고 천관사에서 화엄신중의 威神力을 빌었다고 하는데 이는 해상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9] 그렇지만 이러한 연결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상에서 지적한 대략 세 가지의 문제 즉 〈천관산기〉를 쓸 수 있게 된 저본에 대한 검토와 천관사 개창의 단월세력 그리고 화엄신중과 장보고의 해상세력과의 관계를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신라 하대 천관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동향과 당시

7) 朴泰宣, 앞의 논문, 2000, pp. 240~241 및 변동명, 앞의 책, 2002, p. 16. 그렇지만 長興 任氏가 천관사 창건에 구체적으로 간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천관산 부근에서 성장하고 있던 호족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8) 성춘경은 앞의 책, 1999, p. 300에서 "천관사는 왕실 또는 이에 버금가는 세력의 후원을 입고 있음은 물론 화엄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왕실이 어떻게 천관사에 대한 지원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천관산 옥룡사지에 남아 있는 석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호세력의 지원 아래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성춘경, 앞의 책, 1999, p. 302).

9) 邊東明, 앞의 책, 2002, p. 19.

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天冠山記〉의 저본에 대한 검토

〈천관산기〉를 쓴 승려 천인은 고려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결사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了世에게서 사주를 이어받은 인물이다.[10] 그가 〈천관산기〉를 짓게 되는 배경은 다음의 기록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A. 지난 庚子年 가을 7월에 내가 일찍이 이 산에서 놀면서 聖跡을 탐방하였는데, 탑산의 主公인 曇照가 나에게 古迹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草本이 山 뒤 민가에 遺落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가서 얻게 되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찢어지고 썩어서 글자가 없어진 것이 많으니, 그 뜻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새롭게 하여서 후세에 보여주면 이것도 또한 流通의 일단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때 마침 내가 다른 곳에서 청하여 가므로 생각을 모아 볼 겨를이 없었는데, 뒤에 湛一이라는 자가 또 이 초본을 나에게 주었다. 상자 속에 넣어 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요즈음 한가한 날에 우연히 검열하게 되어 대강 그 줄거리를 기록하여 그 뜻에 응하고 초본과 함께 정하게 돌려보내노라(《東文選》68권, 〈天冠山記〉).[11]

---

10) 천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蔡尙植, 〈白蓮結社 성립과 사상적 경향〉, 《高麗後期佛敎史硏究》, 1993, pp. 83~89 참조.

위의 A의 기록을 보면, 〈천관산기〉를 쓴 천인은 경자년, 즉 1240년에 불교의 聖跡을 탐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관산에 들렀다. 불교의 성적을 탐방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천관산뿐만 아니라 여러 성적을 다녀볼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후일 〈천관산기〉를 쓸 수 있게 된 草本과 마주치게 되었다. 탑산의 주공인 曇照가 소장하고 있던 초본을 본 것이다. 이로 보면 담조는 탑산사에 거주하던 승려로 생각된다.[12] 탑산의 주공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담조는 그곳의 주지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담조는 소장하고 있던 초본을 천인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궁금하다. 물론 이를 알려줄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A의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천관산기〉 전체의 기록에서도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천인의 학문적 지식이 남달랐다는 기왕의 견해에 눈을 돌려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천인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博聞强記하여 문장이 뛰어났으며 17세 되던 1221년에 진사과에 뽑히어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그해 겨울 考藝試에 제 1위의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한다.[13] 이는 천인이 승려가 되기 이전에 유학적인 지식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려준다. 그의 학문적 지식은 출가한 이후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그러한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려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11) 嚮者庚子秋七月 予嘗遊此山 搜訪聖迹 塔山主公曇照 示予古迹曰 此草木(필자 주: '木'은 '本'의 잘못으로 판단된다)遺落在山後民家 偶往而得之 歲久破爛 文多盖闕 若紬繹而新之 照示於後 斯亦流通之一段也 時予方赴他請 未遑屬思 後有湛一者 又以此本遺予 委在匣中久矣 今於暇日 偶獲檢閱 粗記其梗槩 以副其意 幷其本而歸之.

12) 당시 천관산에는 천관사 이외에도 탑산사 · 玉龍寺 등 40여 寺庵이 조성되었다고 한다(성춘경, 앞의 책, 1999, p. 278).

13) 蔡尙植, 위의 책, 1993, p. 84.

널리 회자되었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천인과 관련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담조가 그에게 초본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담조가 민가에서 우연히 초본을 발견하였지만 그 내용을 파악할 능력은 없었던 것 같다. A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찢어지고 썩어서 글자가 없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담조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천인이 그곳을 방문하자 그의 학문적 실력을 알고서 초본을 보여준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천인은 다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A의 기록 참조). 이후 천인이 그곳을 다시 방문하자 승려 湛一이 초본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에 천인은 그것을 받아 상자 속에 넣어 간직해 두었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초본을 꺼내어 읽고 대강의 줄거리를 적어 돌려보냈다고 한다. 처음에 담조가 천인에게 초본을 보여주었고 후일 담일이 그것을 다시 보여준 것으로 보아 담조는 천관사를 떠났거나 혹은 열반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를 이은 담일이 초본을 소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담조가 민가에서 초본을 입수하였다고 한 사실에 주목해 보자. 민가에서 입수했다고만 되어 있어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즉 원래 소장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형편이다. 다만 그것을 소장한 것으로 보아 원래 소장자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력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사꾼이나 혹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초본을 소장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점은 민가에서 그것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오래되고 썩어서 없어진 글자가 많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자료를 민가에서 소중하게 보관하였다

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가의 소장자는 적어도 그 일대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집안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초본은 민가에서 학문적인 실력을 갖춘 누군가가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담조가 초본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찢어지고 썩어서 없어진 글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민가의 소장자는 그 내용을 읽고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소장자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을 보관만 했지 그것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리어 다음과 같은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즉 담조가 민가에서 遺落된 것을 얻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민가의 유식자가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천관산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민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예컨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천관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민가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담조가 우연히 발견한 초본이 민가로 흘러들어가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다. 이를 알아내기기 위해 초본의 작성 시기를 밝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본이 작성된 시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초본이 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 연유를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천관산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B-1. 천하에 통한 것이 한 기운이니 (기운이) 발하여 내와 개천이 되고, 쌓이면 산과 멧부리를 이룬다. 조령 남쪽 바닷가 옛적 烏兒縣 지경에 천관산이 있는데… (《東文選》 68권, 〈天冠山記〉).[14]

B-2. 신라 神虎王이 태자 때에, 마침 임금의 譴責을 당하여 산 남쪽 莞島로 귀양 갔다 (같은 책, 같은 기록).[15]

위의 B-1의 기록 가운데 烏兒縣이 주목된다. 오아현은 본래 백제 烏次縣이었는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고 하며 고려시대에는 定安縣으로 되었다고 한다.[16] 그런데 천인이 〈천관산기〉를 쓴 때가 앞서도 보았듯이 1240년이다. 그렇다면 그는 당시의 지명인 정안현으로 기록하지 않고 신라시대의 지명인 오아현을 그대로 적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선 연구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착성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7] 돌려 말하면 천인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곳의 지명은 정안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오아현으로 불렀기 때문에 천인도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인이 〈천관산기〉를 쓰면서 그 지역의 명칭을 몰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역의 토착성 때문에 정안현을 오아현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천인이 정안현을 쓰지 않고 오아현으로 쓴 것은 초본을 판독한 다음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A

14) 通天下一氣也 泄爲川瀆 積成山岳 則嶺之南濱海之 地古烏兒縣之境 有天冠山 .
15) 新羅神虎王爲太子時 適遭天譴 流山南莞島.
16) 《三國史記》 권 36, 잡지 5, 지리 3 및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7, 長興都護府建置沿革條.
17) 呂聖九, 앞의 논문, 1993, p. 244의 주 116 및 朴泰宣, 앞의 논문, 2000, p. 234 참조.

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인이 초본의 대략의 줄거리를 기록하였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18]

천인이 초본을 존중하고 그 대략의 줄거리를 기록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B-2의 기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神虎王이 완도로 귀양갔다고 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신호왕은 신라 45대 神武王(839. 1~839. 7)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 기왕의 연구는 신무왕의 武자가 고려 惠宗의 휘인 武와 같기 때문에 避諱되어 虎 자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9]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초본이 쓰인 시기는 고려 혜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초본에는 신무왕으로 쓰여 있었으나 천인이 피휘법을 적용하여 신호왕이라고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20]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울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를 위해 B-2의 기록을 다시 주목해 보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무왕과 관련된 기록이 《三國史記》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르게 나타나 있다. 즉 金祐徵이 태자였다고 하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김우징은 태자로 책봉된 사실이 없다. 더구나 그는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하여 완도로 내려가 張保皐에 의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고려 혜종 이전에 쓰인 기록으로 단정하기에 주저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천인이 피휘법을 적용하여 신호왕이라고

18) 물론 〈천관산기〉의 내용 전부가 초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천인이 초본을 판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생각을 쓴 것이기 때문에 천인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지명을 옛 지명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초본의 내용을 보다 존중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19) 김주성, 앞의 논문, 1997, p. 166.

20) 김주성, 위의 논문, 1997, p. 166.

하였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판단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피휘법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신무왕을 태자로 기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것이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무왕이 완도로 귀양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천인의 학문적 지식은 대단히 높았다. 그러한 학문적 지식을 가진 그가 신무왕을 태자라고 기록하고 또한 同王이 완도로 귀양갔다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논증이 타당하다면 초본의 작성 시기를 고려 혜종 이후로 보는 것이 더 순리적이라 생각된다. 천인이 초본의 내용을 대략 옮겨 정리했다고 했으므로 혜종 이후 작성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점도 그러한 것을 입증한다. 또한 천인의 유학적인 지식을 염두에 두면 신무왕을 태자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천인은 〈천관산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본을 참고하고 그것의 내용 가운데 판독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초본의 작성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초본을 작성하였을까 하는 점도 궁금하다. 앞서 제시한 기록만으로 초본의 작성자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승려 담조가 우연히 초본을 구해 본 것을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자. 담조는 초본을 얻고 난 이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귀중하게 생각하여 보관하였다. 그것은 천관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본을 작성한 인물은 천관사와 일정한 관련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곳에 상주하던 승려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특히 천관사가 통령 화상에 의해 개창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초본의 기록자는 천관사의 승려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21]

천관사에 상주하던 승려는 무엇 때문에 그곳과 관련된 기록인 초본을 남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라 왕조의 쇠락은 결국 후삼국의 형세를 불러 왔으며, 천관사가 위치한 장흥 지역은 후백제 견훤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천관사는 후백제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지원도 그곳에서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말미암아 천관사는 후백제에게서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더구나 장흥 지역은 후백제의 통치력이 미쳤던 곳이기 때문에 고려 정부의 관심에서 더더욱 멀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22] 물론 고려시대 천관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 모습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사세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23] 중앙이 아닌 지방세력가나 혹은 주위의 세력가의 지원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천관사의 경제적인 기반은 전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쇠락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

21) 물론 천관사에 거주하던 승려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인물에게 천관사의 내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기록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관사의 승려가 주체가 되어 그러한 일을 수행하였으므로 천관사 승려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변동명은 장흥 지역의 호족세력들이 견훤보다는 왕건을 환영하는 편에 있었으며, 그 결과 장흥 임씨 가문이 고려 중기에는 마침내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으로 등장하였다고 보았다(邊東明, 앞의 책, 2002, p. 21).

23) 고려시대 천관사에 대해서는 김희태, 〈天冠山 天冠寺의 歷史와 沿革 變遷〉, 앞의 책, 1999, pp. 13~14 참조.

천관사에 거주하고 있던 승려는 천관사 개창의 연원과 사세의 흥성과 쇠락 과정을 기록하여 그곳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날의 성대했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후세에까지 그것을 남겨두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천인이 판독한 저본은 천관사와 관련된 사적기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본이 민가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염두에 두면 천관사는 고려 혜종 이후 점차 쇠락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초본도 천관사에서 소장하지 못할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짐작된다. 초본이 천관사에서 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 배경은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3. 通靈 화상의 천관사 개창과 단월 세력

천관사는 통령 화상이 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애장왕대 활동하던 승려로 천관사 뿐만 아니라 탑산사도 함께 창건했다고 한다.[24] 그리고 이 두 사찰의 창건 시기가 대체로 애장왕대 무렵으로 파악되고 있다.[25] 그러니까 9세기 전반에 활동한 승려 통령은 천관산에 두 개의 사찰을 창건한 것이다. 그렇지만 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없

24) 〈천관산기〉, 《東文選》 권 68, p. 605 :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7, 長興都護府 天冠寺.

는 관계로 그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그는 8세기 중엽 寶林寺에 주석하고 있던 元表와 직간접적으로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즉 보림사와 가까운 천관산 천관사에서 활동하던 통령은 원표의 신앙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6]

원표는 의상계 화엄사상을 익힌 승려로 天冠菩薩信仰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천관보살신앙은 원표가 귀국하여 가지산사를 창건한 이후 천관산을 중심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령이 원표에게서 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천관보살신앙의 사상을 공유한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통령이 오대산에서 왔다고 하는데 오대산신앙의 형성에는 의상계 화엄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신라 말이나 후삼국 시기에 정리되었다고 한다.[27]

이렇게 보면 통령이 천관산에 탑산사와 천관사를 건립할 수 있었던 사상적인 배경은 천관보살신앙과 의상계 화엄신앙이 기본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천관사의 창건은 어떠한 경제적 배경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를 살펴보면 왕실의 후원이나 혹은 무주 토호세력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천관산 지역의 토착세력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8] 더 나아가 장흥 임씨의 선조와 같은 호족세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

25) 〈支提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를 보면 《三國遺事》의 내용이 와전되어 천관사의 내용에 부회되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여성구, 《신라중대의 입당구법승 연구》, 국민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 119~120). 이에 필자는 씨의 견해를 따라 이 정도 설명에서 그치고자 한다.

26) 여성구, 앞의 논문, 1993, pp. 228~246 및 박태선, 앞의 논문, 2000, p. 237.

27) 金杜珍, 〈新羅 下代의 五臺山信仰과 華嚴結社〉, 《韓國佛教文化思想史》 卷 上,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1992, pp. 676~693).

28) 박태선, 위의 논문, 2000, p. 237.

자도 있다.[29]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이해가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천관사 개창의 단월세력을 찾아보기로 하자.

C-1. 元表大德은 법력으로써 정치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乾元 2년(筆者註:759, 景德王 18년) 왕이 특별히 명하여 長生標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 標主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金穎 撰,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文〉,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가산문고, 1994, p.109).[30]

C-2. 교를 내려 望水宅 · 里南宅 등도 金 160分, 租 2,000斛을 내놓아 공덕을 꾸미는 데 도와 충당토록하고 사찰은 宣教省에 속하게 하였다 (위의 비문, 위의 책, 1994, p.110).[31]

위의 C-1의 기록을 보면, 장흥 보림사는 體澄 선사가 주석하기 이전에 원표 대덕이 주석하고 있었으며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한 결과 왕실에서 長生標를 허락받았다. 보림사에 대한 왕실의 장생표 허락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32] 그것은 절의 사세를 결정짓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원표가 주석하던 보림사에 장생표가 세워

29) 변동명, 앞의 책, 2002, p. 16. 씨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천관산에서 활동하던 통령화상이 왕경의 귀족세력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새로이 성장 중이던 정안 임씨의 세력을 제외하고는 달리 후원세력을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0) 表德以法力 施于有政 是以 乾元二年 特教植長生標柱 至今存焉.

31) 教下望水里南等宅共出 金一百六十分 租二千斛 助充裝飾功德寺 隷宣教省.

32) 이병희는 장생표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의 농지와 농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실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이병희, 〈三國 및 統一新羅期 寺院의 田土와 그 經營〉, 《國史館論叢》 35, 1992, p. 133). 그리고 그는 장생표는 모든 사원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우대의 표시로 특정한 사원에만 세워졌다고 하였다.

진 것은 원표와 왕실과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원표의 영향을 받은 통령이 보림사에 내려진 장생표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2의 기록을 보면, 헌안왕은 望水宅과 里南宅에 명을 내려 금과 조를 가지산사에 기진토록 하였다. 왕이 이남택과 망수택으로 하여금 보림사에 금과 조를 기진케 한 것은 이들의 田莊이 장흥 부근에 있었기 때문이다.[33] 결국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원도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기진한 주체는 진골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왕실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더구나 이 절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원표 대덕이 주석하였던 곳이고 이후 체징 선사가 주석하면서 왕실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34] 또한 신라 하대에는 중앙의 귀족들 가운데는 지방 사원에 많은 재산을 기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진골 귀족들은 화엄종이나 선종 사찰에 많은 토지를 기진하거나 혹은 租稻 등을 기진하였다.[35] 이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중앙의 진골 귀족들 대부분은 해상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해상세력들은 중국과 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진골 귀족들은 해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원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곳을 통하여 많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

33) 서영교, 〈청해진과 서남해안의 전장 · 목장〉, 《STRATEGY21》 4-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p. 82.

34) 曺凡煥, 〈新羅 下代 體澄 禪師와 迦智山門의 開創〉,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100호), 2005 ;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硏究》, 2008, p. 23 참조.

35) 近藤浩一, 〈9세기 중엽 聖住寺와 신라 王京人 의 서해안 진출-張保皐 교역활동의 영향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8, 2006, p. 125.

는 등의 일을 하였다.[36]

또한 서남해안 지역에는 진골 귀족들이 가진 목장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말도 방목하였다.[37] 이는 진골 지배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新唐書》 동이전 신라조에는 재상의 집에 녹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그 곳은 귀족들의 녹읍이 위치한 곳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화엄종 사찰인 천관사가 통령 화상에 의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세력의 후원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경제적 기반은 중앙의 지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옳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하나도 아닌 두 개의 사찰을 같은 지역에 창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의 경제적 지원을 돌려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결국 천관사의 창건은 중앙 정치세력의 경제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줄 안다.[38] 더구나 천관사가 바닷가와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중앙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천관사는 더욱 발전해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의 기록이 그것을 알려준다.

D. 신라 神虎王이 태자 때에, 마침 임금의 譴責을 당하여 산 남쪽 莞島

36) 近藤浩一, 위의 논문, 2006, p. 125.

3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847년 9월 8일조.

38) 애장왕대 천관산에 천관사와 탑산사의 건립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애장왕대 불사를 금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三國史記》 권 10, 애장왕 7년 3월조 참조). 그렇지만 그는 해인사를 창건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의 금령이 큰 효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로 귀양갔다. 華嚴 洪震 대사가 본래 태자와는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東宮의 일을 듣고 급히 달려가 이 절에 의지하였다. 밤낮으로 힘써 정진하면서 화엄을 부르니 신중이 이로써 감응하였다. 여러 神衆들이 唱을 따라 응하여 절의 남쪽 봉우리에 죽 늘어섰으니, 지금의 神衆巖이 그것이다(《東文選》 68권, 〈天冠山記〉).[39]

홍진 화상이 김우징을 위하여 천관사에서 밤낮으로 화엄신중을 예찬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신중이 감응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서 천관사에 대한 왕실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천관사는 바다를 통해 이동이 자유로웠으며 청해진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청해진의 해상세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염두에 둘 수 있다.[40]

그러나 신무왕이 왕위를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문성왕 초반에도 천관사는 계속해서 중

39) '新羅神虎王爲太子時 適遭天譴 流山南莞島 華嚴洪震師素善太子 聞東宮事 急走依是寺 日夜精勤 禮唱華嚴 神衆因感 諸神衆隨唱而應 遍列寺南峯 今神衆嵓是也' 이 원문에 대하여 장일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라 신호왕이 태자 때 천견을 만나 산 남쪽의 완도에 흘러들어왔다. 화엄 홍진 대사가 평소 태자와 만나 동궁의 일이 급함을 알리니 도망하여 이 절에 의지하였다. 밤낮으로 힘써 정진하면서 화엄을 부르니 신중이 이로써 감동하였다. 여러 신중이 노래를 따라 응하여 절의 남쪽 봉우리에 두루 무리를 지었다. 지금의 신중이다."(장일규, 앞의 논문, 2007, p. 165). 그렇지만 씨의 해석 가운데 일부는 따르기가 어렵다. 즉 홍진 대사가 태자와 만나 동궁의 일이 급함을 알리니 도망하여 이 절에 의지하였다고 하는 부분이다. 태자를 김우징으로 볼 경우 동궁이 누구인지 헤아릴 수 없다. 또 동궁이 김우징이라고 한다면 태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태자와 동궁은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김우징이 도망하여 이 절에 의지하였다고 하는 데, 이는 홍진 대사가 천관사에 도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김우징이 천관사에 들렀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4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앙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헤아려 진다. 다만 841년 장보고가 죽임을 당한 이후 천관사의 사세에 어떤 변화가 없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물론 이러한 의문에 답해 줄 만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문성왕 취임 후 장보고가 죽기 전까지 천관사는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다만 장보고가 죽은 이후의 상황이 과연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인데, 천관사의 사세가 장보고의 사망 이후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신무왕 등극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던 사찰인 만큼 장보고의 죽음과 더불어 곧바로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왕실의 지원이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한다.

4. 〈天冠山記〉에 나타난 華嚴神衆과 海上勢力

〈천관산기〉의 내용 가운데 승려 홍진과 김우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D의 기록을 보면, 김우징이 견책을 당하여 완도로 급하게 피신하였을 때 화엄승인 홍진이 천관사로 달려가 밤낮으로 화엄을 외었다고 한다. 그 결과 여러 신중들이 감동하여 승려 홍진의 부름에 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사실을 두고 김우징을 도와 일어난 淸海鎭의 군사가 승리하도록 홍진이 천관사에서 기원하였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와 있다.[41]

앞선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해석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

기 전에 승려 홍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그런데 D의 기록만 보아서는 홍진 대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D의 기록에 나타난 것을 통해 몇 가지 짐작이 가능한데, 먼저 그가 김우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천관사로 달려간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곳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홍진은 천관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찰에서 김우징과 관련된 일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그가 천관사에 도착하여 밤낮으로 화엄을 염하자 신중이 감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천관사가 화엄신중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홍진 대사가 김우징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음을 보여준다. D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홍진이 태자와 좋아하는 사이였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홍진 대사는 화엄승으로 중앙에서 활동하던 승려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김우

41) 김주성은 앞의 논문, 1997, p. 167에서 홍진 대사의 도움을 화엄신중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김우징이 장보고의 군대를 빌려 대구로 진격하여 민애왕의 10만의 군대를 물리친 것과 관련하여 보고 있다. 그리고 朴泰宣, 앞의 논문, 2000, p. 238에서 "화엄신중의 감응은 무력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홍진이 불렀던 천관사의 화엄신중은 천관산 일대의 현실적인 무력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홍진은, 김우징을 도왔던 청해진 군사의 승리를 천관사에서 기원하였거나, 혹은 현실적인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했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김우징은 이후 곧 청해진의 군사력을 빌려 왕위를 차지하고 신무왕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相鉉, 앞의 책, 1993, p. 142에서는 "화엄신중의 감응은 무력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설화를 우징을 도운 청해진의 군사의 승리를 홍진이 천관사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해해도 지나친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邊東明은 "김우징을 도와 일어난 청해진의 군사가 승리하도록 홍진이 천관사에서 기원하였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邊東明, 앞의 책, 2002, pp. 19~20).

이상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홍진 대사가 화엄신중의 위신력을 얻고자 한 것은 김우징이 청해진의 군사를 빌어 민애왕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징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중앙에서 활동하던 승려임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왜냐하면 김우징은 경주의 진골 귀족이었고 원성왕이 증조부였다.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이 당시 진골 귀족들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진 대사는 경주에서 활동하면서 일찍부터 김우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짐작되는 것이다.

이제 앞서 제시한 의문 즉 홍진이 천관사로 급하게 들어가 화엄신중을 불렀던 것이 김우징을 도와 일어난 청해진의 군사가 승리하도록 기원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우징이 경주를 떠나 청해진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우징은 장보고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었다. 김우징은 그의 아버지 金均貞과 함께 왕위쟁탈전에 참가하였다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경주에 머물러 있었다.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하여 곧바로 장보고에게 의탁하였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른 사실이다. 《삼국사기》에는 836년 12월에 왕위쟁탈전이 있었고 그 다음 해인 여름 5월에야 김우징이 경주를 떠나 황산진 어구로 달아나 배를 타고 장보고에게 갔다고 한다.[42] 이런 사실로 보면 김우징이 왕위쟁탈전에서 패하였지만 약 5개월 정도 경주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우징의 반대파로 알려진 희강왕 일파가 정권을 차지한 이후 한 동안은 김우징을 처벌하거나 혹은 危害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2) 《三國史記》 권 10, 僖康王 2년 5월.

그런데 왕위쟁탈전이 일어난 이후 약 5개월 동안 경주에 머물러 있던 김우징이 갑작스레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김우징의 신변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김우징이 화를 입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희강왕 일파는 왕위쟁탈전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政敵인 김우징을 곁에 둘 수 없어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희강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김우징은 왕위쟁탈전에서 실패하였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반란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자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피신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 왕위쟁탈전이 치러진 이후 경주에 머물러 있던 김우징이 갑자기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사정에 직면하였음을 알려준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김우징은 가족들을 데리고 황급히 경주를 떠나 황산진을 거쳐 청해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홍진 대사가 김우징을 위하여 천관사에서 화엄신중의 위신력을 불러낸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김우징이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경주를 떠나 황산진을 거쳐 청해진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희강왕 일파가 김우징이 가족을 데리고 몰래 경주를 떠난 사실을 알고 그를 잡기 위하여 추격군을 보냈다면 상황은 매우 가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홍진 대사는 경주에서 그러한 일을 전해 듣고 곧바로 천관사에 들

러 화엄신중의 위신력을 구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왕의 설명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승려 홍진과 장보고와 관계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만 장보고가 불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보고는 중국 산둥반도 적산촌에 법화원을 세웠으며 완도에는 법화사를 창건하였다. 따라서 그는 불교와 일찍부터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홍진 대사와도 가깝게 지낸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교와 관련되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가운데 김우징이 경주를 떠나 청해진으로 향하였을 때 안전한 항해와 무사히 청해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장보고에게 부탁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마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관사로 들어가 화엄신중이 도움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홍진은 김우징뿐만 아니라 장보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김우징이 장보고에게 의탁하는 데 있어 연락을 담당하였던 인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보면, 〈천관산기〉에 나타난 화엄신중은 청해진의 해상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승려 홍진이 천관사에서 화엄신중을 부른 것은 청해진의 해상세력이 민애왕 제거를 위해 출병하자 그것의 승리를 위해 기원한 것이 아니라 김우징의 청해진 도피 과정에서 안전하게 청해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천관사을 중심으로 한 화엄신중신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천관산은 이름 그대로 천관보살신앙이 깊이 배어 있는 곳이다. 그

리고 천관사 창건의 사상적 배경도, 앞서 보았듯이, 천관보살신앙과 의상계 화엄신앙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 홍진이 천관사에 들러 화엄신중을 염한 것은 천관사가 그만큼 화엄신중신앙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천관사는 언제부터 화엄신중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신앙층은 누구였을까 하는 것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불경에는 수많은 호법신이 등장하는 데, 《화엄경》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각을 이룬 부처님 주위에는 수많은 신중들이 그의 주위를 옹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무한한 힘의 소유자로서 불법을 지키고 모든 재산을 막아주는 善神이다.[43] 이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곧 화엄신중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은 《華嚴神衆經》으로 나타났다.[44]

이렇게 보면 화엄신중신앙은 화엄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화엄신중신앙이 중대에 나타나 하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였음은 눈여겨 볼 수 있다. 8세기부터 오대산에서는 화엄신중신앙이 행해지고 있었다. 예컨대, 寶川은 五臺의 각 암자에 각각 結社하고, 일정한 福田을 상주시켜, 국가를 위해 밤낮으로 행할 행사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에 의하면 五社의 본사인 寶川庵 福田은 매일 밤 華嚴神衆을 念하고, 都會社인 下院 文殊岬寺에서는 항상 밤낮으로 華嚴神衆禮懺을 행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었다.[45] 이는 화엄신중신앙

43) 80권본 《華嚴經》에 나오는 그 명호 및 주된 역할에 대해서는 南東信, 앞의 논문, 1993, pp. 160~161 참조.

44) 물론 이것은 僞經이다. 더욱이 《화엄경》에서는 조연에 불과한 신중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데에는 이 경전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신은 나말여초라는 시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하였다(南東信, 〈나말여초 화엄종단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성립〉, 《外大史學》 5, 1993, p. 163).

또한 국가를 돕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6] 더 나아가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있어서 화엄의 주존불인 毘盧遮那佛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활약하는 신중들에 대하여 일반 백성들은 훨씬 친밀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격동기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화엄의 신중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47] 결국 시대적인 상황에서 화엄신중신앙이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천관산을 중심으로 화엄신중신앙이 퍼지게 된 배경도 이러한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보았듯이 화엄신중신앙은 오대산에서 생겨나 강원도의 오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갔다.[48] 이렇게 보면 신라 하대 화엄신중신앙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E. 신라 애장왕 때 즉 唐 德宗廟에 通靈和尙이 異氣를 보고 오대산으로부터 와서 수녕현 남점면에 이르렀다 (〈支提誌〉, 《韓國寺刹全書》下, p. 1070).[49]

위의 E 기록을 보면 통령은 오대산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그는 당시

45) 《三國遺事》 권3, 臺山五萬眞身條.

46)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硏究》, 민족사, 1993, p. 140.

47) 남동신은 앞의 연구, 1993, p. 154에서 "해인사는 군사적 무장과 병행하여 정신적 무장의 차원에서 화엄신중신앙을 주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아가 이 신앙은 해인사와 농민을 묶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씨의 이러한 견해를 통하여 볼 때 화엄신중신앙이 일반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

48) 남동신, 앞의 논문, 1993, p. 149.

49) 新羅哀莊王時 卽唐德宗朝也 有道釋靈通和尙者望異氣 且五臺山而來 至遂寧縣南岾眠.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알려진 화엄신중신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천관산에 들어와 보살주처신앙을 전파하면서도 화엄신중신앙도 함께 그곳에 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통령의 천관보살 신앙도 80권본《화엄경》보살주처품에 있는 내용에 토대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천관산에는 천관보살주처신앙뿐만 아니라 화엄신중신앙도 함께 퍼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천관사는 통령이 주석한 이후부터 화엄신중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는 화엄신중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승려 홍진이 김우징을 위해 화엄신중을 염한 것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관사를 중심으로 한 화엄신중신앙의 주요 신앙층은 누구였을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 화엄신중신앙과 관련하여 일반 백성들이 주요 신앙층이었음을 알아보았다. 문제는 천관사를 중심으로 한 화엄신중신앙의 주요 신앙층도 일반 백성들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천관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지역의 동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초반에 이르러 군소 해상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토착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50] 이들은 해상활동을 통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선진문물을 접하며 세력을 키웠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사찰을 찾아 항해의 안전을 바랐다. 그들은 사찰에서 기원하였으며 항해를 하는 중에도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간절히 빌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화엄신중의 명호를 외웠던 것이

50) 崔根泳, 〈地方勢力形成의 實際와 그 性格〉,《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硏究》, 신서원, 1993, pp. 131~134.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앞서 화엄신중신앙의 주요 신앙층이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였는데 해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해상활동을 하거나 혹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그들은 해상무역의 안전을 위하여 화엄신중신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동안 미루어 두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앞선 연구에서 화엄신중과 장보고의 해상세력을 동일시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상정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51] 홍진 대사가 화엄신중의 위신력을 빌자 그것이 성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력적인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천관산 일대의 현실적인 무력세력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는 장보고 휘하에서 활동하던 장흥 임씨와 천관산 일대의 호족세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52] 이러한 해석은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장보고의 군사적 세력을 돌려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장흥 임씨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장보고 세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의 군사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홍진 대사가 화엄 신중을 불러 감응을 받았던 것으로 볼 때 해상세력이 이에 부응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장보고의 영향력 아래서 무역업을 하는 군소 무역상들은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마치 화엄신중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아진다. 해상 무역 업자들 가운데는 해난 사고로부터 벗어나 많은 부를 축적하

51)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화엄신중과 장보고세력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52) 최성락 외, 《장보고 관련 유물 · 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3, pp. 199~200.

고자 하였을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적이었다. 그런데 장보고의 해상세력은 그러한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무역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화엄신중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 믿어지는 것이다. 천관사의 화엄신중은 곧바로 청해진의 해상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흥덕왕 3년(828) 淸海鎭이 설치되면서 그러한 화엄신중신앙이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보고의 해상세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적선을 몰아내고 군소무역상들이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화엄신중신앙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천인이 보았던 초본은 천관사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더불어 화엄신중신앙과 관련된 것도 전해주고 있다. 초본의 작성자는 천관사 소속의 승려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이 천관사 주위의 민가에 유락되었던 것은 고려 초 천관사의 사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신라 말 甄萱의 지원 아래 있었던 천관사가 고려 초에 이르러서는 중앙의 지원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천관사를 개창한 통령은 오대산에서 공부하였으며 원표에게서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원표에게서 보살주처신앙을 그리고 오대산에서는 화엄신중신앙을 익히고 천관산에 천관사를 개창

하였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사찰도 개창하였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두 개의 사찰을 개창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기왕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의 경제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의 경제력을 통하여 천관산에 두 개의 사찰을 창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우징이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하여 한동안 경주에 머물다가 갑자기 청해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홍진 대사는 천관사에 머물면서 화엄신중의 위신력을 빌었다. 그 결과 김우징이 안전하게 청해진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 홍진 대사가 천관사에서 화엄신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의 신앙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서로 잘 부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천관사는 화엄신중신앙의 본거지였으며 청해진의 장보고 해상세력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바로 홍진 대사가 부른 화엄신중은 장보고의 해상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四海와 四瀆

◆

채 미 하(경희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 머리말
2. 大山川제사와 신라의 사해 · 사독
3. 신라 중대왕실과 사해 · 사독제사
4. '大川' 제사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라의 사해와 사독제사를 통해 한국 고대 '대천' 제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이다. 물과 관련된 제장은 소천과 대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천에 해당하는 것은 井(淵)·川(泉)이고 대천에 해당하는 것은 海·瀆이다. 이 중 대천제사인 사해와 사독은 통일신라의 사방관념, 영역관념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해와 사독뿐만 아니라 오악과 사진은 유교의 산천규범 중 천자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신라 중대왕실이 유교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유교적인 지배체제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 중대왕실은 유교적 지배체제 정비를 통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꾀하려고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교의 산천규범을 따른 것이었다.

한편 통일신라 시대 정·천은 농경제사와 '별제'의 제장이었고, 사해와 사독은 중사에 편제되었다. 신라에서는 강과 바다에 대한 제사가 일찍부터 있어 왔고 신라의 외연이 확대됨으로써 물과 관련된 제사 공간은 신라 초기 정·천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해·독으로 확장되어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 중대 해·독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는 정·천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통일신라기 사해와 사독제사는 물을 제장으로 한 신라 최고의 국가제사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한국 고대에 산악신앙 못지않게 물과 관련된 신앙이 있었고 그 곳에서 국가제사 등이 행해졌으며 그 나름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문주제어 : 사해, 사독, 대산천, 대천, 소천, 신라 중대왕실, 사방관념, 유교의 산천규범, 유교적 지배체제 정비, 국가제사

1. 머리말

《삼국사기》32, 잡지1, 제사 신라조(이하 제사지 신라조라고 함)에 기록되어 있는 명산대천제사를 보면 산과 천(海, 4해 중 북해 제외, 4독), 이외에도 城(북형산성, 도서성, 가림성), 鎭(청해진), 기타 명(동진 온말근, 남진 해취야리, 표제명이 없는 추심, 상조음거서) 등이 나온다. 이러한 명산대천제사는 제사지 신라조에 신라 국가제사에 대한 여러 기록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명산대천제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였다.[1] 이로 말미암아 신라의 명산대천제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보다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名山大川제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名山'에만 치중하여

* 이 논문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2007년도 학술 연구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신라 명산대천제사와 관련된 연구사 정리는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祀典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20, 2007, p. 235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왔다. 그렇지만 명산대천에는 명산뿐만이 아니라 '大川'[2]도 있다. 이러한 '대천'과 관련된 연구는 이병도의 연구가 선구적이다.[3] 그리고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용왕 신앙에 대한 연구,[4] 최근에는 해신제사 및 해양신앙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5]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대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의 국가제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6] 이에 본 연구는 제사지 신라조의 사해와 사독을 통해 '대천' 제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大山川에 대한 제사를 대산과 대천으로 나누어 보면서, 대천제사인 사해와 사독제사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해와 사독제사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목적을 중대왕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다. 이것들은 신라의 오악과 사진 등 여러 산천제사를 비롯한 국가제사뿐만 아니라 고

---

2) 본 논문에서 '大川'과 大川은 구분하는데, 따옴표를 친 '대천'은 대천과 소천을 합친 것을 말하며, 대·소의 개념인 대천은 海·瀆을, 小川은 井(淵)·泉(川)을 말한다.

3) 이병도는 하천이나 정천신앙은 산악이 많은 한국의 지리적 조건과 농경민족이라는 사회적 조건, 주기적인 한발의 기상적 조건 등이 결합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한국 고대사회의 정천신앙〉,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7, p. 795).

4) 용왕 신앙과 관련된 논저 목록은 서영대·송화섭 엮음,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참고.

5) 해신제사와 해양신앙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유병하, 〈부안 죽막동유적의 해신과 제사-제사양상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유병하, 〈부안 죽막동유적에서 진행된 삼국시대의 해신 재사〉, 《부안죽막동제사유적연구》(국립전주박물관), 2002.
채미하, 〈청해진의 사전편제와 해양신앙〉, 《진단학보》99, 2005 : 앞의 책, 2008.
김창겸, 〈신라 중사의 '사해'와 해양신앙〉, 《한국고대사연구》47, 2007. 그리고 민속학에서 해신 및 해양신앙과 관련된 다수의 논저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서해안의 해신신앙연구》, 2003과 《동아세아의 해양신앙과 해신 장보고》, 2006 참고.

6)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신라의 농경제사와 '별제'〉, 《국사관논총》99, 2006a : 앞의 책, 2008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려와 조선의 국가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물이 지니고 있는 기본 성질과 井(淵)·泉(川) 및 海·瀆에서 이루어진 각 제사의 성격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대천' 제사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大山川제사와 신라의 사해·사독

다음 사료는 제사지 신라조의 명산대천제사에 대한 것이다.

A. 1)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2) ① 大祀 三山 一奈歷(習比部) 二骨火(切也火郡) 三穴禮(大城郡) ②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雞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 押督郡), 四鎭 東溫沫慤(牙谷停) 南海恥也里(一云悉帝 推火郡) 西加耶岬岳(馬尸山郡) 北熊谷岳(比烈忽郡), 四海 東阿等邊(一云斤烏兄邊 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 四瀆 東吐只河(一云槧浦 退火郡) 南黃山河(歃良州) 西熊川河(熊川州) 北漢山河(漢山州), 俗離岳(三年山郡) 推心(大加耶郡)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已郡) 北兄山城(大城郡) 淸海鎭(助音島) ③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泣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兄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

縣) 岳髮(一云髮岳 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 于火縣) 三岐(大城郡) 卉黃(牟梁) 高墟(沙梁) 嘉阿岳(三年山郡) 波只谷原岳(阿支縣) 非藥岳(退火郡) 加林城(加林縣 一本有靈嵒山・虞風山 無加林城) 加良岳(菁州) 西述(牟梁)(《삼국사기》32, 잡지1, 제사)

위의 사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라고 하고(1), 이어서 그 구체적 대상이 대사・중사・소사로 나뉘어져 나온다(2). 대사에는 삼산이, 중사에는 오악, 사진, 사해, 사독과 속리악 이하 6곳이, 소사에는 24개의 산천 등이 편제되어 있다. 우선 신라 명산대천이 대・중・소사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이 관심을 끈다.

B. 天子祭天地・祭四方・祭山川・祭五祀 歲偏 諸侯方祀祭山川・祭五祀 歲偏(《禮記》曲禮 下)

위의 사료에 따르면 천자는 천지, 사방[사망],[7] 산천, 五祀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方祀하며 산천과 오사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여기의 사방은 망제로 각 방향의 산천을 말하며[8] 문맥상 사방[사망]은 산천에 앞서 나오고 있다. 원래 사방[사망]과 산천은 동일범주였다가 예제의 정비에 따라 후에 분할되었다고 한다.[9] 그렇다면 사방[사망]은 대

7) 사방은 문맥상 천지 아래에 있고 산천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사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망이 아닐까 한다(池田末利, 1981, 〈四方百物考〉, 《中國古代宗教史研究-制度と思想》, 東海大學出版會, pp. 124~127).

8) 呂氏曰 (중략) 各望祭 其方之山川(《예기》곡례 하)

9) 池田末利, 〈四望・山川考〉, 앞의 책, 1981, p. 147. 四望은 정기적인 제사인 것임에 반하여 제산천은 부정기적인 제사였다(池田末利, 위의 책, 1981, p. 148).

산천에 대한 제사라 할 수 있고[10] 산천은 소산천에 대한 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隋代에는 사망[사방]이 중사에, 제산천은 소사에, 唐代에는 악 · 진 · 해 · 독이 중사에, 산림 · 천택은 소사에 편제되어 있다. 앞의 사료 A의 제사지 신라조에 보이는 명산대천은 대 · 중 · 소사에 편제되어 있다. 이 중 대사와 중사에 속한 것은 대산천, 소사에 속한 것은 소산천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대산천인 사방[사망]은《주례》춘관 小宗伯의 '兆五帝於四郊四望四類亦如之' 에 보이는데, 鄭玄은 '五嶽 · 四鎭 · 四瀆'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11] 이로 볼 때 사방[사망]은 오악 · 사진 · 사독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사방[사망]제도가 성립할 때 海 역시 종교의례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사방[사망]에는 사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12] 사방[사망]인 오악, 사진, 사해, 사독과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C. 1) 以血祭祭社稷 五祀 五嶽 (玄謂 五嶽 東曰岱宗 南曰衡山 西曰華山 北曰恒山 中曰嵩高山)(《주례》춘관 대종백)

2) 四鎭 山之重大者 謂揚州之會稽 青州之沂山 幽州之醫無閭 冀州之霍山 五嶽 垈在袞州 衡在荊州 華在豫州 嶽在雍州 恒在幷州(釋曰鄭知四鎭山之重大者 以職方九州 州各有鎭山 皆曰其大者 以爲一州之鎭 故云山之重大者也 但五州五鎭 得入嶽名 餘四州 不得嶽名者 仍依舊爲鎭號 故四鎭也)(《주례》춘관 대사악 注)

3) 天下大水四 謂之四瀆 江河淮濟是也 瀆 獨也 各獨出其所而入海也

10) 池田末利, 위의 책, 1981, pp. 142~143.

11)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國有大故 則旅上帝及四望(鄭司農云四望日月星海 玄謂四望五嶽四鎭四瀆)(《주례》춘관 대종백)

12) 池田末利, 앞의 책, 1981, pp. 142~143.

(《釋名》釋水)

江河淮濟爲四瀆 四瀆者 發源注海者也(《爾雅》 釋水)

4) 邦畿千里 維民所止 肇域彼四海(《詩》 商頌(玄鳥))

九夷 八狄 七戎 六蠻 謂之四海(《爾雅》 釋地)

위의 사료를 보면 오악은 중국에서 9주의 鎭으로 된 대산 중에서 숭상하던 다섯 방위의 명산임을 알 수 있다.[13] 사진은 중국에서 구주의 진으로 된 대산 중에서 5주의 진, 즉 오악을 제외한 나머지 4주의 명산, 대산이다.[14] 사독은 대하, 대천으로 각각 발원해 바다로 흘러간다.[15] 그리고 사해는 四方을 말하는 것으로, 四夷를 포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1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 진, 해, 독은 각 방향을 대표하는 주요한 산, 강과 바다에 대한 제사로, 오악과 사진은 대산에 대한 제사이고 사해와 사독은 대천에 대한 제사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신라 중사에 포함되어 있는 오악과 사진, 사해와 사독은 각각 대산과 대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해, 사독이 대천이라면, 후술되는 井(淵)·川(泉)은 소천

---

13) 錢玄, 錢興奇 編著,《三禮辭典》, 江蘇古籍出版社, 1998, p. 171.
華夫主 編,《中國古代 名物大典》(上), 濟南出版社, p. 186.

14) 錢玄, 錢興奇 編著, 위의 책, 1998, p. 134.
華夫主 編, 위의 책, p. 187.

15) 錢玄, 錢興奇 編著, 위의 책, 1998, p. 283.
華夫主 編, 위의 책, p. 224.

16) 華喚南, 〈歷史語境中的王朝中國疆域概念辨析-以天下·四海·中國·疆域·版圖爲例〉,《中國邊疆史地研究》16卷 2期, 2006, p. 13. 그리고 정구복 외 4인, 앞의 책, 1997, p. 24에서는 중국에서 夷狄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王化가 미치는 사방의 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17)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참고된다.
以血祭祭社稷五祀五嶽 以貍沈祭山林川澤 以疈辜祭四方百物(《주례》 춘관 대종백)
四坎壇祭四方也 山林川谷丘陵 能出雲爲風雨 見怪物 皆曰神(《예기》 제법)

이라고 할 수 있다.[17]

이 중 대천제사인 사해와 사독제사를 사료 A에서 보면 사해는 동해 아등변, 남해 형변, 서해 미릉변, 북해 비례산, 사독은 동독 토지하, 남독 황산하, 서독 웅천하, 북독 한산하라고 한다. 우선 사해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동해 아등변 혹은 근오형변[18]이 있는 퇴하군은 양주 의창군의 옛 지명으로,[19] 지금의 경북 포항시 흥해이며 아등변은 이곳과 가까운 해변가로 여겨진다. 남해 형변[20]이 있는 거칠산군은 양주 동래군의 옛 지명으로,[21]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이며 형변은 이곳과 가까이에 있는 해안가로 생각된다. 서해 미릉변[22]이 있는 시산군은 전주 임피군의 옛 지명으로,[23] 현재 전북 군산시이며 미릉변은 이곳과 가까운 해안가이다. 북해 비례산[24]이 있는 실직군은 명주 삼척군의 옛 지명으로,[25] 현재

---

18) 《삼국사절요》 선덕왕 4년에는 近烏兄邊으로 되어 있다.
阿等邊 一云斤烏兄邊 新羅祀東海神于此載中祀(《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이라 함)22, 흥해군 고적)
阿等邊 一云斤烏兄邊 新羅以東海載中祀 係退火郡(《대동지지》7, 흥해 단유)

19) 義昌郡 本退火郡 景德王改名 今興海郡 領縣六(《삼국사기》34, 잡지4, 지리1(양주)).

20) 兄邊部曲 在縣南海岸 新羅祀南海神于此載中祀(《승람》23, 동래현 고적)
兄邊部曲 新羅祀南海神于此載中祀 至高麗廢 (《대동지지》7, 동래 단유)

21) 東萊郡 本居漆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甑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34, 잡지4, 지리1(양주))

22) 《승람》34, 임피현조에는 보이지 않는다.
未陵邊 新羅以西海載中祀 高麗廢(《대동지지》11, 임피 단유)
《문헌비고》단묘조에 來陵邊은 신라 때에 서해의 중사로 모셨는데 고려 때에 폐했다고 한다.

23) 臨陂郡 本百濟屎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咸悅縣 本百濟甘勿阿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沃溝縣 本百濟馬西良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澮尾縣 本百濟夫夫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36, 잡지5, 지리3(전주))
本百濟屎山郡(一云陂山 一云忻文 一云所島 一云失鳥出) 新羅改今名(《승람》34, 임피현 건치연혁)
本百濟屎山(一云陂山 一云所島) 新羅景德王十六年改臨陂郡(領縣三 沃溝澮尾咸悅) 隸全州(《대동지지》11, 임피 연혁)

24) 《승람》삼척도호부의 산천조, 고적조, 사묘조에는 보이지 않는다.
非禮山 新羅祀典云在悉直郡 以北海載中祀 今未詳(《대동지지》16, 삼척 단유)

의 삼척시이나, 비례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26] 그리고 사독 중 퇴하군에 있는 동독 토지하는 참포라고도 하는데,[27] 현재의 포항시 흥해읍의 곡강이라고 한다.[28] 남독 황산하[29]가 있는 삽량주는 양주의 옛 지명으로,[30] 현재의 경남 양산시이며 황산하는 낙동강이다.[31] 서독 웅천하[32]가 있는 웅천주는 웅주의 옛 지명으로,[33] 웅천하는 현재 충남 공주시 일대를 흐르는 금강이고,[34] 북독 한산하[35]가 있는 한산주는 한주의 옛

25) 三陟郡 本悉直國 婆娑王世來降 智證王六年 梁天監四年爲州 以異斯夫爲軍主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四 竹嶺縣 本高句麗竹峴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滿卿(一作鄕)縣 本高句麗滿若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羽谿縣 本高句麗羽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海利縣 本高句麗波利縣 景德王改名 今未詳(《삼국사기》35, 잡지4, 지리2(명주))

26) 《승람》삼척도호부 사묘조에 보이는 大天王寺(近山祠)로 보기도 한다(정구복 외 4인, 앞의 책, 1997, p. 25). 사해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김창겸, 앞의 논문, 2007, pp. 162~167 참고.

27) 槧浦 一云吐只河 新羅東瀆載中祀 疑卽曲江也 新羅神德王四年 槧浦水與東海水相擊浪高二十丈許 三日而止(《승람》22, 흥해군 고적)
槧浦 一云吐只河 新羅以東瀆載中祀 今曲江(《대동지지》7, 흥해 단유)

28) 曲江 在郡東七里 源出慶州神光縣馬北山 北流過郡北東流至孤靈山下入海(《승람》22, 흥해군 산천)
曲江 東七里 出慶州馬北山 南流至郡北爲北川東流至孤靈山下爲曲江入于海(《대동지지》7, 흥해 산수)

29) 加耶津祠 祀典與公州熊津俱爲南瀆載中祀 每歲降香祝以祭 赤石龍堂 在郡南二十二里 高麗稱伽倻津衍所本邑致祭(《승람》22 양산군 사묘)
加耶津壇 南二十二里 新羅稱黃山河 高麗稱加耶津衍 而本朝土民稱亦石龍壇並以南瀆載中祀(《대동지지》7, 양산 단유)

30) 良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歃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梁州 領縣一 巘陽縣 本居知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34, 잡지3, 지리1(양주))

31) 黃山江 在郡西十八里 新羅爲四瀆之一 載中祀(《승람》22, 양산군 산천)
黃山江 西二十里 卽洛東江下流 古稱黃山河 爲新羅加耶兩國之界(《대동지지》7, 양산 산수)

32) 熊津祠 在熊津南岸 新羅載西瀆 本朝爲南瀆載中祀 春秋降香祝致祭(《승람》17, 공주목 사묘)
熊津壇 新羅以西瀆載中祀 高麗及本朝俱以南瀆載中祀(《대동지지》5, 공주 단유)

33) 熊州 本百濟舊都 唐高宗遣蘇定方平之 置熊津都督府 新羅文武王取其地有之 神文王改爲熊川州 置都督 景德王十六年 改名熊州 今公州 領縣二 尼山縣 本百濟熱也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景德王改名 今新豐縣(《삼국사기》36, 잡지5, 지리3(웅주))

34) 錦江 本熊川河(하략)(《대동지지》5, 공주 산수)

35) 漢江壇 在北岸 每春秋致祭(《승람》3, 한성부 사묘)
漢江壇 中瀆壇 新羅以北瀆載中祀 以上中祀(《대동지지》1, 한성부 단유)

지명으로,[36] 한산하는 한강[37]이다.

이러한 사해 · 사독은 신라의 동 · 서 · 남 · 북 사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8] 여기의 동 · 서 · 남 · 북은 삼국시대의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의 그것이다. 그리고 사해와 사독은 통일신라의 사방관념, 영역관념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오악, 사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오악은 서악인 계룡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소백산맥 일대와 그 동남쪽에 있는 산악들이고,[39] 사진은 사해, 사독과 함께 신라 외곽 지대로 국토의 주위를 둘러가며 국경을 이루고 있는 형상이다.[40] 이들이 신라 9주에 분포된 모습을 〈표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오악, 사진, 사해, 사독의 9주 분포도

		新 羅					高 句 麗				百 濟				未詳	
		王都	尙州	良州	康州	합계	漢州	朔州	溟州	합계	熊州	武州	全州	합계		총계
中祀	五岳	1		1	1	3		1		1	1			1		5
	四鎭			1		1		1		1	1			1	1	4
	四海			2		2			1	1			1	1		4
	四瀆			2		2	1			1	1			1		4
총계		1		6	1	6	1	2	1	4	3		1	4	1	17

36) 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幷之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巨黍縣 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 今龍駒縣(《삼국사기》35, 잡지4, 지리2(한주))

37) 漢江 在木覓山南 古稱漢山河 新羅時爲北瀆在中祀(《승람》3, 한성부 산천)

38) 이것은 중국 제사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의 사해와 사독, 오악과 사진의 명칭과 제사 장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通典》예6, 연혁6, 길례5, 산천조 참고).

	東	南	中	南	北
五嶽	岱山(兗州)	衡山(衡州)	嵩山(洛州)	華山(華州)	恒山(定州)
四鎭	沂山(沂州)	會稽山(越州)		吳山(隴州)	北無醫閭山(營州)
四海	東海(萊州)	南海(廣州)		大河(同州)	大濟(洛州)
四瀆	大淮(唐州)	大江(益州)		大河(同州)	大濟(洛州)

39) 이기동, 〈신라의 풍토와 그 역사적 특성〉,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97, 《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85, p. 18.

40)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pp. 318~319.

위의 〈표1〉을 보면 사해와 사독, 오악과 사진이 9주에 분포되어 있다. 9주는 삼국통일 이전부터 정비되다가, 삼국통일 후 신문왕 5년(685)에서 7년에 걸쳐 완산주를 신설하고 거열주, 사비주, 발라주, 일선주 등의 주치를 이동함으로써 9주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한다.[41] 그리고 제사지 신라조의 제사 대상들이 대 · 중 · 소사에 편제된 것은 신문왕대 새로 정비되는 주 · 군 · 현제와 관련이 있으며[42] 중사 중 속리악 이하 청해진 등 6곳과 소사 중 상악과 동로악을 제외하고는 신문왕 5년 이후부터 성덕왕 34년 이전에 제사지 신라조의 명산대천들은 대 · 중 · 소사에 편제되었다고 한다.[43] 특히 신문왕 6년 〈길흉요례〉의 수용은 이것의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짐작되며, 사해와 사독, 오악과 사진이 중사에 편제되어 완비된 것은 이 시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중사의 기본인 오악 · 사진 · 사해 · 사독은 동 · 서 · 남 · 북이라는 방위관념이 전제되어 있고 또 신라가 구백제 지역을 3주로, 구고구려 지역을 3주로 고루 편제한 데서 나온 조처라고 보았다.[44] 그런데 중사에 속한 명산대천 중 오악에는 구신라 지역이 3곳, 구고구려 · 구백제 지역은 각각 1곳, 사진 · 사해 · 사독의 경우 구신라

---

41) 春 復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 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湌福世爲摠管(《삼국사기》8, 신라본기8, 신문왕 5년)
二月 置石山馬山孤山沙平四縣 以泗沘州爲郡 熊川郡爲州 發羅州爲郡 武珍郡爲州(《삼국사기》8, 신라본기8, 신문왕 6년)
三月 罷一善州 復置沙伐州 以波珍飡官長爲摠管(《삼국사기》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42) 濱田耕策은 명산대천의 소재지의 표기가 주 · 군명인 것이 대부분이고 소사에는 縣名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착안해서 대 · 중 · 소사의 편성은 군현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旬沫集》4, 1984, p. 155).

43) 채미하, 앞의 논문, 2007, pp. 238~240 : 앞의 책, 2008.

44) 노중국, 앞의 논문, 1988, p. 133 및 p. 136.

45) 4진 중 東鎭 溫沫慤은 牙谷停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곳은 구신라 지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역에는 각각 2곳,[45] 구고구려 · 구백제 지역은 각각 1곳이 포함되어 있다. 즉, 중사에는 구신라 지역이 9곳, 구고구려 지역과 구백제 지역은 각각 4곳으로, 구신라 지역의 명산대천이 구고구려 · 구백제 지역의 것에 비해 배가 된다. 이로 볼 때 중사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원신라 중심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당시 지배층의 한계라고 하였다.[46]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당시 신라 지배층이 오악과 사진을 비롯하여 사해와 사독을 편제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신라 중대왕실과 사해 · 사독제사

다 알다시피 명산대천은 각 지역의 鎭山으로, 신라가 명산대천을 대 · 중 · 소사로 편제한 것은 정치세력의 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특히 오악은 신라에 새로 편입되는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라가 주위의 여러 국가들을 흡수 정복해 가는 과정의 산물이었다고 한다.[47] 그리고 청해진은 장보고 세력과 관련을 갖고 있어 중사에 편제된 것으로 여겨진다.[48] 그러하다면 사해와 사독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사해 중 동해 아등변이 있는 퇴하군은 양주 의창군의 옛 지명인

46) 채미하, 앞의 논문, 2007, pp. 245~249 : 앞의 책, 2008. 한편 김창겸은 앞의 논문, 2007, pp. 168~169에서 삼국통일을 완수하기 이전의 왕경 경주를 중심으로 한 사방의식에서 사해를 편제하였다고 보았으며, 그것의 편제는 교통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47) 이기백, 앞의 책, 1974, pp. 204~205.

48) 채미하, 앞의 논문, 2005, pp. 49~52 : 앞의 책, 2008 참고.

데, 양주 의창군의 영현의 하나로 음즙화현이 있다. 음즙화현은 음즙벌국과 관련이 있으며 음즙벌국은 파사왕대 신라에 편입되었다.[49] 남독 형변이 있는 거칠산군은 거칠산국과 관련 있을 것이다. 거칠산국은 탈해왕대 신라에 편입되었다고 한다.[50] 북해 비례산은 실직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직국과 관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비고》에 보이는 갈야산이 실직국의 고성이 아닐까 하는데,[51] 실직국은 파사왕 23년(102)과 25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52] 이로 볼 때 아등변과 형변, 비례산은 음즙벌국과 거칠산국, 실직국과 관련된 지역 세력의 편제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서해 미릉변은 현재 전북 군산시에 있다. 이것은 구백제 지역으로, 구백제 세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53] 사독 중 동독 토지하는 잘 알 수 없으나, 남독 황산하가 신라에 편제된 것은 금관가야가 신라에

---

49) 義昌郡 本退火郡 (중략) 音汁火縣 婆娑王時取音汁伐國 置縣 今合屬安康縣(《삼국사기》34, 잡지 3, 지리1(양주))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湌爲主 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삼국사기》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

50) 古菨山國(或云萊山國) 新羅取之 置居漆山郡 景德王改今名(《승람》23, 동래현 건치연혁)
本居漆山國(一云菨山國古址在府東十里) 新羅脫解王二十三年取之 置居漆山郡 景德王十六年改東萊郡(領縣二東平機張) 隸良州(《대동지지》7, 동래 연혁)

51) 悉直國 : 파사왕 23년에 실직국이 와서 항복하였다.《輿地志》에 이르기를, "실직국은 지금의 三陟府이다. 부의 북쪽 葛夜山 위에 古城이 있고, 성주에 옛 우물이 있는데 실직국 때의 우물이라고 대대로 전해온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14, 여지고2, 역대국계2(신라국 · 실직국).

52) 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삼국사기》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5년)
本悉直國 新羅婆娑王時來降 智證王六年置悉直州軍主 景德王改今名爲郡(《승람》44, 삼척도호부 건치연혁)
本辰韓之悉直國(一云悉直谷國) 新羅婆娑王二十三年來降 智證王六年置悉直州軍主(以金異斯夫爲軍主) 後置悉直停 武烈王五年罷停爲北鎭 文武王元年改摠管 元聖王元年稱都督 景德王十六年改三陟郡(《대동지지》16, 삼척 연혁)

53) 김창겸은 앞의 논문, 2007, p. 180에서 신라 사해의 성립은 국가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영역확장과 영토의식의 확립에 따른 사방 교통로의 설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편입된 시기가 아닐까 한다.[54] 서독 웅천하는 통일 이후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구백제 세력을, 북독 한산하는 진흥왕 이후 신라 영토에 편제되어 구고구려 세력의 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대사인 삼산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에 위치하고 있어 왕경을 보호하고, 중사는 국토를 방호하는 것으로, 소사의 24곳은 각 지역을 방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55] 특히 신라 사해의 성립은 국가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영역확장과 영토의식의 확립에 따른 사방 교통로의 설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56] 그리고 필자는 신라 중대왕실이 명산대천만으로 대 · 중 · 소사를 편제한 이유는 신라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 세력을 편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각 지역에서 행해졌던 명산대천제사는 그 지역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였고 또한 그 지역 세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신라 중대왕실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행해졌던 명산대천제사를 당의 국가제사체계를 수용하여 정비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 중대왕실은 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57] 사해와 사독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

54)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삼국사기》4, 신라본기4, 법흥왕 19년)

55) 이기백,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33, 1972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p. 195 ; 노중국, 〈통일기 신라의 백제고지지배〉, 《한국고대사연구》1, 지식산업사, 1988, p. 133 및 p. 136 ; 최광식, 앞의 책, 1994, p. 319.

56) 김창겸, 앞의 논문, 2007, pp. 169~180.

57) 채미하, 앞의 논문, 2007, pp. 240~242 : 앞의 책, 2008. 신라 대 · 중 · 소사의 모든 제사는 일정한 씨족 혹은 세력의 연고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단순한 제사상의 문제를 넘어서 신라 사회의 중앙집권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여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p. 95). 그리고 浜田耕策은 신라의 명산대천제사는 왕경과 지방의 지배조직을 근거로 편제되었는데, 그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역집단의 정치적 힘의 성장을 제사편제를 통해 인정하였다고 한다. 즉

다음은 유교의 산천제사 규범이다.

D. 1) 天子祭天下名山大川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 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地者 (《예기》 왕제)

2) 天子祭天地 · 祭四方 · 祭山川 · 祭五祀 歲徧 諸侯方祀祭山川 · 祭五祀 歲徧(《예기》 곡례 하)

위의 사료 1)에 따르면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을 제사하는데,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 오악과 사독으로 구분해 삼공과 제후에 비견하며, 제후는 경내의 산천에 제사한다는 것이다. 2)에서는 천자는 천지, 사방, 산천, 오사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方祀하며 산천과 오사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여기의 사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악, 사진, 사해, 사독을 말한다. 그리고 方祀는 "非所居之方及山川不在境內者皆不得祭"인 것으로 미루어, 자기 영토내의 방향과 산천에만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58] 이로 볼 때 해 · 독과 악 · 진에 대한 제사는 천자국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제후국은 그것에 대한 제사를 삼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5악과 4독에 대한 제사가 정식으로 국가제사에 편입되어 상례화된 것은 漢 神爵 원년(기원전 61)으로, 태산과 황하의 제사는 매년 5차례, 江水는 매년 4차례, 그 밖의 것은 3차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규

대 · 중 · 소사제는 군현을 단위로 한 제사집단과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앞의 논문, 1984, p. 157).

58) 方祀者 各祭其方之官而已 (중략) 此蓋殷時制也(《예기》 곡례 하)
呂氏曰 (중략) 諸侯有國 國必有方 祭其所居之方而已 非所居之方及山川不在境內者 皆不得祭 故曰方祀(《예기》 곡례 하)

정되었다.[59] 그리고 수대에는 사진, 사해, 사독에 대한 제사가, 당대에는 오악, 사진, 사해, 사독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60] 신라의 경우 사해와 사독, 그리고 오악과 사진에 대한 제사가 중사에 편제되어 있다. 고려의 경우는 악, 해, 독에 대한 제사가 잡사에 편제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악, 해, 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 嶽海瀆(智異山全羅道南原南 三角山漢城府中 松嶽山開城府西 鼻白山永吉道定平北 東海江原道襄州東 南海全羅道羅州南 西海豊海道豊川西 熊津忠淸道燕岐 伽倻津慶尙道梁山 已上南 漢江漢城府中 德津京畿臨津 平壤江平安道平壤府 鴨綠江平安道義州 已上西 豆滿江咸吉道慶源)(《세종실록》128, 오례, 길례서례(변사))

여기에 따르면 조선은 오악이 아닌 4악을 두고 사진을 두지 않았으며 3해와 7독을 설치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악, 해, 독은 4악, 3해, 7독체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의 실정에 맞춰 그것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천자국의 산천규범에도 벗어난 것이었다.[61]

그런데 신라는 조선과는 달리 사해와 사독은 물론이고 오악, 사진을

59) 《漢書》郊祀志(下), p. 1249. 김상범,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2005, p. 44 참고.

60) 隋制 祀四鎭 東鎭沂山 西鎭吳山 南鎭會稽山 北鎭醫無閭山(在東夷中 遙祀) 冀州鎭霍山 並就山立祠 祀四海 東海於會稽縣界 南海於南海鎭南 並近海立祠 及四瀆 並取側近巫一人 主知灑掃 並令多植松柏 大唐武德貞觀之制 五嶽四鎭四海四瀆 年別一祭 各以五郊迎氣日祭之 東岳岱山祭於兗州 東鎭沂山祭於沂州 東海於萊州 東瀆大淮於唐州 南岳衡山於衡州 南鎭會稽山於越州 南海於廣州 南瀆大江於益州 中岳嵩山於洛州 西岳華山於華州 西鎭吳山於隴州 西海及西瀆大河於同州 北岳恒山於定州 北鎭醫無閭山於營州 北海及北瀆大濟於洛州 其牲皆用太牢 祀官以當界都督刺史充(《通典》예6, 연혁6, 길례5, 산천)

61)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pp. 145~146.

두어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히 신라의 사해 중 북해는 나머지 3해와는 달리 산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실용적으로 3해만을 설치하고 있다. 신라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사해와 사독, 오악과 사진이라는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천은 分封되었다. 분봉의 사상적 기원은《書經》舜典에 "封十有二山"에서 알 수 있으며,《예기》왕제편의 "天子祭天下名山大川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당 측천무후는 洛水神을 顯聖侯로, 嵩山神을 嶽天中王으로 봉하고 있다.[62] 이로 보면 산천에 대한 분봉은 당 측천무후로부터였던 것 같다.[63] 그리고 先天 2년(713)과 開元 13년(725)에 華岳神을 金天王으로 泰山神을 天齊王으로 봉하고, 天寶 5년(746)과 10년에는 오악과 사해의 신을 모두 王으로 봉하였고 사진·사독은 公으로 봉하였다.[64] 또한 당에서는 일찍부터 동해신을 光德王, 남해신은 廣利王, 서해신을 廣潤王, 북해신을 光澤王이라 하여 사해신으로 삼아 봉사하고 제관으로 그 곳의 도독이나 자사로 임명하기도 하였다.[65]

신라의 경우는 다음이 주목된다.

---

62) (則天)武后垂拱四年 封洛水神爲顯聖侯 享齊於四瀆 封嵩山爲神嶽天中王(하략)(《文獻通考》83, 郊社考16, 祀山川)

63) 김태영,〈조선초기 사전의 성립에 대하여〉,《역사학보》58, 1973, 註39 참고.

64) 先天二年 封華岳神爲金天王 開元十三年 封泰山神爲天齊王 天寶五載 封中岳神爲中天王 南岳神爲司天王 北岳神爲安天王 六載 河瀆封爲靈源公 濟瀆封爲清源公 江瀆封爲廣源公 淮瀆封爲長源公 會稽山爲永興公 岳山爲成德公 霍山爲應聖公 醫無閭山爲廣寧公 八載閏六月 封太白山爲神應公 其九州鎭山 除入諸岳外 並宜封公 十載正月 以東海爲廣德王 南海爲廣利王 西海爲廣潤王 北海爲廣澤王 分命卿監詣岳瀆及山 取三月十七日 一時備禮 兼册祭 儀具開元禮(《通典》예6, 연혁6, 길례5, 산천)

65)《文苑英華》879(《韓昌黎集》31, 南海神廟碑)

F. 1) 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跣川丘中 後有神詔 愼埋葬我骨 (중략) 碎爲塑像 安闕內 神又報云 我骨置於東岳 故令安之[一云 崩後二十七世 文虎王代 調露二年庚辰三月十五日辛酉 夜見夢於太宗 有老人貌甚威猛 曰我是脫解也 拔我骨於跣川丘 塑像安於土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絶 卽東岳神也云](《삼국유사》 1, 기이1, 제4탈해왕)

2) 王崩 水葬未召跣川丘中 塑骨安東岳 今東岳大王(《삼국유사》 1, 왕력1, 제4탈해이질금)

위의 사료에서 탈해의 소상이 토함산에 안치되어 동악신이라 불리었다고 한다.(1) 또 그것이 '동악대왕' 이라 불리기도 하였다(2). 사료의 '至今' , '今' 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대왕' 을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신라의 남악 지리산과 중악 공산의 산신도 고려시대 대왕으로 호칭되고 있다.[66] 그런데 다음이 관심을 끈다.

G. 夏夜夢 月嶽神官來請 及曉 慈仁禪師 致書云 月光寺者 神僧道證所刱也 昔我太宗大王 (중략) 永除ㅁㅁ之災 別封此山 表元勳也 曾錄於金剛 又傳名於仙記(〈月光寺圓朗禪師塔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3권)

위의 사료에서 월악산신을 月嶽神官이라 표현한 것은 월악산신에 대한 봉작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무열왕대로 나온다. 이로 본다면 신라에서는 무열왕대 봉작을 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67] 그렇지만

66) 고려시대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38, 道場齋醮祭文에 智異山大王前願文 · 祭公山大王文 · 獻馬公山大王文 · 公山大王謝祭文이 실려 있다.

67)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2003, 지식산업사.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에서는 당 측천무후 때부터 봉작이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에서의 대왕 봉작은 산신을 모시는 사당의 설치[68]와 함께 오악이 성립할 때 있었는데,[69] 오악의 성립은 신라 영토가 확대되고 통일을 성취한 뒤인 문무왕 말년 혹은 신문왕대라고 한다.[70] 또한 신라에서 오악과 사진, 사해, 사독으로 산천제사가 정비된 것은 신문왕 6년 〈길흉요례〉 수용 이후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에서 산천에 대한 분봉은 신문왕 6년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각 산천신을 분봉한다는 것은 분봉을 하는 천자나 제후가 산천신보다 그 지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천신을 분봉하는 이유는 각각 달랐다.[71] 고려의 경우 비록 명산대천이 잡사에 편제되어 있지만,

---

68) 이기백, 앞의 책, 1974, p. 209. 오악에는 각기 산신이 있었고, 이 산신들을 彫像하여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산신을 모시는 聖母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신라의 오악이 성립할 때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기백, 위의 책, 1974, pp. 208~209). 신라의 山川神祠로 仙桃山 神母祠(中國 帝室王女 婆蘇), 雲悌山 聖母祠(南解王妃 雲悌夫人), 伽倻山 聖母祠(伽倻國王妃 正見王后), 地理山 聖母祠(高麗 太祖 太祖母), 雉述嶺 神母祠(朴堤上 妻), 東岳 神祠(脫解王), 胎靈山 神祠(金庾信)가 있는데, 산신이 인격신일 때 신사를 세웠다고 한다(김영진, 《한국자연신앙연구》, 민속원, 1985, pp. 68~69). 한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祠廟에서 제사지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北魏 시대 이후로 추정하고 있고, 당대에 국가제사 차원에서 사묘에서 드리는 산천제사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것은 무측천정권의 성립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상범, 앞의 책, 2005, p, 46 및 p. 48). 그리고 《위서》 예지의 기록에 의하면 泰常 3년(418)에 수도 부근의 祭地에 5악 4진을 제사하는 廟宇가 국가주도로 건립되었고 지방에도 현지 자연신을 제사드리는 324개 소의 묘우가 지정되었다. 또한 太延 원년(435)에 이르면 국가의 명의로 恒嶽 · 華嶽 · 嵩嶽 등 5악신의 소재지에도 사묘가 세워졌다고 한다(《魏書》108, 禮志1, pp. 2737~2738).

69) 문경현,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12), 1992, p. 35. 한편 서술신모에게 대왕의 봉작을 한 사실도 있다. 第五十四代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삼국유사》5, 감통 7, 선도성모수희불사) 곧 경명왕은 西述神母의 영험으로 잃었던 매를 찾자, 서술신모에게 대왕의 봉작을 올리고 있다.

70) 이기백, 앞의 책, 1974, p. 207.

각 명산대천에 대해 봉호를 내리고 있다. 加號는 목종 즉위년(997) 국내 신들에게 勳號를 사여한 이래[72]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신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들에 대한 가호가 성종대 유교의례의 정비를 거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경내 신들에게 가호한 것은 성종대 유교적 통치이념의 정비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전국토가 왕의 領地에 속한다고 하는 왕토의식의 관념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73] 그리고 고려 후기 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명산대천에 대한 봉작이 이루어지고 있다.[74]

이처럼 신라가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각 산천을 분봉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는 통일 이전 진덕왕 대부터 당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75] 통일 이후 중국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제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진덕왕대 전사서를 설치하고 있다. 전사서는 그 명칭상 제사와 관련 있는 관서로,[76] 주대의 典祀, 당 太常寺의 관할 관서인 郊社署에 비교되는 것으로 여길 수

71)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고려시대〈잡사〉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p. 130~139 :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2007, 경인문화사에 봉작의 이유에 대해 적고 있다.

72) 목종은 즉위년 12월에 "國內神祇 皆加勳號", 7년 11월에 "加方嶽州鎭神祇勳號"하였다. 그리고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은 즉위년 4월에 "群望神祇 加勳號"하였다.

73)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2, 1995, p. 191.

74) 김철웅, 앞의 논문, 2001, pp. 146~147.

75)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176, 2002 : 앞의 책, 2008 참고.

76) 典祀署 屬禮部 聖德王十二年置 監一人 位自奈麻至大奈麻爲之 大舍二人 眞德王五年置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史四人(《삼국사기》38, 잡지7, 직관(상))

77) 채미하, 앞의 논문, 2002, pp. 43~44 : 2008, 앞의 책.

78)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pp. 495~496 ; 박순교, 〈신라 중대 시조존숭 관념의 형성〉,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pp. 387~388 및 pp. 392~393 ; 이문기,

있다.[77] 그리고 중국 제사제도인 오묘제의 수용은 무열왕대,[78] 문무왕대,[79] 신문왕대[80]로 보고 있다. 또한 신문왕 6년 〈길흉요례〉의 수용은 신라의 예제 수용, 특히 오례 수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81] 이처럼 중국제도, 그중 예제의 수용은 신라 중대왕실의 유교적 지배체제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유교적인 지배체제는 새로운 지배질서의 정비와 맞물려 있었다.

그러하다면 신라가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분봉한 것은 신라 중대왕실의 유교적인 지배체제 정비의 하나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 알다시피 제사지 신라조 찬자는《예기》왕제편을 들어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후는 그 땅의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고 하면서 신라는 예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비록 오악, 사진, 사해, 사독이 천자국의 산천규범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신라 경내의 산천이었다. 그러하다면 신라 중대왕실이 천자국의 산천규범인 오악 · 사진 · 사해 · 사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유교

〈신라 종묘제의 성립과 그 배경〉,《한국고대사와 고고학(김정학 박사 미수기념고고학 · 고대사 논총》, 2000.

79)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역사학연구》10, 전남대학교사학회, 1981, p, 81 주) 41 ; 황운용, 〈신라 태종 묘호의 분규시말〉,《동국사학》17, 1982, pp. 11~13 ; 채미하, 앞의 논문, 2002 및〈신라의 오묘제 '시정' 과 신문왕권〉,《백산학보》70, 2004, pp. 267~275 : 앞의 책, 2008.

80) 변태섭, 〈묘제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역사교육》8, 1964, pp. 68~69 ; 浜田耕策,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 東アジアおける儀禮と國家》, 學生社, 1982, pp. 241~242 ; 신종원, 앞의 책, 1992, p. 87 ; 米田雄介, 〈三國史記に見える新羅の五廟制〉,《日本書紀研究》15, 塙書房, 1987, p. 317 ; 황선영, 〈신라의 묘제와 묘호〉,《동의사학》5, 1989, pp. 6~7 ; 강종훈, 〈신궁의 설치를 통해 본 마립간시기의 신라〉,《한국고대사논총》6, 1994, pp. 190~191 ; 나희라, 앞의 책, 2003, pp. 173~175. 그런데 신문왕 7년 4월 기사가 신라 오묘제 시정의 하한을 알려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이문기, 앞의 논문, 2000, p. 893). 그리고 신라에서 오묘제가 시정된 것은 신문왕대가 처음이며, 제도화된 것은 혜공왕대로 보기도 한다(최광식, 앞의 책, 1994, p. 336).

81) 채미하,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오례 수용을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27, 2006b, pp. 127~133.

의 산천규범의 수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신라 중대왕실은 유교적 지배체제 정비를 통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꾀하려고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교의 산천규범,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따른 것이라고 헤아려지는 것이다.

4. '大川' 제사의 의미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공간적으로 다른 장소와는 달리 질적 차이를 내포하며 신성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제장은 신성성이 내포될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 선택된다.[82] 고대인들은 산림, 천택, 구릉, 계곡이 모두 신적인 존재가 거주하는 곳으로 믿었고, 그 곳이 곧 제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였다.[83] 신라의 삼산 · 오악 이하 명산대천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84]

이 중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생명 자체도 근원적으로는 물에서 발생한 것이다.[85] 따라서 井, 淵, 泉(川), 江(河), 海의 물은 여성적 생명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6] 주

82)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p. 85~86.

83) 금장태, 위의 책, 1994, pp. 218~220.

84) 채미하, 앞의 논문, 2006a, p. 40 : 앞의 책, 2008.

85) 淵者 衆物之所生也 能深而不涸 則沈玉至 主者人之所仰而生也 能寬裕純厚 而不苛忮 則民人附 父母者子婦之所受 教也 能慈仁教訓 而不失理 則子婦孝 臣下者 主之所用也 能盡力事上 則當於主 子婦者親之所以安也 能孝悌順親 則當於親 故淵涸而無水 則沈玉不至 主苛而無厚 則萬民不附 父母暴而無恩 則子婦不親 臣下隨而不忠 則卑辱困窮 子婦不安親 則禍憂至 故淵不涸 則所欲者至 涸則不至 故曰淵深而不涸 則沈玉極(《管子》20, 刑勢解64)

몽신화에서 하백의 딸이 웅심산 아래 압록강에서 살며, 여기서 천제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이나,[87] 박혁거세신화에서 나정 곁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어 혁거세가 나온 알을 발견하게 되고 혁거세의 부인도 알영정에서 나온 계룡으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88]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89]

그리고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것의 변화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관심을 끈다.

H. 1) 春三月 東海邊獲大魚 有角 其大盈車 夏五月 吐含山崩 泉水湧 高三丈(《삼국사기》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15년)

2) 公州基郡江中 大魚出死 長百尺 食者死(《삼국사기》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6년)

3) 秋七月 東海水血色 五日復舊 九月 東海水戰 聲聞王都 兵庫中鼓角自鳴(《삼국사기》8, 신라본기8, 효소왕 8년)

4) 夏四月 槧浦水與東海水相擊 浪高二十丈許 三日而止(《삼국사기》12, 신라본기12, 신덕왕 4년)

위 사료에서 우선 1)을 보면 토함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다 알다시피 토함산의 붕괴는 실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석씨 세력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불어 샘물이

86) 금장태, 앞의 책, 1994, pp. 76~77.

87) (상략)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 私之而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于此(하략)(《삼국유사》1, 기이1, 고구려)

88) 《삼국유사》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와 《삼국사기》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 즉위년 및 5년 참고.

89)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06a, pp. 40~41 : 앞의 책, 2008.

솟아 오른 것 역시 이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에 보이는 공주 기군에 있는 강은 현재 충남 서산군 일대를 흐르는 강으로, 이곳에 있는 대어가 죽었다는 것은 660년 백제 멸망과 관련된 어떤 징조가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에는 현경 4년(659) 5월에 "泗沘(夫餘江名)岸 大魚出死 長三丈 人食之者皆死"라고 나온다.[90] 3)에서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거나 동해물이 서로 맞부딪쳤다는 것은 효소왕 8년(699) 당시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정치 세력 간의 각축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4)에서 참포의 물과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쳤다는 것 역시 신덕왕대 정치 세력 간의 각축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처럼 물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그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물은 제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대정문은 사성문제의 제장 중 하나로, 대정의 '정'으로 보아 우물과 관련 있어 보인다. 청연[91]은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사제를 지낸 탁저는 사대도제의 서쪽 제장인 저수와 관련된 명칭이기도 하다. '저'는 물가 가운데 물길이 갈라지는 곳이나 모래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형은 서천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92] 일본 고대에도 하천 중류의 합류점이나 河中島에서 곡령신을 제사지낸 사례가 많다고 한다.[93] 전불칠처가람터의 하나인 사천미와 삼천기에 사찰이 건립되었다. 사천미에는 영묘사가 세워졌

90) 《삼국유사》1, 기이1, 태종춘추공.

91) 청연은 영묘사 남쪽에 있는 못으로, 오성제를 지냈다고도 한다(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의〉, 200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7). 그리고 p. 28에서 "청연은 영묘사가 이곳에 들어서기 전 원시적 제사지로서 중요시되던 전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청연의 중요성은 당연히 영묘사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며 영묘사는 신라의 국가적 제사터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그 성격을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92) 여호규, 〈신라도성의 공간구성과 왕경제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18, 2002, p. 63.

93) 和田萃, 〈古代の祭祀空間〉, 《祭祀空間儀禮空間》(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 1999, p. 170.

는데, 여기에는 玉門池라는 못이 있었다.[94] 이로 보아 사천미는 물에 가까운 습지였을 가능성을 말하여 준다.[95] 그리고 영흥사는 '세 물길이 모이는 곳' 이라는 삼천기에 건립되고 있다. 경주분지에서 삼천기라고 지칭할 만한 곳으로는 서천과 여러 하천의 합류지점을 들 수 있다.[96] 또한 황룡사, 분황사가 용궁의 남쪽과 북쪽에 두어졌다는데서, 여기의 용궁은 연못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97] 이처럼 영묘사,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는 원시신앙의 제사터로 물과 관련하여 못이 있었거나 아직도 못을 남기고 있다.[98] 특히 영묘사 남에서 오성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천미에 세워진 영묘사는 신라의 못, 개울에서의 제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찰로 존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대도제의 북쪽 제장인 활병기는 '기' 로 보아 갈림길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풍백제를 지낸 곳인 견수곡문의 견수는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곳은 지형상 '곡' 이면서 '천' 이 인접하고 있고, 성문이 위치한 지역[99]으로 추정된다.[100]

---

94) 《삼국유사》1, 기이1, 선덕왕지기삼사.

95) 신동하, 앞의 논문, 2000, pp. 26~28 ; 여호규, 앞의 논문, 2002, p. 50 참고.

96) 村上四男, 《三國遺事考證》(下之一), 塙書房, 1994, p. 49에서 옛날에는 북천이 남천 가까이에서 서천과 합류하였다면서 북천, 남천, 서천의 합류지점으로 설정하였다. 여호규, 위의 논문, 2002, pp. 50~51 참고.

97) 최근 분황사 동쪽 지역이 본래 舊北川의 河床임이 확인되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가스관매설지발굴조사〉, 《年報》5, 1995, pp. 41~5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발굴조사보고서》, 1996). 그리고 황룡사지 역시 저습지였음이 확인되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유적발굴보고서》, 1984, pp. 48~50). 이와 관련해서 여호규, 위의 논문, 2002, p. 52 참고.

98) 신동하, 앞의 논문, 2000, p. 28.

99) 여호규, 앞의 논문, 2002, p. 62 ; 윤선태, 〈신라 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금석문의 현황과 과제》(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23), 2002, pp. 113~114. 견수곡을 알천계곡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과 관련된 제장에서 지낸 제사의 성격은 다양하다. 사천상제는 후술될 것이고, 사성문제는 신라시대 수재와 관련된 제사로 여겨진다.[101] 그리고 우사는 비를 관장하는 신인 畢星이고 풍백은 바람을 관장하는 神인 飛廉 또는 箕星이다. 이로 볼 때 우사제와 풍백제는 농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성제는 五行의 精이라 일컫는 다섯 별, 즉 木星(歲星), 火星(熒惑星), 金星(太白星), 水星(辰星), 土星(鎭星)에 대한 제사이다.[102] 오성의 운동에 따라 나타나는 징조는 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국가나 왕실의 흥망, 군사행동의 승패 등을 예시하고 있어 유가의 五常이나 五事의 실천윤리와도 결부되어 있다.[103] 사대도제는 금성 4곳의 큰 길에서 지내는 제사로, 외방에서 침입하는 疫神을 쫓기 위한 邪鬼塞地의 신을 도로에서 祭饗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道饗祭와 비슷한 것[104]으로 여겨진다.[105]

---

100)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06a, pp. 41~42 및 pp. 43~44 : 앞의 책, 2008.

101) 한편 김동욱은 사성문제는 신라의 원초적 도성인 月城의 네 성문에 대한 제전으로, 외방에서 침입하는 疫神을 쫓기 위한 邪鬼塞地의 신을 궁성에서 祭饗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라의 제전〉, 《신라 민속의 신연구》(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4), 1983, pp. 31~32). 나희라, 앞의 책, 2003, p. 53에서 門祭는 문의 출입을 단속하면서 악한 기운을 막기 위한 주술적 제사로 중국 고대부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문신 신앙은 현재까지도 주요한 민속신앙의 하나라고 하였다.

102) 정구복외 4인, 《역주 삼국사기》4(주석편 하), 1997, p. 37

103) 이희덕, 《한국고대자연관과 왕도정치》, 혜안, 1999, pp. 33~38.

104) 김동욱, 앞의 논문, 1983, p. 32. 사대도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路祭는 곧 遣奠祭로서, 장례에서 發靷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祭式을 말한다. 신라의 道祭가 그러한 성격의 제사인지, 아니면 길 자체에 대한 제사인지는 알 수 없다(정구복 외 4인, 앞의 책, 1997, p. 37). 나희라, 앞의 책, 2003, p. 52에서 鬼魅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냈던 일본의 도향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윤선태,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목간의 재검토〉, 《동국사학》40, 2004, pp. 69~70에서 고대일본의 도향제로 볼 때 신라의 대도제도 왕경의 사방입구나 외곽도로에서 道神께 폐백을 올려 왕경으로 들어오는 역병 등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거행한 국가의례였다고 한다. 일본의 도향제에 대해서는 和田萃, 〈日本古代の儀禮と祭祀信仰〉(中), 塙書房, 1995, pp. 343~364 참고.

105) 이상과 관련해서는 채미하, 앞의 논문, 2006a, pp. 34~37 : 앞의 책, 2008.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I. 伊飡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 1) 夢脫幞頭 著素笠 把十二絃琴 入於天官寺井中 2)覺而使人占之 曰脫幞頭者 失職之兆 把琴者 著枷之兆 入井 入獄之兆 王聞之甚患 杜門不出 3) 于時阿飡餘三[或本餘山]來通謁 王辭以疾不出 再通曰 願得一見 王諾之 阿飡曰 公所忌何事 王具說占夢之由 阿飡與拜曰 此乃吉祥之夢 公若登大位而不遺我 則爲公解之 王乃辟禁左右 而請解之 曰脫幞頭者 人無居上也 著素笠者 冕旒之兆也 把十二絃琴者 十二孫傳世之兆也 入天官井 入宮禁之瑞也 王曰 上有周元 何居上位 阿飡曰 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4) 未幾 宣德王崩 國人欲奉周元爲王 將迎入宮 家在川北 忽川漲不得渡 王先入宮卽位 上宰之徒衆 皆來附之 拜賀新登之主 是爲元聖大王(《삼국유사》 2, 기이2, 원성대왕)

위의 사료에 따르면 김경신이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고(1) 이후 두문불출하였다고 한다(2). 이를 들은 여삼은 김경신이 천관사의 우물로 들어간 것은 대궐에 들어갈 조짐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를 위해 북천신에 대한 제사를 제안하고 있다(3). 북천신에 제사를 지낸 결과 김주원이 북천을 건너지 못하여 김경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4). 이처럼 김경신은 꿈에서 천관사 우물로 들어갔고, 북천신에 대한 제사를 통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것은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도 물은 담고 있는 공간을 신성시 여겨 두려워했고, 또한 그러한 장소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물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가 지니는 나름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해와 사독은 통일신라의 사방관념, 영역관

념과 밀접한 관련에서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었고 신라 중대왕실이 오악과 사진, 사해와 사독이라는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유교적 지배체제 정비의 일환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해와 사독제사가 신라 중대에는 중사에, 정·천을 제장으로 하는 것은 농경제사와 '별제'에 포함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강과 바다에 대한 제사가 일찍부터 있어 왔고[106]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선박과 항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관서인 선부서의 설치 및 그것의 개편[107]에서 알 수 있다.[108] 그리고 신라의 외연이 확대됨으로써 물과 관련된 제사 공간은 신라 초기 정·천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해·독으로 확장되어 갔을 것이다. 또한 해·독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는 정·천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한다.

사해와 사독제사는 다른 산천제사와 마찬가지로 수재나 한재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지냈다.[109] 중국 당의 경우를 보면 京師 지역에 한여름 이후에 가뭄이 있으면 먼저 北郊에서 악·진·해·독과 제산천에 기우제를 지내고 이어서 사직과 종묘에서 다시 제사를 올렸는데, 7일을 한 주기로 삼았다. 만약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악독을 시작으로 다시 제사를 드렸고, 가뭄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大雩禮를 거행하였다고

106) 春二月 東巡幸望海(《삼국사기》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3년)

107) 春正月 始置船府署 大監·弟監各一員(《삼국사기》4, 신라본기4, 진평왕 5년)
船府 舊以兵部大監·弟監 掌舟楫之事 文武王十八年別置 景德王改爲利濟府 惠恭王復故 令一人 位自大阿飡至角干爲之 卿二人 文武王三年置 神文王八年加一人 位與調府卿同 大舍二人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大舍 位與調府大舍同 舍知一人 景德王改爲司舟 惠恭王復稱舍知 位與調府舍知同 史八人 神文王元年加二人 哀莊王六年省二人(《삼국사기》38, 잡지7, 직관(상))

108) 채미하, 앞의 논문, 2005, p. 56 : 앞의 책, 2008.

109) 산천에 대한 제사는 한재나 수재 외에도 지진을 위시한 여타 엄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도 지내고 있다. (開元22年) 二月壬寅 秦州地震 (중략) 命尙書左丞相蕭嵩 往祭山川(《舊唐書》현종본기, p. 201). 이와 관련해서 김상범, 앞의 책, 2005, p. 47.

한다.[110] 다음은 고려시대 사료이다.

J. 有司奏 自春少雨 請依古典 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先祈岳鎭海瀆諸山川 能興雲雨者於北郊 次祈宗廟 每七日一祈 不雨 還從岳鎭海瀆如初 旱甚則修雩徙市斷繒扇禁屠殺 勿飼官馬以穀 王從之 避正殿 減常膳(《고려사》6, 정종 2년 5월 신묘)

위의 사료에 따르면 가뭄에 국왕은 먼저 백성을 구휼하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순서는 북쪽 교외에서 악·진·해·독과 모든 산천에, 다음으로 종묘에 7일마다 한 번씩 지냈다고 한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악·진·해·독부터 다시 제사를 지내야 했다. 만약 가뭄이 심하면 雩祭를 행하고, 시장을 옮기며 繒扇을 꺾고 도살을 금하며 관마를 먹이지 않는 것 등을 행하였다.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K. 禮曹上憂旱事宜 謹按文獻通考 及前朝詳定古今禮 倣隋唐古制 有曰凡京都 孟夏以後旱 則祈嶽岳鎭海瀆及諸山川 能興雲雨者於北郊 又祈社稷宗廟 每七日一祈 不雨 還從岳鎭海瀆如初 旱甚則修雩 初祈後一旬不雨 則徙市 禁屠殺 斷傘扇 造土龍 又古典 有旱則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修溝洫 淨阡陌等事 當依古典施行 從之(《태종실록》21, 태종11년 5월 20일(庚辰))

110) 京師孟夏以後旱 則祈雨 審理寃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先祈嶽鎭海瀆及諸山川 能出雲雨 皆於北郊望而告之 又祈社稷 又祈宗廟 每七日皆一祈 不雨 還從嶽瀆 旱甚 則大雩 秋分後不雩(《舊唐書》24, 지4, 예의4).《通典》120, 예80, 개원례찬류15, 길례12의 '時旱祈嶽鎭以下於北郊', '時旱就祈嶽鎭海瀆' 항목 및 다음도 참고. 後魏明元帝立五岳四瀆廟於桑乾水之陰 春秋遣有司祭 其餘山川諸神三百二十四所 每歲十月 遣祠官詣州鎭編祀 有水旱災厲 則牧守各隨其界內而祈謁 王機內諸山川 有水旱則禱之(《通典》46, 예6, 연혁6, 길례5, 산천)

위의 사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기우제는 악 · 진 · 해 · 독→산천→사직 · 종묘→우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성종대까지 대체적인 추세였고 실제로 악 · 해 · 독과 관련된 기사는 기우와 報祀의 시행이 대다수였다고 한다.[111]

그런데 고려의 경우 雩祭와 川上祭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112] 신라에도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오기를 비는 제사인 기우제가 혜수에서 행해졌다.[113] 수재나 한재 때 기청 · 기우를 드리던 제사인 사천상제는 犬首, 文熱林, 靑淵, 樸樹에서 행하여졌다.[114] 그렇지만 고려와 조선의 경우 기우제를 지낼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사지내는 곳이 악 · 진 · 해 · 독이었다. 그러하다면 신라 중대에도 고려 · 조선과 마찬가지로 해 · 독을 포함한 악 · 진에서 가장 먼저 기우제가 행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이것은 해 · 독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가 정 · 천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와 비교할 때 그 제사의 격이 높아졌음을

111) 한형주, 앞의 논문, 2000, p. 146.

112) 고려시대의 기우제는 雩祭와 천상제가 있었으며 가장 먼저 기우제가 행해졌던 곳은 악 · 진 · 해 · 독이었다. 기우처로는 태묘, 사직을 비롯해 사원과 악진, 해독 등으로 다양하였다. 특히 송악산, 동신당과 제신묘, 천상, 박연 등 5개 소는 가장 중요한 기우처로 여겨졌다(김철웅, 앞의 논문, 2001, p. 125). 그리고 천상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료가 참고된다. 靖宗元年五月甲辰 祈晴于川上 每水旱 祭百神於松岳溪上 號曰川上祭 (중략) 文宗五年十二月戊子 制 大雪之候 雪不盈尺 宜令諏日 祈雪於川上 禮部奏 仲冬以來 雖無盈尺之雪雨 復霈然 況今節近立春 不宜祈雪 從之 (중략) 睿宗十一年四月丁卯 遣使祈雨 於上京川上松嶽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嵓梯淵(《고려사》63, 지17, 예5(잡사)). 한편 고려와 조선의 기우제에 대해서는 서영대, 〈민속종교〉, 《한국사》16, 1994, pp. 358~365과 김해영,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사전〉, 《국사관논총》55, 1994, pp. 144~147 참고.

113) 정구복 외 4인, 앞의 책, 1997, p. 37 ; 나희라, 앞의 책, 2003, p. 51. 또한 임천사의 못가에서도 기우제가 행해지기도 하였다(六月 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卽雨浹旬(《삼국사기》8, 신라본기8, 성덕왕 14년). 夏六月 旱 又召居士理曉祈禱 則雨(《삼국사기》8, 신라본기8, 성덕왕 15년)).

114) 고려시대에 수재나 한재 때 松嶽溪上에서 百神에게 祈晴 · 祈雨를 드리던 제사를 川上祭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라 사천상제와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동욱, 앞의 논문, 1983, p. 33).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은 성덕왕에게 '영해군사' 라는 관작을 내리고 있다.[115] 이것은 당이 발해와의 관계 속에서 신라왕에게 황해 지배권을 위탁한 것이지만,[116] '영해군사' 라는 관작은 경덕왕, 선덕왕, 헌덕왕, 흥덕왕대로 이어지고 있다.[117] 또한 청해진 설치 이후에는 해상의 요충지에 당성진(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혈구진(강화도), 장구진(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근처) 등이 설치되고 있다.[118] 특히 청해진 조음도에서 지낸 제사는 해신에 대한 제사로 해양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119] 이로 볼 때 통일신라기 사해와 사독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물을 제장으로 한 신라 최고의 국가제사로, 해양신앙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5) 秋七月 唐玄宗以渤海靺鞨 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卿金思蘭歸國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하략)(《삼국사기》8, 신라본기8, 성덕왕32년)

116) 浜田耕策, 〈新羅王權と海上勢力〉,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8, pp. 454~455.

117) 新羅王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兼充持節寧海軍使(《삼국사기》9, 신라본기9, 경덕왕 2년)
王爲檢校太尉雞林州刺史寧海軍使新羅王(《삼국사기》9, 신라본기9, 선덕왕 6년)
册立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王(《삼국사기》10, 신라본기10, 헌덕왕 즉위년)
册立王嗣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삼국사기》10, 신라본기10, 흥덕왕 2년)

118) 夏四月 淸海大使弓福 姓張氏(一名 保皐) 入唐徐州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鎭淸海(淸海 今之莞島)(《삼국사기》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
春二月 以唐恩郡爲唐城鎭 以沙浪極正往守之(《삼국사기》10, 신라본기10, 흥덕왕 4년)
秋八月 置穴口鎭 以阿湌啓弘爲鎭頭(《삼국사기》11, 신라본기11, 문성왕 6년)
장구진과 관련해서는《신당서》43하, 지33하, 지리, 기미주 · 하북도 등주조에 보인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今西龍, 〈慈覺 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33 참조.

119)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앞의 논문, 2005 : 앞의 책, 2008 참고.

5.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 고대 '대천' 제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신라의 사해와 사독제사를 통해 생각해 보았다. 물과 관련된 제장은 소천과 대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천에 해당하는 것은 井(淵)·川(泉)이고 대천에 해당하는 것은 海·瀆이다. 이 중 대천제사인 사해와 사독은 통일신라 사방관념, 영역관념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신라 중대 지배층의 원신라 중심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신라 중대왕실이 사해와 사독을 비롯한 오악과 사진을 편제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였다.

신라 중대왕실이 명산대천제사를 대·중·소사에 편제한 이유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행하였던 명산대천제사를 국가제사체계로 받아들여 정비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사해와 사독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 또한 사해와 사독, 오악과 사진은 유교의 산천규범 중 천자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신라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것은 신라 중대왕실이 행하여왔던 유교적인 지배체제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 중대왕실은 유교적 지배체제 정비를 통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꾀하려고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교의 산천규범을 따른 것이었다고 하였다.

한편 오래 전부터 물은 신성시되었고 그 곳은 제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산악신앙 못지않게 물과 관련된 신앙 및 그 곳에서 행해졌던 제사는 국가제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정·천은 농경제사와 '별제'의 제장이었고, 사해와 사독은

중사에 편제되었다. 신라에서는 강과 바다에 대한 제사가 일찍부터 있어 왔고 신라의 외연이 확대됨으로써 물과 관련된 제사 공간은 신라 초기 정 · 천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해 · 독으로 확장되어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 중대 해 · 독을 제장하는 하는 제사는 정 · 천을 제장으로 하는 제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해와 사독제사는 통일신라기 물을 제장으로 한 신라 최고의 국가제사로, 해양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고 보았다.

南宗禪과 新羅社會

- 張保皐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

◆

콘도 고이치(近藤浩一)

1. 머리말

2. 新羅王室의 南宗禪 受容 背景

3. 南宗禪의 발전과 張保皐의 思想的 基盤

4. 張保皐 暗殺後의 南宗禪과 王京人

5. 맺음말

1. 머리말

9세기 신라에서는 821년에 道義 선사가 귀국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826년 무렵에는 洪陟 선사가, 830년에는 慧昭 선사가 귀국하는 등 많은 禪師들이 귀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南宗禪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후 南宗禪은 신라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특히 최근 이러한 특정한 禪師 또는 禪宗寺院, 禪宗山門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의 진행으로 남종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2]

---

1)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崔致遠의 四山碑銘을 중심으로-〉《韓國史硏究》7 , 1972,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史學硏究》25, 1976이나 金杜珍, 〈朗慧와 그의 禪思想〉《歷史學報》57, 1973은 그 선구적 연구이다. 특히 김두진은 최근 이제까지 발표한 남종선 논고를 하나에 모아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을 간행하였다.

2) 본고에서 인용한 가운데 대표적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金杜珍,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東方學志》57, 1988.
金杜珍,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江原佛敎史硏究》小花, 1996.
金杜珍, 〈眞鑒禪師塔碑와 慧昭의 선종사상〉《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지금까지 기존의 다수 연구자들은 남종선이 신라왕실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에서 유행한 사실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에 반발한 지방 세력(豪族)들의 사상으로만 여겨왔다. 즉, 신라하대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귀족 세력들 간의 치열한 대립에서 패한 귀족들이 지방으로 낙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세력 즉 호족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므로 불타의 권위를 초월하는 祖師禪을 강조하는 남종선에 호응하게 되었다는 견해인 것이다.[3)]

그러나 최근 개별 연구를 통해 남종선이 지방 세력이 아닌 신라왕실

2005.

金楨權, 〈眞鑒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 雙谿寺 創建－新羅下代 南宗禪 受容의 한 例－〉《湖西史學》27, 1999.

金福順, 〈眞鑑禪師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韓國古代佛教史研究》, 民族社, 2002.

曺凡煥,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中心으로-》, 一潮閣, 2001.

曺凡煥, 〈新羅下代 武珍州地域 佛教界의 動向과 雙峯寺〉《新羅史學報》2, 2004.

曺凡煥, 〈新羅 下代 體澄禪師와 迦智山門의 개창〉《정신문화연구》100, 2005(a).

曺凡煥, 〈新羅 下代 西南地域의 禪宗山門의 形成과 發展〉《震檀學報》100, 2005(b).

曺凡煥, 〈신라 하대 洪陟 선사의 實相山門 개창과 鐵佛 조성〉《新羅史學報》6, 2006.

曺凡煥, 〈신라 하대 道允禪師와 獅子山門의 개창〉《新羅史學研報》10, 2007(a).

이경복, 〈新羅末・高麗初 大安寺 田莊 經營〉《梨花史學研究》30, 2003.

崔仁杓, 〈新羅下代 禪宗教團의 動向과 王室의 對應〉《新羅文化》27, 2006.

최인표, 《나말여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3) 그중에서도 金杜珍, 앞의 책 2007은 이제까지 이점을 변화 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 연구는 아래와 같다.

金杜珍, 〈新羅下代 禪師들의 中央王室 및 地方豪族과의 관계〉《韓國學論叢》20, 1997.

金杜珍, 〈新羅下代 禪宗山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韓國學論叢》21, 1998.

金杜珍, 〈나말여초의 선종산문과 그 사상의 변화〉《新羅文化》27, 2006.

단, 김두진은 일찍 위의 논고에서 남종선의 전래와 신라왕실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김두진, 앞의 책 2007, pp.146~157은 "신라하대에 활동한 선승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사들이 왕실과 연결된 셈"이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초기 선승인 도의와 혜소들이 왕실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왕실과의 결연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크게 강조한다. 나아가 위의 왕실과 연결된 선승들의 대부분이 문성왕 이후부터 정강왕 때까지 약 45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왕실과 가깝게 지내는 선승들도 왕실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김두진은 남종선이 왕실에게도 주목받았음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중앙정부에 반발한 지방 세력의 사상으로 유용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에서 보급되었음이 해명되었다. 또한 남종선과 신라왕실의 관련성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협력적인 관계로 보던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오히려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南宗禪의 발전은 신라왕실의 적극적 원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거의 명확히 되었다.[4]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西南地域에 南宗禪山門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남종선과 張保皐와의 연관성은 지적되어 왔지만, 曺凡煥 연구를 통해 張保皐가 신라 南宗禪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도 큰 연구성과라 하겠다.[5] 다만 아직까지는 南宗禪이 신라사회에 수용되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많으며, 특히 新羅下代 불교계에서 南宗禪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있다.

기존 연구로 알려진 바와 같이 南宗禪은 興德王 830년 무렵 약간 급속하게 수용되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최근 연구처럼 신라왕실이 지방지배를 위해 남종선을 수용하였다고 본다면 당시 신종교에 해당하는 南宗禪에게 어떠한 종교적 효력을 기대하고 수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張保皐와 南宗禪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선사들을 보호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南宗禪에 대한 張保皐의 순수한 신앙심과 이러한 그를 믿고 따르는 세력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

4) 주2)의 논문 이외에는 曺凡煥,〈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新羅文化》26, 2005, 金周成,〈신라하대 왕실의 지방통치〉《新羅文化》26, 2005를 참조함.

5) 曺凡煥,〈新羅下代 張保皐와 禪宗〉《STRATEGY21》8, 2001, 曺凡煥, 앞의 논문 2005(b). 김수태 · 조범환,《전라도 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해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南宗禪이 지니는 사상적 특성, 특히 經濟倫理와 이러한 사상이 신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라왕실이 南宗禪을 수용한 배경을 살피는 데 있어 828년 速富之術을 내세운 妖人 사건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신라사회에서 南宗禪을 더욱 발전시킨 張保皐의 태도 및 신앙심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張保皐가 발전시킨 南宗禪을 張保皐 암살 후 王京人(중앙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신라사회에서 南宗禪이 수용, 발전, 확산된 배경 및 이유를 비롯하여 新羅王室과 張保皐 그리고 王京인들과 지방사회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9세기 신라사회에서 南宗禪이 이룬 역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新羅王室의 南宗禪 受容 背景

南宗禪을 신라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道義였다. 道義는 784년 唐에 들어갔다가 馬祖道一의 正系인 洪州 開元寺의 西堂智藏 문하로 들어갔다. 그 후 같은 馬祖의 法嗣로서 선종 사원의 규범인《百丈清規》를 지은 百丈懷海를 비롯해 여러 스승 밑에서 약 40년간의 유학생활을 보냈으며, 821년(憲德王 13)경 경주에 南宗禪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종 불교가 선행하고 있던 신라사회에서의 南宗禪 사상은 魔語로 비난받는 등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道義는 할 수 없이 설악산에 은둔하게 되었

고 추후 陳田寺에서 선문을 개창하게 되었다.[6] 이러한 사실에서 821년 당시 신라왕실이나 王京人들은 南宗禪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지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왕실의 南宗禪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이후로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나 興德王 5년(830)을 전후하여 이러한 태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즉 南宗禪의 선사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南宗禪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처음 받아들였던 선사로는 후일 智異山에서 南宗禪을 개화시킨 慧昭와 洪陟을 들 수 있겠다. 먼저 慧昭는 31세가 된 804년에 入唐하여 滄州의 馬祖道一의 계보인 神鑒 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이후 崇山 少林寺에 가서 具足戒를 받고 西堂智藏 문하의 道義를 만나 智藏의 선사상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소개로 百丈懷海들을 친견한 후 興德王 5년(830)에 신라로 귀국하였다.[7] 慧昭가 귀국하자 興德王는 821년의 道義 때와는 태도를 크게 달리하여 그를 환영하였다. 다음은 당시 興德王이 내린 敎書의 내용이다.

자료 1

於大和四年來歸大覺上乘照我仁域. 興德大王飛鳳筆迎勞曰道義禪師曁已歸止上人繼至爲二菩薩. 昔聞黑衣之傑今見縷褐之英. 彌天慈威擧國欣賴寡人行當以東雞林之境成吉祥之宅也. 始憩錫於尙州露岳長柏寺. 毉門多病來者如雲方丈雖寬物情自隘. 遂步至康州知異山有數於菟哮吼前導避危從坦不殊兪騎從者無所怖畏豢犬如也.(《眞鑑禪師碑》)

6) 道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杜珍, 앞의 논문 1996 등을 참조함.
7) 慧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楨權, 앞의 논문, 金福順, 앞의 논문을 참조함.

그를 보면 당시 興德王은 慧昭와 道義의 귀국을 환영하였으며 이 두 인물은 누더기 입은 뛰어난 스님으로 표현하고 있어 南宗禪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慧昭의 경우 興德王의 바로 그 청을 받아들여 尙州 露岳山 長柏寺에 일정 기간 동안 주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8] 당시 상주는 入唐往復路의 한 곳으로 경주에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陸上交通의 요충지였으며 金憲昌亂의 중심지로 신라 체제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였으므로 興德王은 慧昭의 南宗禪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洪陟의 경우에는 위의 두 선사처럼 입당한 해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道義들처럼 西堂智藏 문하로 들어가 그 心印을 받고 귀국하였다는 점은 확실히 알려져 있으며 智藏 열반이었던 814년 이전이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당을 떠난 연도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興德王이 즉위한 826년 무렵 신라로 귀국하였고 이후 南岳인 智異山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며 829년경에는 南原 小京 근교에 實相寺를 창건하였다고 한다.[9] 다음은 이후 洪陟의 행적에 대해 적고 있는 기록이다.

---

8) 위의 자료에 따르면, 慧昭는 尙州 露岳山 長柏寺에서 석장을 멈추었다고 한다. 석장을 멈추었다는 것은 장백사에 주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曺凡煥,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p.268). 김복순, 앞의 논문, pp.239~240에 따르면 長柏寺는 오늘날의 南長寺로 왕도와 가까이 있던 왕실의 원찰로 보인다고 한다.

9) 曺凡煥, 앞의 논문 2006, pp.49~50은 秀徹和尙이 실상사로 가서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과 829년에 출가하였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실상사는 829년 무렵에는 창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하여 洪陟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曺凡煥, 앞의 논문 2006을 참조함.

자료 2

及興德大王纂戎宣康太子監撫去邪毉國樂善肥家. 有洪陟大師亦西堂證心來南岳休足. 驚冕陳順風之請龍樓慶開霧之期. 顯示密傳朝凡暮聖變非蔚也興且勃焉.(《智證大師碑》)

興德王과 宣康太子가 洪陟에 대해 南岳에 와서 발을 멈추니 임금께서 下風을 따르겠다는 소청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 내용으로, 신라왕실은 慧昭 때와 마찬가지로 洪陟의 南宗禪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興德王이 洪陟을 직접 만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830년 무렵부터 신라왕실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함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興德王 즉 신라왕실은 어떠한 이유로 興德王 5년(830)을 전후하여 갑자기 南宗禪에 대해 호의적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興德王이 南宗禪을 敎學 불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政治理念으로 채택하려 하였다는 견해이다.[10] 이에 따르면 興德王 9年(834) 반포된 奢侈品 사용을 규제한 교서 등도 선사상과의 관계로 추측할 수 있다.[11] 그러나 신라왕실이 받아들여 지원한 慧昭와 洪陟이 왕경에서 중앙정치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신라왕실과의 관계는 중시해야 하지만 그들이 활동한 중심지는 어디까지나 지방사회였던 것이다.[12]

10) 高翊晋, 〈新羅 下代의 禪 傳來〉《韓國古代佛交敎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525~530.
11) 김복순, 앞의 논문, p.240.
12) 즉 신라사회에 있어서의 南宗禪 수용 및 발전은 신라왕실과 지방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견해로 신라왕실은 선사들이 지방 세력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것에 주목하여 그 지역의 유력자들과 연결하기 위해 南宗禪 선사들에게 접근하였다는 견해가 있다.[13] 이것은 최근 연구로 南宗禪은 지방 세력 호족들과의 연계보다 한층 많은 신라왕실의 원조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단 여기서 하나, 초기 南宗禪은 신라왕실이 지원하여 지방에서 수용된 종교였다는 점을 새롭게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당시 각 지방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신라왕실은 과연 남종선에게 어떠한 종교적 효과를 기대하고 慧昭나 洪陟들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따라 남종선의 사상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道義를 비롯하여 慧昭, 洪陟과 더불어 좀 더 후일에 해당되나 무주 관내 雙峰寺에 머물게 된 慧徹 등 신라사회에서 활약한 남종선의 초기선승은 거의 西堂智願의 심인을 받아 귀국하였다. 서당지장은 百丈懷海와 南泉普願 등과 함께 마조도일의 선법을 계승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首弟子였다고 된다.[14] 따라서 흥덕왕대를 전후하여 수용된 남종선은 결국 馬祖 直系인 西堂智藏의 선법이었던 것이다.[15]

선종 사상이 不立文字와 見性悟道를 내세우면서 교종에서 중시하는 경전을 부정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남종선 승려들

13) 특히 주2)에서 인용한 曺凡煥의 개별 연구를 참조함.

14) 원래 馬祖門下를 대표하는 수제자는 西堂智藏이었는데, 후에 百丈懷海나 南泉普願이 그 문하의 번창과 어록에 의해서 馬祖門下를 대표하는 정통 법계로 의식적으로 강조되면서부터 西堂의 평가는 점차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鄭性本, 〈禪宗의 成立과 祖師禪의 展開〉《中國禪宗의 成立史硏究》民族社, 1991, p.744).

15) 예를 들면 崔致遠은《지증대사비명》에서 "도의라는 승려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의 깊은 뜻을 익혀 처음으로 그윽한 도를 말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하였다.

16) 禪宗, 특히 南宗禪은 원래 귀족계층에 속하지 않은 신흥 地主階層 속에서 수용되었지만 당대

의 수행규범이나 교단운영 등을 규정한 것이 淸規이다.[16] 淸規를 집대성한 것은 百丈懷海인데, 같은 내용은 마조문하 사이에서 예전부터 깊이 이해되어 있어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속에 포함된 경제윤리이다. 이는 신라의 많은 南宗禪 선사들이 가장 영향을 받았을 百丈懷海의 淸規 내용으로 《僧高僧伝》卷10 懷海伝에 따르면 節儉과 勤勞 그리고 普請이 南宗禪의 중심 경제윤리였음을 알 수 있다.[17] 특히 普請은 《祖堂集》卷14 百丈章 등에 따르면 上下가 평등으로 일하는 것이며 〈一日不作 一日不食〉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禪林象器箋》卷9〈叢軌門〉에서는 衆을 모여 作務, 즉 勞動하는 것을 普請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百丈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 상하 관계없이 다 함께 집단노동을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18]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一日不作 一日不食〉의 노동에 대한 실천적 내용이나 절약생활태도는 이후 선종사상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신라 南宗禪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禪師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노동에 종사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9]

후반기에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대 사회적 기반을 고려하면서 중국 불교사에 있어 淸規의 성립을 근세적 불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西尾賢隆, 〈中國佛教史における禪宗への推移〉《中國近世における國家と禪宗》 思文閣出版, 2006, pp.36~40). 또 南宗禪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까지 인용한 논저 이외에도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柳田聖山集 第6卷》 法藏館, 2000, 鈴木哲雄, 《唐五代禪宗史》 山喜房佛書林, 1985, 鈴木哲雄, 《中國禪宗史論考》 山喜房佛書林, 1998 등을 참조함.

17) 中村元, 〈禪における生產と勤學の問題－インド思想を超えた發展－〉《禪と日本文化第8卷と禪思想》べりかん社, 1997, 西尾賢隆, 앞의 논문.

18) 《五燈會伝》卷3百丈懷海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보인다.

19) 이 점에 대해서는 崔柄憲, 앞의 논문 1976에서 이미 지적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자료 3

① 始壯及衰自貶爲基食不異糧衣必均服 凡所營葺役先衆人每言祖師嘗踏泥吾豈蹔安栖. 至撻水負薪或躬親. 且曰山爲我爲塵安我得安身. 其克己勵物皆是類.(《朗慧和尙碑》)

② 諭生徒則曰心雖是身主身要作心師. 患不爾思道豈遠而. 設是田舍兒能擺脫塵羈. 我馳則必馳矣道師敎父寧有種乎. 又曰彼所啜不濟我渴彼所噉不救我餒盍怒力自飮且食.(《朗慧和尙碑》)

자료 3에서 언급된 예는 慧昭나 洪陟의 경우는 아니고 좀 더 후일인 840년대 후반에 이르러 두 선사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 朗慧無染의 것이다. 자료3-①에 따르면 無染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남과 같은 것을 이용하였고 실제로 營葺하는 役事에 반두지 衆人과 함께 참가한 것에 더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일도 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자료3-②에서도 無染이 生徒를 가르치는 말속에 촌부(田舍兒)도 수행하면 解脫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수행의 방법으로서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無染이 下線部처럼 말한 것은 〈一日不作 一日不食〉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20] 그러므로 노동에 종사하여 근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풍조는 신라 南宗禪에서도 성행하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興德王이 南宗禪을 수용한 시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三國史記》卷10 興德王3年(828)4月條에 기

20) 崔柄憲, 앞의 논문 1972, p.111, 崔柄憲, 앞의 논문 1976, pp.15~17.

21) 漢山州飄川縣妖人自言有速富之術衆人頗惑之. 王聞之曰執左道以惑衆者刑之先王之法也投其人遠島. (《三國史記》卷10 興德王3年(828)4月條)

록된 漢山州 瓢川縣의 速富之術을 내세운 妖人 사건이다.[21] 速富之術이란《礼記》중의 左道에 근거한 종교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妖術(秘術)로, 이를 쓰는 妖人을 지도자로하고 그 신도들로는 상당수의 하층농민들로 구성된 종교집단이다.[22] 이에 興德王은 경주로부터 떨어진 漢山州 瓢川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함을 인식하고 직접 개입하여 妖人들을 먼 섬으로 추방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오히려 妖人과 速富之術에 대해 많은 하층 농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이러한 速富之術과 같은 사상이나 農民反亂이 일어난 배경에 眞表의 弥勒信仰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23] 趙仁成은 진표의 포교 아래 지방의 하층농민들 사이에 末世意識과 弥勒仏이 하생하는 理想世界, 즉 龍化世界의 출현에 대한 하층 농민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 갔으며 이러한 점이 농민봉기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24]

이와 같이 興德王이 즉위한 당시의 지방사회에서는 理想世界를 기대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빨리 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종교가 만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興德王 3년(828)의 妖人 사건 이후 신라왕실은 반신라적 움직임을 보이는 종교집단에 대한 대응책의 확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興德王이 830년경 慧昭와 洪陟 등 선사를 불러들여 지방사회에 南宗禪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22) 趙仁成, 〈弥勒信仰과 新羅社會-眞表의 弥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震檀學報》82, 1996, p.38.

23) 趙仁成, 앞의 논문, p.40.

24) 趙仁成, 〈新羅末 農民反亂의 背景에 대한 一試論〉《신라말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한국고대사연구회, 1994.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828년의 妖人 사건 직후의 830년 무렵 신라왕실이 南宗禪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速富之術을 전도하는 宗教集団을 견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速富之術과 남종선은 서로 大衆, 즉 지방세력과 깊은 관계를 지녔다는 공통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理想世界를 기대하는 면과 현실적 측면을 직시하여 일상적 생활 즉 근로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종교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速富之術과 같은 사상은 漢山州 瓢川縣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확산해 있었음은 확실하다. 830년경 신라왕실이 慧昭나 洪陟선사를 불러 새롭게 南宗禪을 수용한 한 원인은 지방사회 사상계 동향과도 연관성이 있다. 결국 興德王은 南宗禪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방사회에 가득한 速富之術와 같은 반신라적 사상이나 분위기를 억누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왕실은 당에서도 새롭게 유행하던 신종교에 속하던 南宗禪 사상과 선승들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으며 수용한 것일까. 이는 당시 신라왕실이 남종선을 받아들였던 그 시기와 함께 활동한 지방 세력의 대표로 張保皐의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겠다. 張保皐는 828년 이전 당에서 귀국하였으며 828년 무렵에는 莞島에 淸海鎭을 설치하였다.[25] 이는 《三國史記》卷10 興德王3년(828) 4월조를 통해 張保皐가 중국에서 돌아와 흥덕왕을 謁見하고 士卒 1만 명으로 淸海에 鎭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존 연구를

25) 李基東(近藤浩一譯), 〈張保皐とその海上王國(上)〉《アジア遊學》26, 2001 등을 참조함.

26) 眞鑒慧昭의 경우에는 당에 유학을 갔을 때에는 "804년 신라 賀正使 一行을 태운 歲貢船의 뱃사공이 되어 중국으로 건넜다."라는 기록을 통해 사신의 배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선승들은 당에 유학을 가거나 귀국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상선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26] 장보고가 활동하였을 시기에는 당연히 장보고의 선단을 이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830년에 귀국한 慧昭는 물론 청해진 설치 이전 826년에 귀국한 洪陟도 장보고 선단을 이용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27] 게다가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張保皐가 신라에 귀국하여 淸海鎭을 설치한 해는 速富之術을 내세운 妖人 사건과 같은 828년 경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830년 무렵 신라왕실이 慧昭와 洪陟을 불러 南宗禪을 갑작스럽게 수용한 사실은, 張保皐가 신라왕실에 南宗禪의 선사를 소개하였거나 수용을 청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점을 지니고 海島人이라고 불리던 張保皐의 입장에서 신라국왕에게 직접 이러한 것을 권유하고 국왕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과의 문화교류나 교역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9세기 중엽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향한 여러 항로를 지닌 張保皐와 같은 인물은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실세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한 신라왕실을 비롯한 王京人들은 張保皐와 같은 인물을 통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힘썼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7) 김수태 · 조범환, 앞의 책, pp.46~51.

3. 南宗禪의 발전과 張保皐의 思想的 基盤

앞서 언급하였듯이 智異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慧昭와 洪陟을 비롯하여, 桐裏山門을 개창한 慧徹, 迦智山門을 개창한 體澄 등 많은 南宗禪의 사찰과 산문들은 西南地域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성장하였다.[28] 따라서 西南地域에서 신라왕권을 대신하게 되기까지 외교활동에 종사한 張保皐와 南宗禪의 관계를 지적한 견해 역시 일찍이 제기되었다.[29] 특히 최근 조범환의 상세한 연구를 통해 선사들의 유학과 귀국을 비롯하여 경제적 측면까지 張保皐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30] 그중에서도 慧徹은 839년 2월 장보고가 운영하였던 平盧使 배로 귀국하였고 바로 청해진과 가까운 곳에 있는 무주 관내 쌍봉사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 양자 관계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시기 경주가 왕위쟁탈전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장보고 선단에서 혜철에게 쌍봉사를 소개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31] 즉 장보고는 귀국에 더하여 머무르는 사찰의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것으로 혜철을 보호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28) 신라사회에 수용된 南宗禪이 西南地域을 중심으로 활발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曺凡煥 앞의 논문 2005를 참조함.

29) 金文経,《張保皐研究》淵鏡文化社, 1997, p.64.

30) 자세한 내용은 김수태 · 조범환, 앞의 책을 참조함.

31) 김수태 · 조범환, 앞의 책, pp.197~200. 이후 혜철은 장보고 영향 하에 있는 무주 일체에서 큰 힘을 가졌을 것이다. 예를 들면 840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매우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州司가 쌍봉사로 혜철을 찾아와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때 혜철은 주사의 간청을 받아들여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고 한다. 즉 이것은 그만큼 그가 서남해 지방의 기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주 일체에서의 혜철의 영향력을 상징해 주는 일이다.

조범환은 특히 張保皐가 南宗禪에 접근한 이유로서 위에 언급한 慧昭나 洪陟 등의 선승과 같이 西南地域의 南宗禪이 신라왕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張保皐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으나 당시로써는 아직 그의 정치적 위상이 그리 높지 못했기 때문에 선종사원을 통해 좀 더 신라왕실에 접근하고자 하였거나 그곳의 호족들을 움직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山門을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적절하게 이용하였다고 한다.[32] 게다가 최근의 海域史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張保皐가 南宗禪 선사들을 중국 측 관계자들과의 연락 및 여러 가지 정보제공자로서 이용하였다는 점이나 선승 자신들이 乘船料를 지불하였다는 점 등에서도 이러한 점을 가히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人的 관계나 物質的인 이유가 컸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南宗禪이 종교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張保皐 역시 南宗禪에 대한 신앙적 측면에서 좀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張保皐의 南宗禪에 대한 순수한 신앙심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물론 이와 관련하여 張保皐 船団 등 海上活動者(海商)가 독실한 불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33]

---

32) 曺凡煥, 앞의 논문 2001, pp.111~116, 曺凡煥, 앞의 논문 2004, p.119, 曺凡煥, 앞의 논문 2006 등.

33) 대표적 연구로는 金文経, 〈장보고 해상왕국의 사람들〉《장보고 해상경영사 연구》 이진, 1993, 金文経, 〈9~11세기 신라사람들과 강남〉《장보고와 청해진》 혜안, 1996, 金文経, 〈張保皐와 法華三寺〉第2回法華寺址學術大會發表要旨文, 2000, 金文経, 〈在唐新羅人社會と佛教－入唐求法巡礼行記を中心として－〉《アジア遊學》26, 2001, 조영록 외 2명, 《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9~10세기 동아시아 해상불교 교류-》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등.

34) 간단히 요약하면, 보물을 얻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일심으로 觀世音菩薩을 부르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山内晋次, 〈航海守護神としての觀音信仰〉《古代中世の社會と國家》 清文堂出版, 1998을 참조함.

특히《法華經》卷8 ·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 經文의 기록을 토대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한 張保皐와 같은 海商들은 航海安全 · 海難救信仰으로서 觀世音菩薩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34] 이는 즉 張保皐와 밀접히 관련한 赤山法花院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관음도량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35] 또《三國史記》祭祀條를 보면 淸海鎭(助音島)에 국가제사인 中祀의 하나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신앙과 관련된 신앙이 있었다고 전해진다.[36]

그렇다면 張保皐의 사상적 기반 속에서의 南宗禪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가.[37] 이에 따라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앞서 速富之術과 비교해 언급한 南宗禪의 성격이라 보겠다. 다시 말하자면 南宗禪은 기존의 불교와 달리 節儉과 勤勞, 普請을 소중히 생

35) 曺凡煥,〈張保皐와 赤山 法花院-赤山 法花院과 9세기 동아시아 세계-〉《대외문물교류연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pp.153~156, 또 권덕영,〈신라인사회와 적산법화원〉《재당 신라인사회 연구》일조각, 2005, pp.105~108들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적산법화원을 안전 항해를 위한 기원처라고 이해하고 있다.

36) 청해진의 제사에 대해서는 채미하,〈청해진의 祀典 편제와 해양신앙〉《진단학회》99, 2005 등에 자세하다.

37) 또 최근의 김수태 · 조범환, 앞의 책, pp.46~51, 曺凡煥,〈신라 하대 장흥 천관사 화엄신중과 해상 세력-天因의《天冠山記》를 중심으로- 〉제65차 신라사학회발표문, 2007(b) 등 연구에서는 신라왕실의 지원 하에 건립된 宝林寺(迦智山寺)나 천관사 등 華嚴宗 사원이 장보고 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張日圭,〈신라 하대 서남해안 일대 천태 관련 사찰과 장보고 선단〉《新羅史學報》10, 2007은 장보고가 활동한 서남지역에 있던 천태 관련 사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장보고가 화엄종이나 천태종 사원의 단월 세력이었다면, 張保皐의 사상적 기반 속에서의 화엄종 등도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38) 原始仏教의 經濟倫理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그 戒律에서는 勞動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梁 武帝 때 荀濟가 上疏한 道宣《廣弘明集》券 7 을 보아도 仏教徒는 乞食 生活을 하여 生産勞動에는 관계하지 않았다.

39) 김정권, 앞의 논문, p.9. 慧昭(眞鑒慧昭)는 금마현(益山)에서 태어나 바닷가에서 생활하면서 일찍이 선종(입당하자 神鑒 선사를 찾아갔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南宗禪의 가르침에 일, 즉 노동을 중시하는 점에 공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慧昭는 漢族으로 山東지방의 閥

각하고 있다.[38] 또한 초기 南宗禪이 慧昭의 師인 神鑒를 그 대표로 하고 있듯이《涅槃経》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仏性平等을 사상의 근저에 두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39]

따라서 노동을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海上活動者(海商)들이 자신들을 충분히 인정하는 南宗禪의 가르침에 일찍부터 관심을 품지 않았을 리 없었다. 더욱이 당시 海上活動者(海商)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어느 특권계층들보다 가장 먼저 중국 최첨단 문화를 접촉할 수 있었던 선구 그룹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南宗禪을 신앙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 · 사회적인 정당성을 좀 더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張保皐의 사상적 기반 속에서 南宗禪이 차지한 비중은 생각보다 컸다고 볼 수 있으며 張保皐 船團이 南宗禪 지원을 향했던 것은 이러한 순수한 신앙심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張保皐가 선종(南宗禪)을 깊이 신앙하고 있었다는 모습은 실제로 赤山法花院 내의 상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산둥반도 登州 赤山浦에 인접한 적산법화원은 張保皐가 820년 전후 登州에 진출한 이래, 신라

族이었다고도 고구려계 유민이었다고도 한다(김정권, 앞의 논문, p.4, 김복순, 앞의 논문, p.235). 이러한 모든 점이 南宗禪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40) 다만, 赤山法花院은 張保皐 개인이 창건, 관리한 것이 아니라 唐 地方政府인 平盧軍節度使 아래서 공적 역할을 짊어진 많은 在唐新羅人들을 통해 관리된 사원이었다고 생각된다(近藤浩一, 〈赤山法花院과 平盧軍節度使〉《韓國古代史硏究》28, 2002). 또 최근의 정병준, 〈이정기(李正己) 일가(一家)의 교역활동과 장보고(張保皐)〉《대외문물교류연구4》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에서도 장보고 세력이 산둥등지에서 활동하였을 때 그 지역을 지배하는 번지(평로군절도사)의 통제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적산법화원의 사상적 측면을 검토할 때도 재당신라인의 기도처였던 것에 더하여 평로군절도사라는 공적기관의 밑에 있던 사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세한 검토는 나중의 과제로 하고 싶다.

41)《巡礼行記》에 의하면 円仁은 張保皐를 "寺名赤山法花院本張宝高初所建也"(《巡礼行記》開成4年(839)6月7日條), "大使本願之地"(《巡礼行記》開成5年(840)2月17日條)라고 평하고 있다. 더욱이《巡礼行記》를 통해 839년 6월 하순에 張保皐가 보낸 交關船 2隻이 赤山浦에 도착하였고 大唐賣物使 崔兵馬使(이름은 暈임)가 赤山法花院을 찾아간 이후, 그 交關船이 登州 乳山浦와

에 귀국해 淸海鎭을 설치한 후에도 막대한 財貨를 희사하고 있었음으로 알린다.[40] 말하자면 張保皐는 赤山法花院의 운영에 관여한 유력 檀越이었다.[41] 적산법화원의 사상적 성격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논증 없이 禪刹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42] 보통 航海安全·海難救濟를 기원하는 觀世音菩薩신앙의 사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단 여기서는 赤山法花院이 觀音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원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적산법화원이 선종(남종선)적 성격을 강하게 띤 사원이었다는 점을 다음 기록들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자료 4

① 廿八日 始當院收蔓菁蘿蔔 院中上座等 盡出揀葉. 如庫頭無柴時 院中僧等不論老少 盡出擔柴去.(《入唐求法巡礼行記》開成 4年(839)9月28日條)

② 此日山院法花會畢. 集會男女 昨日二百五十人 今日二百來人 結願已後 與集會衆 授菩薩戒. 齋 後 皆散去. 赤山法花院常住僧衆及沙彌等名 僧曇表 僧諒賢 僧聖林 僧智眞 僧軌範禪門 僧頓證寺主 明信去年典座 惠覺禪門 修惠 法淸去年院主 金政上座 眞空 法行禪門 忠信禪門 善範 沙彌道眞去年直歲 師敎 詠賢 信惠住日本國六年 融洛 師俊 小善 懷亮 智應 尼三人 老婆二人.(《入唐求法巡礼行記》開成5年(840)正月15日條)

揚州 등을 왕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巡礼行記》開成4年(839)6月9日條,《巡礼行記》開成5年(840)2月15日條,《巡礼行記》會昌5年(845)7月9日條 등). 이와 같이 張保皐는 私財를 희사하여 檀越로서의 지위를 얻어 赤山法花院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唐 각 지역과의 교역활동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42) 김광수, 〈장보고 세력 흥망의 역사적 의미〉《장보고와 청해진》 혜안, 1996, p.191.

우선 자료 4-②는 적산법화원에 상주하는 승려들을 나열한 것인데, 그 가운데 적어도 軌範, 惠覺, 法行, 忠信 등 네 명의 禪僧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43] 다음에 이제까지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기록인 자료 4-①에 주목하고자 한다. 적산법화원에는 1년에 500石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莊田 등 많은 경제적 기반이 존재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44] 이 기록을 통해 승려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적산법화원에서 무청과 무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을 때 원의 상좌 등도 모두 다 나가 잎을 골랐다. 또 곳간에 땔감이 없을 때에는 원의 스님들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땔나무를 하러 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적산법화원의 모두 승려들은 자기들의 음식을 생산하는 農作業 및 생활을 위한 노동 전반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南宗禪의 淸規에서 중시하는 儉約, 勤勞와 普請, 즉 百丈懷海가 말하는 〈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잘 실천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산법화원은 선종사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해도 선종(남종선)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사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적산법화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적산법화원을 관리한 인물로서 張保皐이외에 張詠・林大使・王訓이라는 3명 俗人이 등장하는 점이다. 그 중심적 입장에 있던 張詠은 원래부터

43) 曺凡煥, 앞의 논문 2002, pp.153~154는 그들 이외의 승려들에는 선승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명의 선승들보다는 다른 승려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산법화원은 선종 사찰이 아니었다고 한다.

44) 《入唐求法巡礼行記》開成4年(839)6月7日條.

45) 近藤浩一, 앞의 논문, pp.161~162. 또 張詠에 비하여 王訓은 7세기 대에 산둥 방면에 많이 거주하였던 당인인 王姓人과 신라인의 혼혈아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산둥반도에 거주하였던 신라인이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林大使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大使라고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유력자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

등주에 살았던 자가 아니라 楚州에서 이주하였고 당 지방정부인 平盧軍節度使 아래서 登州諸軍事押衙・勾当新羅使押衙 등 직함을 얻어 활동한 신라인이다.[45] 바꾸어 말하면 赤山法花院은 산둥 정세 속에서 공적 권력 아래에 모은 다양한 在唐新羅人들이 관리한 사원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원의 성격도 필연적으로 僧俗을 가릴 것 없이 보다 나날의 노동, 즉 일상적 생활을 중시한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승려도 역시도 이러한 점을 우선 실행하였기에 南宗禪의 승려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張保皐 자신도 일찍부터 선종을 신앙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며 張保皐 집단과 선종(南宗禪) 관계를 기존 연구보다 좀 더 깊게 증명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말할 나위 없이 張保皐는 당의 각 沿岸部 지역과 신라 그리고 일본 九州地方을 연결한 三角貿易을 전개한 國際商人이었다. 또 興德王陵碑의 단석에 貿易之人間이란 銘文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제상인(이 貿易之人間은 張保皐였을 가능성도 있음)이 출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46] 따라서 앞서 적산법화원을 통해 張保皐가 선종을 신앙하고 있던 것이 해명되었으나 그 뿐만 아니라 당시 張保皐와 같은 新羅商人들 사이에서는 南宗禪을 신앙 시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 등주 지역에는 7, 8세기 이래의 계보를 가지는 신라인과 9세기 이후 새롭게 이주한 신라인들이 함께 혼재하여 일정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近藤浩一, 앞의 논문, pp.147~148).

46)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정치와 사회〉《新羅社會史硏究》一潮閣, 1997, p.163. 興德王代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山崎雅稔, 〈新羅國執事省牒からみた紀三津〈失使旨〉事件〉《木村茂光編 日本中世の權力と地域社會》吉川弘文館, 2007을 참조함.

47) 余英時(森紀子譯),《中國近世の宗教倫理と商人精神》平凡社, 1991.

이에 관련하여 余英時는 南宗禪의 宗教倫理와 商業觀 및 商業倫理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하였다.[47] 당대 이후의 중국에 있어서의 종교와 상업윤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다. 당시 慧能의 新禪宗(南宗禪) 속에서는 불교정신의 世俗外에서 世俗內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 후 百丈懷海가 節儉·勤勞·普請이라는 새로운 경제윤리에 따른 叢林制度를 세운 것이 불교경제윤리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다. 즉 百丈懷海는 세속적 활동의 가치의 적극적 긍정과 그에 대한 한층 명확한 종교적 의미의 부여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百丈懷海의 불교경제윤리가 나중의 상업관이나 상업윤리의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48] 이러한 余英時의 연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종교윤리와 상업윤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라 생각한다.

그의 견해를 참조해 보면, 南宗禪의 사상이 張保皐와 같은 신라상인들의 마음의 지주가 된 것은 상상에 어렵지 않다. 張保皐가 南宗禪을 신앙으로 여겼던 것과 이른바 商業帝國을 건설하고자 한 것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張保皐는 南宗禪의 世界觀·倫理觀·人生觀 등의 내면적인 면을 바탕으로 국제교역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張保皐에 대표되는 海商(國際商人)들의 南宗禪에 대한 신앙심에 대해 살펴본다면 가까운 시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참조된다. 우선, 高木訷元의 연구로 구체적 모습이 밝혀진《高野雜筆集》下卷 所收〈唐人書簡〉에 나타나는 唐日間을 왕래한 唐商人 徐公直과 일본에 초청되어 있

48) 余英時, 앞의 책, pp.63~69. 余英時는 百丈懷海만을 강조하지만 위의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청규는 널리 馬祖系 선승들의 수행규범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라 초기 선승의 스승인 西堂智藏을 비롯한 남종선 선승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49) 高木訷元, 〈唐僧義空の來朝をめぐる諸問題〉《空海思想の書誌的研究》法藏館, 1990.

던 남종선 승려인 義空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49] 위의 연구에 따르면 義空은 마조의 제자인 杭州塩官 齊安禪師의 제자였고 거기서 만난 惠蕚이 847년(大中元)에 일본에 데리고 왔다고 한다.[50] 또 齊安은 846년에 신라에 귀국하였고 堀山門을 개창한 梵日의 스승이었던 것으로 당시 일본에 전래한 남종선과 신라 남종선 성격이 비교적 가까웠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徐公直은 그가 義空에 보낸 편지 내용에 따라 婺州 또한 蘇州衙前散將 등 직함을 가져[51] 弟公祐에게 많은 貨物을 운반시켜 大宰府에서 교역활동을 전개한 국제상인임이 밝혀졌다.[52] 이처럼 唐商人 徐公直과 義空의 관계는 빈번히 편지를 보내는 사이였던 점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徐公直은 會昌廢仏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지만 자신의 아들 胡婆를 중국에서 出家시키지 않고 일본에 있는 義空 밑으로 보낼 정도였다.[5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徐公直은 南宗禪에 대해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일족이 널리 남종선

50) 《元亨釋書》卷6唐國義空傳・卷16唐補陀落寺慧尊傳에는, 太皇太后橘嘉智子의 뜻을 받아 입당한 惠蕚은 禪僧을 찾아 齊安禪師를 방문하였지만 그 때 齊安한테 그 제자인 義空의 소개를 받았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51) 徐公直은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蘇州衙前散將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상인들은 절도사에 뇌물을 바쳐 절도사 밑의 衙職을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절도사측은 상인층에게 그들을 주는 것으로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다(石井正敏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間貿易について〉《歷史と地理》394, 1988, pp.8~13). 이러한 점은 위에 언급한 적산법화원을 관리한 한사람인 張詠이 押衙 등 평로군절도사와 연결된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같은 취지로 생각할 수 있다(近藤浩一, 앞의 논문, pp.161~162).

52) 최근 田中史生, 〈慧蕚の入唐求法と東アジアの佛教交流〉《건학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06(a), 田中史生, 〈唐人の對日交易ー《高野雜筆集》下卷所收 〈唐人書簡〉の分析からー〉《經濟系》229, 2006(b)은 〈唐人書簡〉을 통해 장보고 암살 이후에 전개된 唐商人의 對日 交易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53) 高木訷元, 앞의 논문, p.389.

54) 田中史生, 앞의 논문 2006(a), p.58.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자면, 본문에서 논한 바와 같이 신라에 귀국 후 堀山門을 개창한 梵日과 일본승 惠蕚은 같은 齊安禪師의 아래에서 남종선을 배웠다. 그리고 이 두 선사는 기존 연구로서 중국 사대성산의 하나인 浙江省 普陀山의 觀

에 귀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惠萼의 귀국을 도와 데리고 온 明州의 唐商人 李隣德도 義空에 보낸 書簡 속에서는 자신을 弟子李隣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李隣德과 義空도 주지한 관계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54]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1990년 山東半島 登州 文登縣의 崑嵛山 부근에서 발견된 無染院 관련 기록(〈大唐牟平縣崑嵛山無染院碑〉)을 통해[55] 선종과 海商의 관계에 대해 더욱 상세히 밝혀질 것이다.

자료 5

又鷄林金清押衙 家別樽桑 身來青社 資誼鄞水心向金田…功德主解通五十人等 竟捨珍財 同修眞像(《登州府志》).

이는 權悳永의 연구로 無染院과 신라의 朗慧無染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지만,[56] 無染이라는 이름으로 보아 無染院이 선종사

音信仰과 깊이 관계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범일은 귀국 후 남종선 산문을 개창한 한편, 동해 낙산사에서 觀音信仰을 알려주어 그 장소를 관음도량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海商(國際商人)들이 남종선과 觀音信仰 양쪽을 모두 믿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종선과 관음신앙이 종교적 측면에서도 서로 상반하는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잘 조화될 수 있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종선과 觀音信仰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55) 《登州府志》와 《牟平縣志》에는 그 石碑와 來歷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에는 平盧軍節度使 王師範(891~905) 등 唐役人의 이름과 함께 鷄林(新羅)人인 金清 押衙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崑嵛山無染院碑〉는 원래 901년(昭宗의 光化4년)에 金清押衙의 출비로 건립된 것이라고 한다(李宗勳, 〈中國 山東半島에서의 張保皐와 新羅人들〉《장보고 해상경영사 연구》 이진, 1993, pp.141~142, 金文経, 〈장보고 해상왕국의 사람들〉《장보고 해상경영사 연구》 이진, 1993, pp.106~107).

56) 權悳永, 〈中國 山東省 無染院(址)에 관한 몇 가지 問題〉《新羅文化》28, 2006.

57) 會昌廢仏 이후 남종선이 비약적으로 유행하여 唐宋變革期에는 중국 종교계를 독점하게 된 이유 및 그 실태에 대해서는 西尾賢隆, 〈円仁の見聞した會昌廢仏〉 〈會昌廢仏と金粟如來〉《中國近世における禪家と禪宗》 思文閣出版, 2006을 참조함.

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 會昌廢仏이라는 당시 중국 불교계 동향 가운데 生產勞動과 佛道修行을 일체로 한 禪門만이 건물 등의 시설이 파괴된 이후도 큰 타격을 받는 것 없이 오히려 그를 극복하는 것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음이 밝혀졌다.[57] 9세기 후반 無染院과 같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급속하게 성장한 사찰로서는 역시 남종선 사원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無染院은 불교(선종)의 독실한 신자였던 鷄林(新羅)人 押衙 金淸 등이 많은 財貨를 내어 건립한 사원이었다.[58] 특히 無染院을 관리한 金淸은 鄞水, 즉 浙江지역을 돌아다니며[59] 장사를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사로 생계를 꾸리는 해상활동자(海商)들이 南宗禪을 신앙 시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윤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無染院과 朗慧無染 聖住寺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해도 많은 선종(南宗禪) 사원과 그 아래에 있던 信徒들이 공통된 종교를 통하여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이다.[60]

이상 장보고는 이들의 노동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함께 국제성을

58) 無染院은 押衙金淸이라는 在唐(?)新羅人을 통하여 관리 및 신앙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金淸은 본래 신라 사람이었는데 언제인가 고국을 떠나 제나라 땅 곧 산둥지방으로 건너갔을 것이다(權悳永, 앞의 논문 2006, pp.140~141).

59) 浙江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南宗禪이 유행한 장소로서 알린다(鈴木哲雄, 〈浙江の禪宗〉 앞의 책 1985).

60) 14세기 초의 예이지만 유명한 전라남도 新安沖에서 발견된 沈沒船에서는 〈東福寺〉라는 글자가 보이는 木簡이 한 41점 확인되었다. 일본 京都에 소재한 南宗禪 사원인 東福寺가 그 당시의 동아시아 무역에 직접 관여한 모습이 밝혀졌다. 그 이외에도 당시 많은 선종사원이 동아시아 무역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村井章介, 〈中世における東アジア諸地域との交通〉《日本の社會史第1卷-列島內外の交通と國家》岩波書店, 1987 등). 더하여, 일본 博多에 건립된 남종선 聖福寺들은 그 지역의 지배자인 大友貞宗과 중국인 무역상인(博多綱首)인 張商英의 경제적 원조로 창건되었음으로 알려(川添昭二, 〈禪宗寺院〉《よみがえる中世 1 －東アジアの國際都市博多》平凡社, 1988) 남종선 신도들의 네트워크를 알 수 있다.

겸비하고 있던 남조선을 보다 내면적으로 신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張保皐가 南宗禪을 보호한 또 다른 이유는 李基東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다. 南宗禪 山門은 각기 宗主的인 祖師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그 특징으로, 南宗禪의 집단은 마치 봉건적 主從關係를 연상시킨다.[61] 張保皐 입장에서 보면 南宗禪처럼 祖師 아래에 큰 세력의 신도를 형성한 신앙형태에 특별한 의식을 가졌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張保皐 집단이야말로 10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일 안에서 海上王國이라고 불리기까지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張保皐의 휘하에 단기간 내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나 모집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金周成은 張保皐 집단의 구성원의 대판이 張保皐와 다른 성씨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주목하여[62] 張保皐의 집단은 혈연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주시하였던 집단이었다고 언급한다.[63] 후일 좀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張保皐 집단은 기존 신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집단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張保皐가 南宗禪을 믿었던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자

61) 李基東, 〈新羅社會와 佛教-國家權力과 身分制社會와의 관련에서-〉《新羅社會史硏究》 一潮閣, 1997, p.108.

62) 張保皐 집단 중에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보면, 崔暈 · 李忠 · 揚圓 · 李小貞 · 鄭年 · 閻長 · 李順行 · 駱金 · 張弁 · 張健宋 · 於呂系 등이다(김주성, 〈張保皐세력의 흥망과 그 배경〉《韓國上古史學報》第24号, 1997, p.181).

63) 장보고 집단은 張保皐 개인을 중심으로 어학이나 용력 혹은 장사수단 등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張保皐가 살해되자 張保皐 집단의 사람들이 閻長의 위세에 곧바로 눌려 버린 것도 張保皐 집단이 혈연이 아니라 人的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주성, 앞의 논문, p.181). 또한, 張保皐를 중심으로 한 교역집단 구성을 언급한 李侑珍, 〈9世紀 在唐新羅人의 活動에 대하여〉《중국사연구》1 3, 2001, 이용현, 〈張保皐의 무역활동 -그 交易 組織면에서 접근-〉《대외문물교류연구2》, 2003 등의 연구도 참조된다.

신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南宗禪의 가르침이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張保皐 暗殺後의 南宗禪과 王京人

南宗禪은 신라 도입 초기에는 거의 세간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興德王이 慧昭와 洪陟을 불러들인 830년에 이르러서는 지방사회, 특히 西南地域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성장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라왕실과 張保皐 선단의 지원이 컸다는 점은 이미 앞서 재차 확인하였다.

또 결론부터 말한다면 840년대 후반에 들면서 南宗禪에 대한 신라왕실의 지원은 더욱더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眞骨貴族들을 비롯한 王京人들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이 시기의 王京人들은 南宗禪의 종교적 성격과 그것이 지방사회에서 이룬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王京人들이 張保皐의 암살 이후 南宗禪과의 결합을 보다 활발하게 모색하였다는 면에서 볼 때 南宗禪이 신라사회에 미친 사회적 영향이 컸음을 더욱 확실히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력 眞骨貴族이었던 金陽[64]과 朗慧無染을 開祖로 하여 西海岸(현

64) 《三國史記》의 기사에 따르면, 金陽은 興德王이 망한 이후에 일어난 王位繼承戰에서 閔哀王에 대해 반기를 든 金祐徵(후일 文聖王)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蘇判兼倉部令, 侍中兼兵部令에 오르고, 이후 聖住寺가 창건된 847년에는 執事省 侍中으로까지 승진하고 있다.

재의 忠南 保寧)에 창건된 聖住寺를 들 수 있다.[65] 聖住寺의 창건 시기는 《朗慧和尙碑》에 의거, 無染이 절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 大中(847~859) 초라고 적고 있는 것(《崇嚴山聖住寺事蹟》에는 大中 元年 11月11日라고 적는다)에서 847년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6

① 迺北行 擬目選終焉之所. 會王子昕懸車 爲山中宰相 邂逅適願. 謂曰師与吾俱祖龍樹之粲 (中略). 有一寺 在熊州坤隅 是吾祖臨海公受封之所間 刱燼流栽 金田半灰 匪慈哲 孰能興滅繼絶 可强爲朽夫住持乎 大師答曰有緣則住. 大中初 始就居 且肹飾之 俄而 道大行 寺大成 緜是 四遠問津輩視千里猶跬步 其麗攵不億. 寔繁有徒 大師猶鍾待扣 而鏡忘罷 至者靡不以慧炤導其目 法喜娛其腹 誘憧憧之躅 笄蚩蚩之俗. 文聖大王聆其運爲 莫非裨王化 甚迦之. 飛手敎 優勞 且多大師答山相之四言 易寺牓爲聖住 仍編錄大興輪寺. (中略). 時憲安大王 与檀越季舒發韓魏昕 爲南北相 遙展攝齊礼 贄以茗酵 使無虛月…(《朗慧和尙碑》).

② (前略)「…粥飯尤瞻…淨財欲建仏殿又…伊飡庶兄施…助成功德…」(中略)「…金殿歎無仏像頓捨家財(?)…租稻充入鑄像工価魏昕伊飡…奉鑄丈六世尊像…端嚴晬容岐嶷靑…盤紺絲之髮紅掌展瑞印之手…文紫磨金色臨寶座以益光玉…」「…奉爲魏昕伊飡…三層無垢淨石塔又擬立七祖師…之

65) 朗慧無染 및 聖住寺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함. 梁承律, 〈金立之의 聖住寺碑〉《古代硏究》 6, 1998.
李喜寬, 〈聖住寺와 金陽-聖住寺의 經濟的 基盤에 대한 一檢討-〉《聖住寺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曺凡煥, 앞의 책, 2001.

堂租稻已至於寺林衡運…伊飡之息奉…領色羅匹段幷租一百碩…宜和夫人是尤興伊飡…」(後略)(《聖住寺碑》).

위의 관련 자료에는 金昕, 金陽, 允德, 宜和夫人, 文聖王, 憲安王 등 많은 眞骨貴族과 신라왕실들이 聖住寺의 檀越勢力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66] 그중에서도 《朗慧和尙碑》下線部에서 金陽(魏昕伊飡)만을 檀越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아 聖住寺는 당시 侍中兼兵部令의 직무에 있던 金陽 및 그의 아래에 모였던 王京人이 막대한 비용을 납입하여 檀越이 되어 창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67] 더욱이 847년 金陽 등 王京人들이 聖住寺를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안 부근에 창건한 것은 張保皐 암살 후에 전개되는 對唐交易을 바라본 王京人들의 西海岸 進出과 표리관계에 있었다고 본다.[68] 즉 聖住寺가 張保皐가 암살된 841년(846년이라는 설도 있음)부터 그의 해상활동 거점인 淸海鎭이 폐쇄된 851년 사이에 창건된 것은, 張保皐가 독점한 교역활동(國際交易)을 새롭게 金陽 등 王京人의 관리 아래로 재편하기 위해 그 활동 거점을 확보하는 데 그

66) 우선 王子昕이나 伊飡庶兄은 金周元의 후손인 金昕이고 舒發韓인 魏昕, 즉 魏昕伊飡은 그 字로 보아 金昕과 종형제 사이인 金陽을 가리킨다. 그리고 伊飡 允德은 당시 실권을 가져 866년에 逆謀를 꾀한 유력 眞骨貴族이고, 宜和夫人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允德과 관계된 王妃級에 해당하는 인물이었고 생각된다(梁承律, 앞의 논문, pp.100~104). 이와 같이 碑文 속에 眞骨貴族이나 王族들의 인물 이름이 수많이 등장하는 사실은 聖住寺가 창건 후에도 지방에 있어서 王京人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의 公的 권력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을 알려 준다.

67) 이미 李喜寬이 지적한 듯이 자료 6-①에서 無染이 직접 찾아다녔다고 하는 金昕은 興德王이 몰한 후 王位繼承爭에서 패해 이미 왕경을 떠나 은거하여 山中 宰相처럼 지내고 있었다(李喜寬, 앞의 논문, p.136). 聖住寺의 창건과정에 대해서는 曺凡煥, 앞의 책에 상세하다.

68) 近藤浩一, 〈九世紀中葉 聖住寺와 新羅王京人의 西海岸進出—張保皐 交易活動의 영향과 관련하여—〉《新羅史學報》第 8 集, 2006.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69] 물론 이러한 견해를 일단 배제하여 둔다고 해도 847년경 王京에 사는 眞骨貴族들의 사이에서 南宗禪, 그 중에서도 특히 西南地域에서의 南宗禪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접근하였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남해안,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體澄을 중심으로 정비된 寶林寺(迦智山寺)도 역시 9세기 중엽(張保皐의 암살 이후)에 이르러 王京人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 南宗禪 사원 중 하나이다. 그런데 寶林寺는 본디 華嚴宗 사원으로 體澄가 이전한 후에 많은 王京人들의 지원을 받았고, 南宗禪 불교계의 적통임을 드러내기 위해 道義 선사를 개소로 하여 南宗禪 사원으로 개편되었다고 한다.[70] 寶林寺와 王京人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7

① 宣帝十四年仲春 副守金彦卿 夙陳弟子之禍 嘗爲入室之賓 減淸放俸出私財 市鐵二千五百斤 鑄盧舍那仏一体 以莊禪師所居梵宇. 敎下望水里南等宅 其出金一百六十分 租二千斛 助充裝餘功德 寺隷宣敎省(《寶林寺普照禪師彰聖碑》).

② 當成弗時 釈迦如來入滅…大中十二年戊寅 七月十七日 武州長沙副官金邃宗 聞奏(《寶林寺毘盧舍那仏造像記》).

69) 近藤浩一, 앞의 논문 2006, p.135.
70) 寶林寺 및 迦智山門에 대해서는 조범환, 앞의 논문 2005(a)를 참조함.

위의 기록에 따르면 眞骨貴族 가운데 특히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는 金入宅의 하나인 長沙宅主 金邃宗(長沙縣 副守 金彦卿과 동일인물로 보임)이 858년에 私財로 鐵 2,500斤을 사서 毘盧舍那仏 일체를 주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憲安王이 직접 사원운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金入宅의 하나인 望水宅이나 里南宅이 租穀 2,000斗와 金 169分을 희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寶林寺는 서남해안부에 위치한 것에 더하여 王京人들이 납입한 막대한 비용(動產)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聖住寺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寶林寺도 王京人들이 張保皐 암살 후 남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새롭게 접근한 南宗禪의 사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71]

그리고 842년 무렵 慧徹이 大安寺로 이거한 사실을 통해 신라왕실이 張保皐의 암살 직후 南宗禪에 대해 예전보다 더 활발히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고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大安寺는 文聖王들을 비롯하여 신라왕실에서 희사한 田播 등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왔다.[72] 게다가 張保皐 지원 아래 쌍봉사에서 머무르고 있던 慧徹이 大安寺에 옮긴 시기와 신라왕실이 大安寺를 지원한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거의 張保皐 암살 직후(842년경)라는 사실에

71) 최근의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교류사 연구 성과에 따르면 王京人들이 희사한 물건 중의 특히 金의 경우에는 國際交易과의 관련성까지 상기해 볼 수 있다(保立道久, 《黃金王國-東アジアと平安日本》青木書店, 2004, pp.283~288 등).

72) 자세한 내용은 이경복, 앞의 논문, 조범환, 앞의 논문 2004 등을 참조함. 또 大安寺는 田播뿐만 아니라 塩田까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원이 사원전을 기반으로 매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김수태 · 조범환, 앞의 책, pp.116~118).

서[73] 그 배경에 암살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慧徹의 입장에서는 장보고라는 유력 단월자를 잃어버렸기에 이를 대신할 유력자를 찾아야했으며, 상대적으로 신라왕실에서는 張保皐를 대신하여 곤란한 西南地域의 정세를 잘 유지해 줄 인물이 필요하였고 이에 당시 지역에서 높은 위상을 지녔던 慧徹을 이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74]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慧徹이 떠난 후 쌍봉사에 이거해 獅子山門을 개창한 道允도 張保皐가 죽은 이후에 더욱 더 신라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75]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라왕실 및 眞骨貴族들 王京人은 장보고 암살 이후 서남해 지역의 南宗禪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며 주도적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진출하였다는 점이다.

또 張保皐 암살 이후 王京人이 접근한 서남해안지역의 남종선 사원 및 선사들이 거기서 이룬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王京人과 南宗禪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聖住寺의 朗慧無染 관련 기록이다.

---

73) 그런데 이경복, 앞의 논문, pp.125~126은 혜철은 張保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후 문성왕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혜철은 조범환, 앞의 논문 2004, p.194가 지적하는 듯이 839년의 귀국부터 쌍봉사에 머물렀을 때까지 張保皐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점에서 이경복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大安寺가 張保皐 암살 후의 움직임 속에서 발전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74) 김수태 · 조범환, 앞의 책, pp.155~161은 신라왕실이 혜철에게 접근한 이유로 특히 혜철이 개창한 동리산문 밑에 많은 수의 신도들이 있던 것에 주목한다. 문성왕은 혜철을 통해 장보고 죽음 이후 무진주 지역의 반신라적인 기운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한다.

75) 道允은 浿江鎭의 유력한 세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825년에 중국 유학을 떠나 馬祖道一 제자인 南泉普願의 문하로 되어 법을 받았으며 847년 귀국하였다. 그 후 집안 단월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찰인 금강산 장담사에 들어 머물고 있었을 때 景文王이 그를 불러 쌍봉사에 이주시켰다. 조범환, 앞의 논문 2007, pp.233~240은 신라왕실이 도윤을 쌍봉사에 옮긴 것은 패서지역에서 경제력을 비롯해 유력자였던 도윤선사를 이용하기로 장보고 죽음 이후의 무진주 지역의 반신라적 움직임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료 8

藍浦群賊輻湊 請益和尙猶鍾待叩 似鏡現形 以慧炤導其目 法喜娛其腹 由是 群賊遷善改過出家得道者百余人 文聖大王頻降神筆曰 熊州是海隅辺塞人性凶傲 朕篤畏不服 禪師旣爲僥法雄秀道德堪任 人自行善 朕喜 充抱請禪道爲國鎭坐 茶香信物四時連還 因勅下曰 烏合寺禪師所居誠可尊儼 宜爲寺額勅(《崇嚴山聖住寺事蹟》).

위의 자료에서 賊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데 첫머리에는 藍浦群賊이라 적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藍浦라는 항구에서 거주한 賊의 떼, 즉 해적을 의미한다 하겠다.[76] 이러한 점은 바로 그 아래 "熊州是海隅辺塞人性凶傲"라 적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록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 지역에는 난폭하고 명에 따르지 않던 藍浦賊이 존재하였지만, 無染이 賊들의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法의 즐거움을 享受하기로 群賊들은 改過遷善하게 되었으며, 出家하여 道를 깨친 자가 百余名이었다."라고 한다. 즉 無染은 100여 명에 달하는 海賊을 출가시켜 聖住寺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는 830년 무렵 홍척에 의해 조성된 실상사 藥師殿의 鉄造如來坐像이 명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主體者 역시 일반 민중들이었다는 거의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도[77] 당시 남종선 사원이 왕경인들의 적극적

76) 예를 들면, 藤原純友를 '南海賊徒首'(《日本紀略》承平6年〈936〉6月某日條)라고 기록하는 것들이 참조된다. 海賊의 성격들에 대해서는 松原弘宣, 〈海賊の登場〉《藤原純友》吉川弘文館, 1999 앞의 책, 西別府元日, 〈平安時代初期の瀨戶內海地域-平安初期の〈海賊〉問題を中心に-〉《日本古代地域史硏究序說》思文閣出版, 2003에 자세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해적의 의미도 위의 논문에 의거한다.

77) 조범환, 앞의 논문 2006, pp.56~63.

인 지원으로 사세를 확장시키면서 海賊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일반 민중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종교와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鐵佛 조성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가까이 다가가려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료 6-② 또한 자료 7-①에 보이는 金陽 등 王京人들이 희사한 租稻(租穀), 金을 비롯한 다양한 家財(私財) 및 田畓에서의 수익 등은 海賊들에게 再分配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王京人들이 많은 물건들을 聖住寺 등 서남해안의 남종선에 희사한 주된 목적은 이러한 사원을 통해 교역활동을 하는 海賊 세력을 재편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78] 그렇다면 당시 王京人들은 西南地域에서의 南宗禪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張保皐는 交易活動(商業)을 전개하는 데 정신적인 기둥으로, 南宗禪을 깊이 믿고 있었다. 그리고 王京人들은 국제상인으로서 성장한 張保皐의 영향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특히 聖住寺와 연관된 金陽을 비롯하여 몇 군데의 선종사원과 관련한 문성왕 등 왕경인들이 張保皐와 여러 교류를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79] 반대로 張保皐 암살 후의 상황 속에서 海賊들은 勤勞 및 佛性平等의 가르침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보호해

78) 近藤浩一, 앞의 논문 2006, p.144.

79) 《三國史記》에 의하면 왕위계승전에서 金陽은 淸海鎭에 들어가 金祐徵과 합류하여 그 땅에서 兵力을 정비하였고 張保皐 군대들도 데리고 가서 정부군과 대적했다. 또한 金陽은 興德王代에는 淸海鎭과 가장 관계 깊었던 武州都督을 역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金陽은 淸海鎭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張保皐의 사업에 대한 좋은 理解者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李基東, 앞의 논문 2001, p.145).

주는 南宗禪을 더욱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海賊 세력은 聖住寺나 寶林寺 등의 사원을 통해 입수한 물품을 소유하고 당 각지에 나가서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海賊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869년 新羅海賊 사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80]

자료 9

① 大宰府言 去月廿二日夜 新羅海賊 乘艦二艘 來博多津 掠奪豊前國年貢絹綿 郎時逃竄 發兵追遂ㅁ不獲賊(《日本三代實錄》貞觀11年(869) 6月15日辛丑涤).

② 遣新羅人廿人配置諸國 淸倍・鳥昌・南卷・安長・全連五人於武藏國 僧香嵩・沙弥傳僧・關解・元昌・卷才五人於上總國 潤淸・果才・甘參・長馬・才長・眞平・長淸・大存・倍陳・連哀十人於陸奧國. 〈 中略 〉 僧沙弥等安置有供定額寺 令其供給. 〈 中略 〉 潤淸・長馬・眞平等才長於造瓦. 預陸奧國修理府造瓦事. 令長其道者 相從傳習(《日本三代實錄》貞觀12年(870)9月15日甲子涤).

위의 사료에 따라 新羅海賊(交易活動者)으로 보이는 構成圓의 성격을 논한 田中史生의 연구가 주목된다. 田中은 자료 9-①의 新羅海賊 사건 처분에 관련한 자료 9-②를 통해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 신라

80) 또한 예를 들면《圓朗禪師塔碑》에서는 856년에 입당했던 月朗禪師가 10년 후인 866년 신라에 귀국할 때 廻易使의 선편을 이용하여 돌아왔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9세기 후반에도 장보고가 행했던 대외교역의 형식과 유지한 대당교역이 신라상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南漢鎬,〈9世紀 後半 新羅商人의 動向〉《靑藍史學》創刊号, 1997, p.143).

인 僧侶나 造瓦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81] 또한 다음 기록을 보면,

자료 10

十三日辛酉 筑後權史生正七位上佐伯宿禰眞繼奉進新羅國牒 郎告大宰少貳從五位下藤原朝臣元利萬侶与新羅國王通謀欲害國家 禁眞繼身付檢非違使(《日本三代實錄》貞觀12年(870)11月13日辛酉涤).

大宰少貳의 藤原元利萬侶가 新羅國王과 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는 新羅海賊사건 다음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 배후에 신라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新羅海賊이 공적기관이나 大宰府官人, 신라왕이라는 정치적 權力體의 구성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山內晋次는 비록 같은 시대의 사료는 아니지만,《扶桑略記》에 있는 "但遺賊中有最敏將軍三人就中有大唐一人"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볼 때 9세기 말기 신라에서는 해족들이 將軍(大將軍・副將軍) 등 계층성을 지녔으며 좀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賊団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新羅人과 唐人이 함께 섞어 賊団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82] 또 權悳永은

81) 田中史生, 〈「歸化」と「流來」と「商賈之輩」〉《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吉川弘文館, 1997, pp.244~248. 또《日本三代實錄》貞觀12年(870)2月20日壬寅涤에는 신라인들이 大宰府管內에 거주하여 교역활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승려나 기술자, 그리고 교역자라는 2중의 얼굴을 갖고 大宰府 管內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 山內晋次, 〈九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民衆の移動と交流〉《奈良 平安期のアジアと日本》吉川弘文館, 2003, pp.244~248. 또한 서해안 연안부의 교역활동 거점에는 唐商人도 빈번히 왕래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19 忠淸道 沔川郡 人物 卜智謙에 따르면, 禰城郡(沔川郡을 말함)에는 高麗 건국의 功臣인 卜智謙 家門이 있었으나 그의 선조인 卜學士는 당에서 신라에 와서 沔川郡에 거주한 인물이다. 거기에 살면서 해적을 퇴치하였고 百姓들을 보호

일본 博多津나 對馬에서 위와 같은 新羅海賊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張保皐 암살 이후 이 시기에 걸쳐 新羅海賊이 대규모화하고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83] 따라서 기록을 통해 新羅海賊의 배후에 신라왕이나 진골귀족 등의 공적기관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거나 조직화된 賊団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聖住寺나 寶林寺 등 南宗禪과 海賊 그리고 王京人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新羅海賊은 聖住寺나 寶林寺(일본의 경우 지리적 환경들을 고려하면 寶林寺일 가능성이 높음) 등에 재편되었던 해적 세력이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王京人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은 南宗禪 사원의 말단에 연결된 海賊 세력이라고 한다면 비록 간접적이나마 그 배후에 신라왕이나 진골귀족 등 공적기관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張保皐의 활동에 의하여 상업과 연결되어 신앙시 된 南宗禪은 장보고 암살 후 신라왕실을 비롯해, 王京人들 사이에까지 침투하였으며 더욱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西南地域 南宗禪은 당시 신라사회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자치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당시 南宗禪 사원을 매체로서 신라왕실 및 진골귀족 등 王京人과 지방세력 그리고 海賊들이 하나에 결합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였다고 한다. 卜智謙의 선조는 당과 신라를 왕래한 해상교역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해군력과 경제력을 만들며, 禮城郡 지방에서 유력한 豪族으로까지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鄭清柱, 〈豪族의 擡頭〉《新羅末 高麗初 豪族硏究》一潮閣, 1996, pp.32~33).

83) 權悳永, 〈신라 하대 서남해 海賊과 張保皐의 해상활동〉《대외문물교류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pp.20~23.

이와 같이 당시 南宗禪이 다양한 세력을 모두 포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종교적 특성을 지녔기에 가능하였으리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南宗禪이 지방사회에서 뿌리 내렸던 文聖王代로부터 定康王代 동안에는 이상한 집단이나 도적이 발생하였던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단순히 농민들의 처지가 나아졌기 때문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전후와 비슷한 흉년과 기근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불만인 농민들이 신앙한 반신라적 사상이 억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84] 신라왕실을 비롯하여 張保皐, 王京人들의 원조를 받아 잘 확립된 南宗禪은 지방사회에서 이상세계를 표방하는 末世意識 등을 약화시키고 서로를 잘 융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85]

게다가 특히 張保皐 암살 후 西南海岸 南宗禪 사원은 지방과 중앙의 연결 역할뿐만 아니라 당이나 일본 등 밖에 향하는 국제교류의 창구로써도 그 기능을 다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張保皐 암살 이후 王京人들의 외부로 향하는 의욕과 움직임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의 외교활

84) 趙仁成, 앞의 논문 1994, pp.30~31.

85) 최근에는 당시의 말세의식(미륵신앙)과 남종선이 서로 대립하였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서로 우대적인 관계를 지녔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張日圭, 〈신라 금석문의 말세의식과 미륵신앙〉《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2005, p.203). 張日圭, 앞의 논문, pp.194~201에 따르면, 865년 철원 등의 비로자나불은 지방민들이 말세를 극복하려는 서원으로 조성한 것이고 그것은 화엄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더욱이 도의나 범일들의 선종사상에는 화엄종 사상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그러한 말세의식(미륵신앙)과 남종선도 긴밀히 관계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朗慧和尙碑》를 통해 볼 때 최치원이 낭혜를 계속산에서 미륵을 기다리는 가섭으로 비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선사들이 미륵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를 참조하면 南宗禪이 지방사회에서 말세의식을 약화시켰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과 잘 조화되고 있었던 모습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86) 張保皐 암살 후에 보이는 신라왕권 및 왕경인들의 외교활동 추이나 외교의식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하고자 한다.

동 모습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86] 이러한 점에서 南宗禪은 9세기 중후반 신라사회에서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도 최선단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신라사회에 수용된 南宗禪의 발전과정과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특히 남종선의 종교적 성격 및 장보고 세력의 활동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중에서도 신라왕실과 함께 장보고 세력이 남종선의 종교적 성격인 경제윤리에 주목하여 신라사회에 남종선을 전래·발전시켰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남종선이 신라왕실과 지방세력, 해적 등을 하나로 결합하여 신라 말 사회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南宗禪은 821년에 귀국한 道義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당시 신라 왕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830년 興德王에 이르러서 慧昭와 洪陟을 부르는 것을 계기로 하여 크게 변화하였는데 당시 신라왕실이 南宗禪을 긴급하게 수용한 배경에는 당시 뿌리 내린 지방사회의 사상계적 동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興德王 3年(828)의 漢山州 瓢川縣에서 速富之術을 내세운 妖人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하층농민들의 사이에는 理想世界를 기대하는 종교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왕실은 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였고 그 일환으로

南宗禪을 수용하여 지방사회에 만연한 速富之術와 같은 반신라적 사상이나 종교집단을 억누르고자 하였다. 이때 신라가 주로 수용한 西堂智藏 계통인 남종선은 節儉, 勤勞, 普請을 중시하여 현실적 측면을 직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막연하게 理想世界를 기대하는 速富之術과 완전히 상반되는 종교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신라사회의 南宗禪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張保皐였다. 그가 일찍이 南宗禪을 신앙으로 삼았다는 점은 이미 赤山法花院의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승려들이 평등하게 노동에 종사하는 등 南宗禪의 성격이 강하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중 특히 張保皐의 경우에는 三角貿易을 전개한 國際商人으로서의 그의 성격과 남종선에 대한 믿음이 직접적으로 관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南宗禪의 商業觀과 商業倫理를 해명한 余英時 연구에 의하면 淸規의 節儉, 勤勞, 普請이라는 경제윤리가 나중의 상업관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張保皐가 南宗禪을 신앙한 것과 商業帝國을 건설하고자 한 것은 서로 깊은 연관성에 있었던 것이다. 즉 張保皐의 南宗禪에 대한 신앙심은 국제교역을 추진하는 데 큰 사상적 역할을 이루었으며, 당시 자신의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南宗禪의 祖師 아래 세력을 형성한 신앙형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를 통해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南宗禪 이외의 불교와 張保皐를 비롯한 해상세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한 연구와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87]

87) 曺凡煥, 앞의 논문 2007(b)은 홍진대사와 김우징, 張保皐 세 사람의 관계를 지적하여 홍진대사가 천관사에서 화엄신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청해진의 張保皐 세력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더욱이 화엄신중과 해양세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南宗禪은 張保皐가 암살당한 후, 귀족세력을 비롯하여 王京人들에까지 침투하였으며 8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南宗禪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847년경 西海岸에 창건된 聖住寺를 들 수 있겠다. 聖住寺는 侍中兼兵部令였던 金陽들이 租稻 등 막대한 비용을 납입하여 檀越이 되어 창건되었다. 그리고 858년경 전남 장흥에서 體澄에 의해 정비된 寶林寺 역시 金入宅을 비롯한 몇 명의 인물들이 희사한 租穀이나 金 등으로 운영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으로는 王京人들이 이미 서남지역에서의 南宗禪 역할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과 국제상인으로서 성장한 張保皐와 南宗禪의 관계를 계승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후 王京人들이 희사한 다양한 물품들은 사원에 모인 海賊들에게 再分配되었고 이로써 그들은 각지에 나가서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바로 이 점에서 南宗禪 사원을 매체로 신라왕실 및 진골귀족 등 왕경인들과 지방세력, 그리고 해족들이 하나에 결합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南宗禪의 수용과 발전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이것은 신라국가 · 왕권을 둘러싼 정치, 외교부터 사회경제, 문화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南宗禪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작업은 신라 중세사회를 새롭게 해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남종선이 9세기 이후 중국과 신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남종선이 지니는 국제성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새삼 느끼며 이에 따른 다방면에서의 상세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9~10세기 金銀의 유통과 동아시아 교역

◆

이유진

1. 머리말
2. 신라의 金銀과 당 · 일본
3. 일본 金銀의 동아시아 유입
4. 金銀의 유통과 동아시아 교역의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9~10세기의 동아시아는 대외교류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9세기 중반 이후 10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교역은 교역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朝貢과 回賜라는 형식을 통한 公貿易에서 商人들의 해상활동을 통한 私貿易의 형태로 전환되어 갔고[1], 9세기 중반까지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인과 재당신라인들이 주도하던 동아시아의 해상교역은 張保皐의 사후 점차 중국 상인의 주도로 변모해 갔다[2].

1) 김문경 · 김성훈 · 김정호 편《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 이진, 1993; 손보기 엮음,《장보고와 청해진》, 혜안, 1996; 손보기 · 김문경 · 김성호 엮음,《장보고와 21세기》, 혜안, 1999; 김문경,〈장보고 시대의 해상활동과 교역〉《한중문화교류와 남방항로》, 국학자료원, 1997; 이병로,〈九世紀 초기의 '環지나海무역권' 의 고찰-장보고와 대일교역을 중심으로〉《일본학지》15, 1995; 李成市《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正倉院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青木書店, 1997; 松原弘宣,〈陳泰信の書狀と唐物交易使の成立〉《續日本紀研究》317, 1998; 同,〈九世紀代における對外交易とその流通〉《愛媛大學法政學部論集》人文科學編 6, 1999; 同,〈鴻臚館交易について〉《愛媛大學法政學部論集》人文科學編 10, 2001; 山崎雅稔,〈9世紀日本の對外交易〉《アジア遊學》26, 2001; 渡辺誠,〈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ヒストリア》184, 2003 등 참조.

이러한 변화는 이어지는 동아시아 정세와 각국의 외교적 긴장관계 속에서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왕조의 쇠퇴기로 접어든 당은 여전히 동아시아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부의 혼란 극복에 주력하다보니 주변국과는 종래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머물렀을 뿐이고, 신라와 일본도 9세기 후반에 이르러 특히 일본의 신라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3] 양국의 民間交流마저도 점차 소원해져 갔다[4].

또한 寬平 6년(894) 9월 공식적으로 遣唐使파견을 정지한 일본은 신라와의 관계악화 뿐만 아니라 이후 당과도 모든 공식적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는 중국 상인들과의 교역만을 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세기 초 결국, 동아시아의 구심체였던 당이 멸망하고(907), 이어 신라도 멸망하였으며(936), 일본은 왕조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律令制를 기반으로 한 천황지배체제가 무너지고 귀족정치로 변모해 갔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국내외적 격변기에 해당하는 9~10세기의 동아시아가 어떻게 대외교역관계를 유지·변화시켜갔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적인 물품의 이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주목한 것이 金銀이다.

---

2)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해 장보고 사후 동아시아해상교역에 종사하는 중국 상인의 대다수는 재당신라인이나 그들의 후예로 밝혀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권덕영《재당신라인사회연구》, 일조각, 2005 등 참조.

3) 이병로,〈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일본학지》16, 1996; 生田滋,〈新羅の海賊〉《海と列島文化-日本海と出雲世界》2, 1991; 酒寄雅志,〈九・十世紀の日本の國際關係〉《アジア遊學》26, 2001 등 참조.

4) 山內晉次,〈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の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歷史科學》122, 1990; 同,〈9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民衆の移動と交流-寇賊・反亂をおもな素材として-〉《歷史評論》555, 1996 등 참조.

金銀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朝貢과 回賜를 통해 전달되는 국제 교역품뿐만 아니라, 교역대가로써의 지불수단이기도 하였다. 金銀교역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5], 근래에도 꾸준히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거의 일본과 중국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일본사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金銀[7]교역의 실제를 재검토하고 그 유통을 중심으로 9~10세기 동아시아교역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라의 金銀과 당 · 일본

3~4세기 무렵부터 倭에 의해 金銀의 나라로 일컬어졌던[8] 신라는 일찍부터 당 ·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교역에 金 · 銀을 이용하였다.

먼저 신라의 금은이 당으로 유입된 내용을 검토해 보자. 당과 册封體

5) 加藤繁,《唐宋時代に於ける金銀の研究》, 東洋文庫, 1926; 小葉田淳,《金銀貿易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6; 三克己,〈日宋貿易と奥州の砂金〉《續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등 참조

6) 保立道久,《黃金國家-東アジアと平安日本-》, 青木書店, 2004; 五味文彦,〈日宋貿易の社會構造〉《今井林太郎先生喜壽記念國史學論叢》, 1988; 田島公,〈大宰府鴻臚館の終焉-八世紀~十一世紀の對外交易システムの解明〉《日本史研究》389, 1995; 田中史生,〈歸化〉と〈渡來〉と〈商賈之輩〉-律令國家における國際交易の變遷過程-〉《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1997; 同,〈筑前國の銀の流通と國際交易-銀流通の前提を再考する-〉《古代の銀と銀錢をめぐる史的檢討》, 2004; 皆川雅樹,〈9~10世紀における日本の金と對外關係-大宰府鴻臚館を中心として-〉《古代交通研究》11, 2002; 渡辺誠,〈平安期の貿易決濟をめぐる陸奥と大宰府〉《九州史學》140, 2005 등 참조.

7) 金에 대해서는 사료 상에는 '金' '黃金' '麩金' '砂金' '沙金'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그 종류별로 세분하지 않고 모두 金으로 파악한다.

制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신라는 册封國으로서 기본적으로 朝貢과 回賜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였다. 양국 사이에 교류된 물품명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三國史記》나《册府元龜》《唐會要》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조공과 회사의 기록에서 몇 가지 물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당에 보낸 조공품으로는 신라특산품(牛黃, 人蔘, 美髢 등), 견직물이나 布 등의 섬유류와 金銀銅 등의 금속공예품, 그리고 원료인 金・黃金・麩金・銀 등을 매 시대마다 당에 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은 외교적인 의례품이나 견 등 고급직물류, 금속가공제품, 典籍이나 불교용품 등의 문화관련 물품을 회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신라는 일찍부터 金銀을 채굴했고, 이를 제련・가공하는 기술 또한 뛰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은공예품이야 당연히 신라가 당에 보낸 貢獻品이었겠지만, 원료적 형태의 금은은 조공품이었는지 아니면 조공과 회사 이외에 당으로부터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지불의 수단 등 이외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에 金은 희소금속으로 당에서 유통되고 있던 銅錢 이상의 財寶的 가치를 가진 것이었고[9], 銀 역시 당 내부에서 화폐와 마찬가지로 유통되고 있었을[10]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조공품으로서

8)《日本書紀》神代上(寶劍出現) 一書第五; 仲哀天皇 8년 9월 己卯條; 神功皇后攝 政前紀 10월 辛丑條, 12월 辛亥條; 顯宗元年 正月 己巳條; 繼體 6년 2월 辛卯條 등.

9) 당에서 金이나 布가 화폐와 함께 유통되며 銅錢 이상의 財寶的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특히 兩稅法이 성립(780)된 이후 조세가 錢納化되면서 일어난 동전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화폐와 함께 통용되던 金이나 布 등 현물화폐가 지니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栗原益男・布目潮風《中國の歷史》, 講談社, 1975).

만이 아니라 일종의 교역상품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써도 이용되었을 것이다[11].

물론 金銀이 언제부터 교역상품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과 주변국과의 국제교역인 互市에서도 布나 米 등이 주요 교환수단으로 병용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당의 경제구조가 金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9세기 대에 이르면 이미 당 내부에서 금은이 다량으로 산출되어[12] 이것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13] 金銀이 교역대가로 지불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신라는 조공뿐만 아니라 당에 宿衛學生을 보낼 때 국가가 買書銀이나 買書金을 주어 학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14], 또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高麗史》권1 定宗世家 3년(948) 9월조에 보면 여진으로부터 구입한 말의 대가로 錦絹과 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신라와 당 사이에 금은은 9세기 이후 점차 조공품 이외에 가치교환의 수단으로써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이 開元 2년(714) 閏3월(《唐會要》권86 市)과 建中 元年(780) 10월(《册府元龜》권999 外臣部 互市)에 내린 禁令과 關市令(《唐律疏議》권8 衛禁律 '齎禁物私度關') 등에 金銀銅鐵 등이 교역금지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당의 남부지역에서 유통된 庸調銀의 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栗原益男 · 布目潮風《中國の歷史》, 講談社, 1975); 日野開三郎,〈唐代嶺南における金銀の流通〉《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5, 1984

11) 日野開三郎,〈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9, 1984, p. 81

12)《元和郡縣志》와《新唐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의 金 산지는 모두 60여 州, 銀의 산지는 모두 70여 州에 이른다(加藤繁, 앞의 책, pp.496~509).

13) 日野開三郎,〈唐代嶺南における金銀の流通〉《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5, 1984

14) 박남수,〈8-9세기 한 · 중 · 일 교역과 장보고의 경제적 기반〉《대외문물교류연구》4, 2006, p.135 ;《東史綱目》제5상 己丑 景文王九年(869) 秋七月 … 又遣學生李同等三人 隨胤往請習業賜買書銀三百兩 ….

〈표1〉 신라에서 당으로 금은의 유입

	연도		출 전
1	665	金	三國史記
2	672	銀	三國史記
3	723	金, 銀	三國史記, 東史綱目, 册府元龜
4	724	金, 銀	唐會要
5	730	金	三國史記
6	733	金	三國史記, 册府元龜
7	748	銀	唐會要
8	773	金, 銀	三國史記, 東史綱目, 册府元龜, 唐會要
9	810	金, 銀	東史綱目
10	869	金, 銀	三國史記, 東史綱目
11	929	金, 銀	五代會要

신라와 일본 사이에도 일찍부터 금은이 유통되었다. 양국 간의 교역이 시작된 이래 8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신라의 금은이 일본으로 전해진 것에 비해, 9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금이 신라로 전해지고 있다. 804년 日本使는 신라에 황금 300냥을 진상하였고[15], 이후 882년에도 일본사가 신라에 금을 바친 기록이 있다[16].

일본에서 金이 산출되는 것은 天平 21년(749) 陸奧에서 금이 산출되면서부터이다. 陸奧에서 금이 산출되기 이전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금을 구하고 있다. 7세기 고구려나 신라가 일본에 보낸 물품에 금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수요에 응해 고구려나 신라가 준비한 물품일 것이다[17].

8세기에 이르러서도 일본은 신라로부터 금을 수입하고 있다. 天平勝

15) 《三國史記》권10 신라본기 제10 哀莊王 5년 5월 夏五月 日本國遣使 進黃金三百兩

16) 《三國史記》권11 신라본기 제11 憲康王 8년 4월 夏四月 日本國王遣使 進黃金三百兩・明珠一十箇.

寶 4년(752) 일본에 金泰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新羅使가 파견되었는데 이는 교역을 주목적으로 한 것 이었다[18]. 이들은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의 귀족층은 앞 다투어 교역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때의 물품주문서에 해당하는 '買新羅物海' 30여 점[19]이 正倉院寶物의 下貼文書로 남아 당시의 교역품명이나 지불수단 등 교역의 실태를 전해주고 있다. 이때에는 각종 香料·藥物·顔料·染料·器物 등 다양한 물품이 교류되었는데 특히 4통의 '買新羅物海' 에서[20] 일본귀족들은 金(黃金)의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752년은 陸奧에서 금이 산출되고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금은 신라와의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물품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당시에 東大寺大佛을 조영하며 그 도금을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신라로부터 대량의 금을 수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때에 일본이 신라뿐 아니라 당으로부터도 금을 수입하기 위해 견당사의 파견을 계획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1].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8세기 후반에도 금과 은을 매개로 한 교류가 행해지고 있었다. 《三國遺事》권2 元聖大王 貞觀 2년(786) 丙寅 10월 11

17) 《日本書紀》推古 13년 4월 辛酉條; 皇極 元年 2월 丁未條; 天武 8년 10월 甲子條; 天武 10년 9월 乙酉條; 朱鳥 元年 4월 戊子條; 持統 2년 2월 辛卯條 등.

18) 濱田耕策, 〈新羅中代·下代の內政と對日本外交〉《新羅國史の硏究》, 吉川弘文館, 2002; 石井正敏, 〈8·9世紀の日羅關係〉,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1987; 김창석〈8세기 신라일본 간 외교관계의 추이-752년 교역의 성격검토를 중심으로-〉《역사학보》184, 2004 등 참조. 그러나 이 752년의 신라와 일본 간의 교역에 대해 신라 측의 국제교역이 주목적이 아니라, 당시 신라와 일본 양국이 가진 정치적 의도가 더 중시된 사절의 파견이라는 견해도 있다(李成市, 앞의 책).

19) 東野治之,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硏究〉《正倉院文書と木簡の硏究》, 塙書房, 1977;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正倉院文書硏究》2, 1994 등 참조.

20) 《大日本古文書》25권 44항, 48항, 皆川完一 논문의 1호문서, 東野治之 논문의 12호문서.

21) 《扶桑略記抄》권2 天平21년 정월 4일.

일조에 의하면, 일본왕 文慶이 금 500냥을 보내 신라의 神物인 萬波息笛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은 다음 해에 다시 사절을 통해 금 1,000냥을 보내 만파식적을 청했으나 원성왕은 그 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은 3,000냥을 일본사절에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延喜式》大藏式賜蕃客條에는 唐의 황제에 대한 여러 賜物品이 기록되어 있다.[22] 여기에는 '銀大五百兩' 이라 기록되어 있고, 금의 사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入諸蕃使條를 포함해 보아도 외교사절이나 蕃客에게 지급·사여하는 물품에 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연희식》의 규정은 8세기 일본 내의 상황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8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금을 수입하는 입장이었고, 일본이 대외교역에 사용한 것은 은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 황제에게 은을 사여한다고 하는《연희식》의 규정도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당의 황제가 '蕃客' 으로써 일본에 왔을 경우에 은을 사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당에 보낸 조공품의 내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며, 기록을 통해 보는 한 8세기 단계에서 일본에서 금은의 사용은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東大寺의 末寺였던 觀世音寺의 天平寶字 2년(758) '奴婢例文' [23]에 나타난 노비의 노동력을 은으로 환산하는 내용의 문서와 無文銀錢 등의 화폐적 유통의 검토를 통해 筑前國을 중심으로 적어도 8세기 이후 일본의 西海道에서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신라인과 은을 매개

22)《延喜式》卷30 大藏省 大唐皇 銀大五百兩 水織絁 美濃絁各二百疋 細絁 黃絁各三百疋 黃絲五百絇 細屯綿一千屯 ….

23)《古文書集一》, 早稻田大學藏資料影印叢書, 1985; 龜田隆之,〈觀世音寺の奴婢〉《日本古代制度史論》제2편, 吉川弘文館, 1980 등 참조.

로 가치기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24] 즉 신라와 일본 간에는 新羅使와 같은 국가적 관리를 수반하는 교역 이외에도 신라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筑前國 등의 지역에서는 양국 간에 독자적으로 이미 은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觀世音寺는 830년대 僧侶 惠雲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에게 銅銙 등의 佛具를 가지고 온 '新羅商客' 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고,[25] 또 觀世音寺의 우물에서는 신라상인들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것이 통설이 된 8세기 후반의 월주요계청자가 출토되는 등[26] 신라와 일본 간의 교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다음은 신라 내에서 金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9세기 초반에 신라에서 금은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삼국사기》권33 잡지에 의하면 834년 신라는 진골귀족이하 평민에 이르기까지 의복뿐만 아니라 車騎·器用·屋舍까지도 계층마다 그 장식이나 금은소재 등의 사용규제를 법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禁令의 배경에는 이미 신라에 금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 哀莊王 7년(806)에는 佛寺와 불교행사에 관한 禁令을 반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금은을 사용했던 器用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27] 물론 이것은 사원통제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미 9세기 초반 신라에서는 금은을 사용한 기물의 제작이 성행하고

24) 田中史生, 앞의 논문, 1997, pp. 219~236; 同 2004 등 참조.

25)《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平安遺文》1-164 庫頭 … 餘昔被拜大宰府講師 兼筑前國講師之日 新羅商客頻頻往來貨賚銅鋺疊子等 ….

26) 九州歷史資料館,〈大宰府史跡〉《昭和51年度發掘調査概報》, 1977.

27)《三國史記》新羅本記 哀莊王 7년(806) 下教禁新創佛寺 唯許修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있었고, 그 중심의 하나가 사원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라에서 금은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던 9세기 단계에서, 일본사가 신라에 황금을 진상하고 있는 것은 양국 간에 금은의 유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803년 4월, 804년 5월, 806년 3월, 808년 2월에 일본으로부터 사절이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803년의 기록 이외에는 일본 측에는 이와 관련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는 아마도 大宰府의 府官이나 大宰府管內의 國司 등이 '日本使'를 칭하여 私貿易을 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28] 이러한 상황 하에서 804년 일본이 신라에 보낸 금이 단순한 교역품 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고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신라로부터 금을 구매하던 일본이 9세기 단계에는 신라로 금을 유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29]

〈표2〉 일본 금은의 신라 유입

	연도		출 전
1	786	金	三國遺事
2	787	金	三國遺事
3	804	黃金	三國史記
4	882	黃金	三國史記, 東史綱目

28) 石井正敏, 앞의 논문

29) 일본의 금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8세기 후반에 확인된다. 《續日本紀》寶龜 7년(776) 4월 壬申條에 보면 御前殿賜遣唐使節刀 詔曰 … 事畢 賜大使副使御服 賜前入唐大使藤原河清書曰 汝奉使絶域 久經年序 忠誠遠著 消息有聞 故今因聘使 便命迎之 仍賜絁一百匹 細布一百端 砂金大一百兩 宜能努力 共使歸朝 相見非賒 指不多及이라 하여 금이 단순한 교역품으로서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표3〉 신라 금은의 일본 유출

	연도		출 전
1	682	金, 銀	日本書紀
2	689	金, 銀	日本書紀
3	752	(黃)金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
4	787	銀	三國遺事

3. 일본 金銀의 동아시아 유입

일본 금은이 어떻게 당과 신라로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서 금은이 언제부터 산출되고 있는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698년 對馬島에 금을 정련하게 하였고,[30] 701년에는 비로소 黃金이 생산되고 있다.[31] 그러나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금이 산출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天平 21년(749) 陸奧에서 금이 산출되면서부터이다. 743년 동대사대불 조영을 계획한 일본은 747년에 드디어 대불의 조영에 착수했다.[32] 그러나 대불의 도금에 필요한 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일본 조정은 各國에 금광의 탐색 및 개발을 명했다. 그 결과 749년에 陸奧國司가 部內의 小田郡에서 채취한 금 900兩을 헌상하면서[33] 일본에서 금의 생산이 본격화 된 것이다.

30) 《續日本紀》권1 文武天皇 2년 12월 辛卯條 令對馬嶋冶金鑛.

31) 《續日本紀》권1 大寶元年 3월 甲午條 對馬嶋貢金; 8월 丁未條 先是 遣大倭國忍海郡人三田首五瀨於對馬嶋 冶成黃金.

32) 《東大寺要錄》권1 本願章 延曆僧錄; 권2 緣起章 大佛殿碑文; 前田泰次외 《東大寺大佛の硏究》, 岩波書店, 1997 등 참조.

또한 876년에는 唐人들이 肥前國 松浦郡의 섬에서 은 등을 채취했다고 하는 기록도 보인다.[34] 이 사료를 통해 우리는 일본에서 8세기부터 시작된 금은 채굴은 9세기 단계가 되면 채굴 지역이 널리 확산되고 그 주변국과의 교류 역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일본의 금은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당에 贈物로 보내졌고, 또 遣唐使의 파견에 여비 등으로도 충당되었다. 초기에 견당사는 일본에서 주조했던 '和同開珎'[35] 등의 銀錢을 휴대하고 당으로 갔지만 그것이 당에서 통용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비 등에 이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금이 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견당사들은 金塊·銀塊나 砂金의 형태로 주로 금은을 휴대하고 당으로 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續日本紀》寶龜 7년(776) 4월 壬申條에 의하면, 일본 조정은 제11차 견당사로 天平勝寶 4년(752)에 파견된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당에 머물고 있는 前入唐大使 藤原清河에게 寶龜 8년(777)에 파견될 제14차 견당사를 통해 砂金 大100兩을 하사했다.[36] 또 견당사가 출발할 때 宮中에서 賜餞을 행하고 그 때 綵帛, 覓布 등과 함께 砂金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16차 견당사가 출발할 때 大使

---

33)《續日本紀》권3 天平勝寶元年 2월조 天平二十一年二月丁巳 陸奧國 始貢黃金 於是奉幣 以告畿內七道諸社; 4월 甲午朔條 … 此大倭國者 天地開闢以來 黃金人國獻言有 斯地者無物念聞看食國中東方陸奧國守從五位上百濟王敬福 部內少田郡黃金在奏憲 …, 乙卯條 陸奧守從三位百濟王敬福工黃金九百兩.

34)《三代實錄》권28 清和天皇 貞觀 18년 3월 丁亥條 … 唐人等必先到件嶋 多採香藥以加貨物 不令此間 人民觀其物 又其海濱多奇石 或鍛鍊得銀 或琢磨似玉 ….

35) 和同錢은 銀錢, 銅錢의 두 종류로 和同 元年(708)에 발행되었다.
1970년 10월 초 中國 西安 南郊에 있는 何家村의 건축현장에서 두 개의 벽돌과 은제 항아리(銀罐) 하나가 서로 이어진 채 발견되었다. 그 속에서 각종 財寶 및 金銀器 등과 함께 이 일본 最古의 銀錢인 和同開珎이 발견되었다. 이는 아마 견당사로 파견되었던 누군가가 당으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36) 주 29) 참조.

藤原葛野麻呂에게는 금 200兩, 副使 石川道益에게는 금 150兩이 하사하였다.[37] 대개 대사에게는 금 200냥, 부사에게는 금 100냥에서 150냥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후 9세기에 이르면 入唐留學僧(留學生)과 관련하여 그들의 학비나 여비 등을 금으로 충당한 예가 많이 보인다. 이는 아마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가 당에 숙위학생을 파견할 때 買書金이나 買書銀을 주어 경비 등에 충당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延曆 15년(796) 渤海使를 통해 太政官의 書와 沙金 少300兩이 在唐學問僧 永忠 등에게 하사된 것을 시작으로,[38] 延曆 23년(804)에는 入唐求法僧 사이쪼(最澄)가 台州刺史 陸淳을 만나 金 15兩, 筑紫輩紙 200張 등을 선물하였다.[39] 이는 아마 사이쪼가 유학경비로 일본에서 가져 온 것이었을 것이다. 또한 弘仁 9년(822)에는 嵯峨天皇이 발해사를 통해 入唐留學生 靈仙에게 黃金을 하사하였고,[40] 天長 3년(826)에도 발해사를 통해 淳和天皇이 五臺山에 머물고 있는 靈仙에게 黃金 100兩을 하사하였다.[41]

제17차 견당사와 함께 당에 들어가 유학한 엔자이(圓載)와 엔닌(圓仁)에게도 그 여비와 유학경비로 금이 전달되었다. 承和 6년(839)에는 遣唐大使가 留學僧 엔자이에게 學問料로 沙金 25大兩을 주었다.[42] 承和 8년(841)에는 재당신라상인인 陶十二郎을 통해 엔닌에게 砂金 24小兩

37) 《日本後紀》권11 延曆 22년 3월 庚辰條 … 賜葛野麻呂御被三領·御衣一襲·金二百兩, 道益御衣一襲·金一百五十兩;《續日本後紀》承和 3년 4월 壬申條.

38) 《日本紀略》延曆 15년 5월 丁未條 … 仍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云云 特寄絹二十疋絁二十疋 絲百絢 綿二百屯 以宛云云 今因定琳等還 沙金小三百兩以宛永忠等.

39) 《顯戒論緣起》延曆 23년 9월 26일조.

40) 《入唐求法巡禮行記》開成 5년 7월 3일조.

41) 《入唐求法巡禮行記》開成 5년 7월 3일조;《續日本後紀》承和 9년 3월 6일조.

이 전해졌고,[43] 承和 11년(844)에 일본 조정은 엔자이의 제자 仁好편에 엔닌과 엔자이에게 旅資로서 黃金 200小兩을 보내주었다.[44] 承和 13년(846)에는 엔닌의 제자 性海 등 '엔닌수색대'가 黃金을 가져왔고,[45] 嘉祥 元年(848)에도 엔자이에게 黃金 100小兩이 전해졌다.[46]

그리고 元慶 초(877?)에는 엔친(圓珍)에게 叡山으로부터 黃金 100兩과 讚岐權守 高向公輔가 보내는 황금 10兩이 전달되었다.[47] 원경 6년(882)에는 엔친이 砂金 50兩으로 佛經을 구하였고,[48] 寬平 2년(890)에도 圓珍은 이전(원경 6년 7월 15일)에 揚州의 사람이 보내준 寫經 50권에 대한 답례로 沙金을 보냈다.[49] 이렇게 엔친은 유학 경비로 금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寬平 6년(894) 太政官은 在唐僧 中瓘에게 砂金 150小兩을 보내주었다.[5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승들은 일본에서 金(砂金), 絁, 綿, 布 등을 가지고 가서 당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것은 금이었다. 承和 5년(838) 제17차 견당사가 입당했을 때, 양주의 시장에서 砂金 大1兩이 7錢에 해당한다는 교환율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유학승들에게 그 주요한 경비로 금이 하사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1]

---

42) 《入唐求法巡禮行記》承和 6년 2월 27일조.
43) 《入唐求法巡禮行記》會昌 2년 10월 13일조.
44) 《續日本後紀》承和 11년 7월 2일조.
45) 《入唐求法巡禮行記》會昌 6년 正月 9일조; 2월 9일조; 4월 27일조; 5월 1일조; 10월2일조.
46) 《續日本後紀》嘉祥 元年 6월 5일조.
47) 《平安遺文》9-4548;《三代實錄》元慶 4년 10월 19일조.
48) 《平安遺文》9-4541; 9-4542.
49) 《平安遺文》9-4548.
50) 《日本紀略》寬平 6년 7월 22조;《管家文草》권10.

그런데 수·당대의 무게 단위인 大1兩은 10錢에 해당하고 1兩의 1/100에 해당하는 것이 1分이다. 또 1貫은 1,000文에 해당하는 화폐단위였으므로 金 7錢은 70分, 9貫 400文은 9,400文이므로 금 1分은 134.3文의 화폐가치를 지닌다.[52]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53] 840년대 중국 산동반도 지방의 지역별 곡식 값은 대체로 米 1斗에 60文, 粟 1斗에 30~50文, 粳米 1斗에 70~100文 등 이었다.[54]

엔닌은 당에서 新譯經과 念誦法 등을 寫經하는데 금 25兩의 공가를 지불하였고 《維摩關中錄疏》 4권을 450文에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55] 당시 중국에서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금이 일본유학승들의 경비 충당에 얼마나 유효한 것이었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836년까지 陸奧國 白河郡의 砂金채굴량도 749년의 산출량과 비교해 倍增하였으며,[56] 그것이 이후 견당사파견의 비용에 충당되거나 현지 활동비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57] 예를 들어 최후의 견당사의 일원이었던 藤原貞敏은 揚州에서 廉承武라는 피리의 명인에게 금 200兩을 주고 피리 부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58]

다음은 9세기 후반 일본의 국제 교역품에 대한 물품구입의 지불수단

51) 《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 5년 10월 14일조 十四日 砂金大二兩 於市頭令交易 市頭秤定一大兩七錢 七錢准當大二分半 價九貫四百文 更買白絹二疋價二貫 ….

52) 박남수, 〈신라 중·하대 장인의 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6》, 2002, pp. 144~146.

53) 《入唐求法巡禮行記》開成 5년 3·4월조.

54)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2, 鈴木學術財團, 1966, pp. 253~254; 권덕영, 〈재당신라인사회와 적산법화원〉 《사학연구》62, 2001, pp. 69~70 등 참조.

55) 《入唐求法巡禮行記》承和 5년 11월 2일조.

56) 《延喜式》권23 民部 交易雜物.

57) 田中史生, 〈入唐僧(生)をめぐる諸問題-平安時代を中心として-〉 《史學研究集錄》18, 1993.

이 綿에서 金으로 변모[59]되고 있음을 大宰府를 통해 확인해 보자.

大宰府는 늦어도 9세기 후반 경에는 중국 상인들과의 국제교역을 위해 금을 비축해 두고 있었던 것 같다. 《三代實錄》 元慶 元年(877) 12월 8일조에 의하면[60] 大宰府의 '資材·蕃客·遣唐使留置·返上'의 〈四箇帳〉에 기록되어 있는 '貢綿' 1,152屯이 창고에 쌓인 채 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沙金 572兩으로 바꾸어 비축하고자 하는 大宰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삼대실록》 元慶 3년(879) 10월 13일조에 의하면[61] 大宰府에서 唐人이 항해해 오면 구입하는 '貨物'의 대가로서 창고에 비축해 두고 있던 砂金, 水銀, 錫, 綿, 絹 등을 借用하여 교역을 행하고, 교역 후에 반납할 때는 砂金을 官給의 綿에 준해 반납하며, 그 때 砂金 1兩 = 綿 16屯, 絹 1疋 = 綿 14屯으로 환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府司가 반납할 수 없어 원경 3년의 시점에 大宰府 창고에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砂金 633兩과 水銀 175斤의 반납을 면제하여, 실제와 장부상의 차를 없게 했다. 이것은 元慶 2년(878) 8월 14일 官符에 唐人 崔鐸과의 교역 때에

58) 《三代實錄》貞觀 9년 10월 己巳條 勅 令大宰府 庫物之代砂金六百三十二兩·水銀百七十五斤 注附官帳 先是府司申請 每唐人來 募貨物直 借用庫物 交關畢後 以砂金准官給綿 惣計返納 其砂金一兩充綿十六屯 絹一疋充綿十四屯 府司不能勘却 行來尙矣 今當交代之日 新司論曰 物非其實 相違官帳 仍不受領 而太政官去年八月十四日符 只免唐人崔鐸之時返上砂金三百六十一兩 望請準據彼例 被許注帳 從之.

59) 田島公, 앞의 논문; 吉川眞司〈國際交易と古代日本〉, 2006·2007 장보고연구회 한일공동연구 연구결과보고.

60) 《三代實錄》元慶 元年 12월 8일조 先是大宰府者言 資財蕃客遣唐使留置返上等四箇帳 貢綿千一百五十二屯 徒積庫底 將致腐損 請相博沙金五百七十二兩 以爲永貯 至是許之.

61) 《三代實錄》元慶 3년 10월 己巳條 勅 令大宰府 庫物之代砂金六百三十二兩水銀百七十五斤 注附官帳 先是府司申請 每唐人來 募貨物直 借用庫物 交關畢後 以砂金準官給綿 惣計返納 其砂金一兩充綿十六屯 絹一匹充綿十四屯 府司不能勘却 行來尙矣 今當交代之日 新司論曰 物非其實 相違官帳 仍不受領 而太政官去年八月十四日符 只免唐人崔鐸之時 返上砂金三百六十一兩 望請 準據彼例 被許注帳 從之.

생겼던 '返上砂金' 361兩을 면제해 주었던 예에 준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元慶 연간의 두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일본은 국제교역을 할 때에 재원의 일부였던 綿이 '沙金'으로 교체되었으며, 大宰府에 '砂金'을 반납하여 이를 비축하는 등 점차 교역의 대가가 綿에서 金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일본에서 당으로 금의 유입

	연도		출 전
1	776	砂金	續日本紀
2	796	沙金	日本紀略
3	804	金	顯戒論緣起
4	822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5	826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6	836	砂金	續日本後紀
7	838	砂金	三代實錄
8	839	沙金, 金	入唐求法巡禮行記
9	841	砂金	入唐求法巡禮行記
10	844	黃金	續日本後紀
11	846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12	848	黃金	續日本後紀
13	852	黃金	長谷寺靈驗記
14	877	黃金	三代實錄
15	878	砂金	三代實錄
16	882	砂金	平安遺文9-4541
17	890	沙金	日本紀略, 平安遺文9-4548
18	894	砂金	日本紀略
19	909	沙金	日本紀略
20	926	黃金	日本紀略
21	938	砂金	貞信公記抄
22	947	砂金	帝王編年記
23	953	金	平安遺文9-4623
24	982	砂金	小右記

일본과 발해 사이에도 금이 교류되고 있다. 《속일본기》 777년 5월 癸

酉條에는 渤海使 使都蒙의 요구에 응해 黃金 小100兩을 사여한 이래 발해와의 대외교류에도 금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표5〉 일본 금의 발해 유입

	연도		출 전
1	777	黃金, 水銀	續日本紀
2	796	沙金	日本紀略
3	822	黃金	類聚國史
4	825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5	826	黃金	類聚國史, 日本紀略

4. 金銀의 유통과 동아시아 교역의 변화

동아시아에 있어서 금은이 유통되거나, 교역대가로써의 지불수단으로 점차 금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역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물론 8세기 단계에서 신라와 일본 간의 교류에는 여전히 綿이 주로 사용되었고,[62] 841년 11월 文室宮田麻呂가 장보고로부터 '唐國貨物'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선금으로 絁라고 하는 綿과 같은 섬유원료를 지불하였으며,[63] 869년 신라의 해적이 豊前國의 貢調船을 습격하여 絹綿을 약탈하는[64] 등의 예로부터 신라와 일본 간의 교역에는 주로 면이 사용되었고, 9세기 중반 이후 두드러지는 唐商과 일본 간의 교역에서부터 금

62) 岡藤良敬, 〈大宰府財政と管內諸國〉《新版 古代の日本》3, 角川書店, 1991, pp. 308~309.

63) 《續日本後紀》承和 9년(842) 正月 10일조 乙巳條 … 是日 前筑前國守文室朝臣宮田麻呂 取李忠等所齎雜物 其詞云 寶高存日 爲買唐國貨物 以絁付贈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寶高死 不由得物實 因取寶高使所齎物者 ….

은이 활발히 사용되었다[65]는 것이 이제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이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에서는 금은을 이용한 器用의 제작이 금지령이 반포될 정도로 이미 금은의 사용이 성행했던 9세기 초반에 日本使를 통해 금이 진상되고 있었고, 이미 8세기 이후부터 筑前國 을 중심으로 일본의 서남지역과 신라 간에는 銀을 통한 교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9~10세기에 이르면 신라와 일본 간에는 綿뿐만 아니라 금은도 주요한 교역품 내지는 교역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금은의 유통이 동아시아의 교역에 가져온 변화는 비교적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일본의 교역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849년 唐商人이 단독으로 일본에 항해해 온[66] 이후, 862년에는 唐商의 鴻臚館에의 안치가 허가되었다. 이후 당상과 일본과의 교역은 빈번히 이루어졌으며,[67] 그간 신라상인이 주도해 오던 동아시아의 해상교역은 9세기 후반 이후에는 당상인(재당신라인도 포함)의 주도로 변모해 간다. 여기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그 배경이 되었지만, 그 중에는 일본 내에 팽배해 있던 신라에 대한 排外意識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68]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상인에 의한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발전은 이들 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西海道의 지방관이나 지방 호족들의 私的교역을

64) 《三代實錄》貞觀 11년(869) 6월 15일 辛丑 … 大宰府言 去月二十二日夜 新羅海賊 乘艦二隻 來博多津 掠奪豊前國年功絹綿 卽時逃竄 發兵追遂不獲賊.
65) 皆川雅樹, 앞의 논문, pp. 27~30.
66) 《續日本後紀》嘉祥 2년(849) 8월 4일조.
67) 松原弘宣, 앞의 논문, 1999.
68) 이병로, 앞의 논문.

발전시켰고,[69] 이것은 일본 조정의 대외교역의 독점(외국상품의 독점)을 곤란하게 했다. 이러한 사정이 일본 조정으로 하여금 신라상인과의 교역을 경계하고, 당상인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官司先買의 大宰府 교역으로 변경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관사선매를 통한 교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먼저, 교역품의 교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관사선매에 앞서 멋대로 교역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조정은 상인의 鴻臚館 이용 = 安置供給의 제도를 마련하고, 명확한 교환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바로 금이었던 것은 아닐까? 교환의 편리성이나 財貨的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희소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估價(沽價)를 설정하는 데 가장 알맞은 것은 금이었을 것이다.

또한 상인의 입장에서도 금은의 확보는 상품 대금 이외에도 이를 매개로 교역 주체(왕권이나 중앙 권력)와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 당상과의 교역을 관장하였던 交易唐物使는 천황의 측근인 藏人所로부터 파견되었다. 이 장인소가 平安時代 중기 이후 金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70] 고려할 때 금을 매개로 한 양자의 관계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大宰府 교역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다[71].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海商이 대재부에 도착하면 唐物使가 대재부에 파견되어 商客이 가지고 온 貨物을 검사・선별하여 物貨目錄을 작성

69) 이병로, 〈장보고와 혼야노미야다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대외문물교류연구》4, 2006

70) 小葉田淳, 〈陸奧の金〉《日本鑛山史の硏究》岩波書店, 1968

71) 《新儀式》제5 大唐商客寺 大宰府言上商客着岸之由 爲令檢領貨幷行和布(市事) 差藏人一人・出納一人下遣 使等檢領唐物參上 厥後更遣出納一人 令辨賜直 令太政官奏; 松原弘宣, 앞의 논문 참조.

하여 조정에 보고한다. 조정은 필요한 물자를 進上시키고(이상의 과정이 檢領),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대재부에서의 '和市'라 불리는 가격교섭에 의해 자유매매를 허가한다. 이후 京으로부터 '返金使'[72]가 와서 교역대가로써의 금을 지불하여 국제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교역질서의 유지, 그러나 실제로는 궁정수요의 확보를 위한 교역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며 금이라는 교환기준(지불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금은 天皇에 의해 독점적으로 확보되었고, 천황 이외의 귀족들도 교역에 참여하였지만 천황과 같이 막대한 양의 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귀족들은 絹, 綿 등 대체지불수단을 이용하였던 것이다[73].

견당사를 통한 일본과 당 사이의 공식 교류는 실질적으로 承和 5년(838)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일본은 소규모의 '入唐使'를 당의 商船에 편승시켜 香料나 藥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貞觀 16년(874)에 파견된 '入唐使'의 일원이었던 大神御井은 당시 參議였던 藤原山陰으로부터 하나의 부탁을 받고 당으로 출발하였다. 藤原山陰은 千手觀音을 조상하기 위한 白檀을 당에서 사왔으면 한다는 부탁과 함께 그 비용으로 다량의 黃金을 전하고 있다. 3년 후인 元慶 원년(877) 8월 입당사는 귀국하였고 이때 大神御井도 藤原山陰에게 부탁받은 白檀을 사가지고 귀국하였다. 이에 藤原山陰은 천수관음을 조상하여 이를 攝津國 島下郡에 總持寺를 세워 모셨다고 하는 기록이 延喜 11년(912)에 완성된 총지사의 鐘銘에 창건기록으로 남아 있다.[74]

이러한 예를 통해 보면 9세기 말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아시아

72) 返金使 역시 천황의 측근으로 藏人所로부터 파견되었다. 이는 결국 천황이 金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3) 주 60) 참조; 足立道久 앞의 책 참조.

의 국제교역은 해상이 일본에 들어가 교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의 상선에 편승해 중국에 들어가 교역하는 경우에도 금을 통한 대가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의 국제교역에 있어 금이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세기 후반의 기록이지만《小右紀》天元 5년(982) 3월 26일조에 의하면, 唐人이 항해해 온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奧州에서 金이 獻上되지 않았기 때문에 '答金'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일본 조정은 상품의 대가로 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당인에 있어서도 금이라는 것은 3년이나 기다릴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9~10세기 동아시아 특히 신라와 일본의 금은교역과 그것이 동아시아 교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료 상의 제약으로 일본 중심의 검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나, 당시 일본의 교역 시스템 형성은 신라·당 등 동아시아 주변국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 것이므로, 당시 동아시아 교역변화의 일단은 확인할 수 있었다.

8세기까지 동아시아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絹이나 綿 등의 직물류는 9세기 중반 이후 금은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교역품(조공품)

74)《朝野群載》권1

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역의 대가 역시 점차 金銀으로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직물류는 주요한 교역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귀족이나 지방 호족 등의 교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국가의 최고 권력인 신라의 왕이나 일본의 천황이 금은을 독점하면서 교역을 장악해 갔다.

최고의 국가 권력이 금은을 독점하게 되면서 금은을 중시하는 교역형태로 흘러갔고, 동시에 그러한 교역의 결과는 국가 최고 권력이 금은을 더욱더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일본에서 大宰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역시스템이다. 大宰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이 형성된 배경에는 9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 해상에서 국제교역을 주도하던 장보고를 비롯한 재당신라상인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지방 세력이 교역을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 신라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西海道의 지방관이나 지방 호족들의 私貿易을 발전시켰다.

사무역의 발전은 그동안 일본 조정이 대외교역을 독점(외국상품의 독점)하며 지배층으로서의 권한을 강화 · 유지시키고 있던 것을 곤란하게 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조정은 신라상인과의 교역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장보고의 죽음을 계기로 재당신라상인들이 주도하던 동아시아 교역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상인(재당신라인 포함)이 동아시아 교역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당상인의 국제교역활동과 金銀을 통한 교역의 증대가 맞물리면서 일본은 官司先買라고 하는 大宰府 중심의 교역시스템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고만으로 9~10세기에 있어서 금은의 유통이 동아시아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교역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모두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금은의 유통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신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의 唐 내부에 있어서 금은의 유통문제[75], 그리고 동아시아제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諸國과 아시아의 기타 이민족과의 교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금은의 문제[76]와 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유목민족과의 금은 유통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당 후기 당 내부에서의 금은의 유통과 은품귀현상 등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75) 日野開三郎, 앞의 논문,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5, 1984; 9세기 후반 당 내부에서 금은의 화폐유통과 당시 대외교류에 있어서 금은교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를 중비 중이다.
76) 加藤繁, 앞의 책.